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주영하 권희정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등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세계시장의 형성과 이데올로기 장벽의 철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초국가적 공동체(transnational community) 형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도 분열과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지역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주요 정책의제로 채택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정책은 주로 경제협력과 제도적 통합에 초점을 둔 반면, 문화적 교류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는 단지 물적 자원의 교류나 공통의 제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원들이 문화적 상징을 소통하여 공유함으로써 구성된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문화적 상징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장의 마련이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정적이고 형식적인 문화교류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을 발굴하고 소통하는 역동적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 지배체계 하에서 간과되었던 문화주체들이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공동체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을 확인하고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문화유산은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을 포괄한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직조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에 주목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직조생산이 지니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고, 한, 중, 일 주요 직조생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직조유산 현황과 직조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문화유산 교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여성문화유산은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나 유물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등이 포함된다.

그 가운데 유적지로는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지와 일반유적지 가운데 여성들의 공간, 그리고 여성들의 생산활동과 교육활동 등이 이루어진 공간을 들 수 있으며 근자에 들어서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 역시 여성문화 유적지에 포함된다. 이 외에 여성과 관련된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 등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유물로는 역사상 여성들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생산한 문서나 저작물, 예술작품 뿐 아니라 여성상인이 유통시킨 물건, 여성들이 사용했던 각종 도구와 의복이나 장식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그린 예술작품이나 기록물 역시 커다란 의미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유산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역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여성들이 생산해온 직조 등의 공예와 음식문화, 여성들의 의례와 연행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동북아 직조생산의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여성들은 평생을 집안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딸로서의 역할만을 해왔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은 각종 한계를 극복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이러한 점은 많은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조명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직조생산은 여성들이 전담해온 대표적 분야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여성들의 특수한 문화를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선사시대에 직조가 시작된 이후 줄곧 중국의 관영생산을 제외하고 모든 직조는 여성들이 전담하는 분야였다. 직조생산을 통해 여성들은 가족의 의복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며, 국가 재정의 근간을 구성하고 시장경제의 발달을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들은 과중한 노동부담에 시달려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정약용은 『경제유표』에서 “목면을 재배하면 이익이 오곡의 백 배”가 되며 “한 명의 베 짜는 여인이 남성 농부 세 명보다 많은 일을 하며(一織婦女勝三農夫)” “남성이 45일 걸리는 일을 여성은 한 달만에 해낸다”고 하며 여성들의 생산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직조는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서 삼국시대에는 직조나 염색, 표백, 바느질 등 직물과 관련된 관사가 설치되어 여성들이 하급실무관리로서 직물을 생산해 냈으며 고려 시대에도 직조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활동했다. 또한 여성들이 직물 유통과 교역에도 참여한 예도 있으며,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직물 유통을 담당하는 여성 대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여성들은 농업생산과 함께 생계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직조를 통해 자급자족적인 농가의 한 기둥을 형성해왔다. 특히,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중국이 세계 비단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으며 황도파(黃道婆)와 같은 여성들은 직조 생산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직조생산을 통해 여성들은 가구 내외부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들의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직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행하는 핵심적인 일로서 보편적 여성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한, 중, 일 3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성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성들은 길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뛰어난 직조 능력을 갖춘 여성은 상당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감을 지닐 수 있었다. 물론 국가 체제가 발달하면서 직조노동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압력 하에서도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들 특유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직조를 통해 여성들 간에 삶의 방식이 전승되었을 뿐 아니라, 물레를 돌려 실을 잣고 베틀에서 직조를 하면서 여성들은 삶의 고달픔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직조에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투영하기도 했다. 또한 직조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로서 가내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들의 영역이 집밖으로 확대되고 여성들 간에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에도 한국과 일본의 주요 직조생산지에서는 직조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가 다소나마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조기술은 동북아 지역내 문물 교류의 핵심이었으며 고대부터 여성생산자들은 직조기술의 전파자로서 동북아 각국의 문화발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19세기 말 직물 시장 개방과 공장제의 발달로 인해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면서 각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대표하는 여성생산자들의 면모는 크게 퇴색했다. 여성생산자들은 저임금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공통된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상기시키고 여성들 간에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직조는 오직 가난한 여성들의 힘든 노동으로만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기계화에 따라 직조 기술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도 각광받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들은 소극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 자신들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직조노동자들은 연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직조와 자수 등의 관련분야에서 여성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시행되기도 했으며 기업화된 세계에서 여성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들어 한, 중, 일 각국의 주요 직조생산지에서는 전통직조를 중심으로 한 예술관, 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이나 축제 등도 개발하고 있어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소 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과 여성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동북아 각국의 직조유산 현황

동북아 3개국의 주요 직조생산지를 중심으로 직조생산현황과 여성생산자의 위상,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의 형성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역사와 경제발달과정에 따라 현재 직조의 생산체제와 그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매우 상이하며,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식 정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직조의 산업화와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여성중심적 직조생산체제가 붕괴하고 여성들은 공장의 단순노동력이나 하청업자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온 여성들의 직조활동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문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직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자수공예의 경우에는 주요 장인들이 교육과 국내외 문화교류 및 홍보분야에서 현저

한 활동을 벌이면서 문화유산 생산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전시관 등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계승해온 직조생산전통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전통 직조를 중심으로 여성생산자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 문화재로서도 그 가치를 공인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전통직조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개발되면서 관광상품으로서도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직조유산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여전히 물질적 문화유산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며 생산자 자신들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적극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단순한 기술자로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상황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전통직조를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었으며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여성들은 공방을 운영하거나 직물조합을 결성하여 경제주체로서 가내 남성에게 비해 월등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물론 대량생산체계가 정착되면서 여성이 단순노동력으로 전락했던 것은 일본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개중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경영자로서 여성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장인의 세계가 남성에게 의해 대표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장인 내지 여성전통공예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전통공예사회 내에 여성부회가 결성된 것을 비롯해 여성공예사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이들의 경험과 작품세계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 등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여성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여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형문화유산은 현재에도 숨쉬고 있으며 계속 변화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동북아 여성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국가 간 차이는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체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들이 살아온 삶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젠더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 활성화 방안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 여성들은 내외법과 남존여비사상에 입각한 유교문화의 경직된 성별구조 속에서 소외집단으로서 유사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각국의 여성문화유산, 즉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들의 삶을 표상하는 유적지나 유물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지역 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짚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동북아 여성발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여성문화유산의 재발견은 갈등과 지배-피지배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동북아지역을 평등하고 역동적이며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내의 각 부문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가칭) 구축: GO 네트워크, NGO 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 지식정보 네트워크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기회 확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행

사 개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상설 전시관 설치, 제9회 세계여성
학대회기간(2005. 6) 중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전시행사 개최

- 대중적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관광프로그램 개발
(여성문화유적지 관광, 여성생산전통 체험관광 등), 대중용 동북
아 여성문화유산 해설서 발간
- 향후과제: 국내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여성문화유산 지식정보 생
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성문화단체의 동북아 교류 역량 강화,
여성문화유산협의회 구성(실태조사, 발굴·보존·활용계획 수립
등), 동북아시아위원회 내 여성교류 소위원회 구성, 관련기금의 여
성문화유산 프로그램 배정 또는 동북아 여성문화기금 설치, 동북
아 지역여성의제를 중심으로 한 NGO교류 확대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6
3. 연구 내용과 방법	9
II.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11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13
2.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26
3. 동북아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30
III. 동북아 직조공예의 역사적 전개와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35
1. 우리나라	38
2. 일본	48
3. 중국	70
4. 동북아 직조생산의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89
IV. 동북아 직조유산 현황: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101
1. 우리나라: 한산모시	103
2. 일본	122
3. 중국: 소주자수와 남통남인화포	143
4. 소결	161

V. 결 론	165
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여성문화유산 교류의 의미	167
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 활성화 방안	173
참고문헌	181
〈부록 1〉 동북아 각국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187
〈부록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여성교류 주요 현황	211

표 목 차

<표 I-1> 동북아 3개국의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수준	6
<표 II-1>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29
<표 II-2>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사례	30
<표 II-3> 일본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사례	31
<표 II-4> 중국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사례	32
<표 III-1> 소농 경영체 ‘이에’	61
<표 III-2> 호농 경영체 ‘이에’	62
<표 III-3> 남동생과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	63
<표 IV-1> 한산모시 생산 규모(2003)	106
<표 IV-2> 키하치조 직물조합의 추이	125
<표 IV-3> <삶을 채색하는 여성 장인전(暮らしを彩る匠の女たち): 여성 전통공예사 10인의 ‘기술전승’> 참가자	135
<표 IV-4> 《도전 미래의 여성공예사전》 참가자	140

그림·사진 목차

<그림 I-1> 연구 목적	8
<그림 V-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구성	174
<사진 III-1> 김홍도의 <자리짜기>	94
<사진 IV-1> 하치조지마의 전통장인 오쿠야마 타츠코씨가 짚키하치조 키모노들	126
<사진 IV-2> 군마현에서 이주해와 키하치조를 짜고 있는 여성	127

I

서론

1. 연구 배경

20세기 말부터 세계시장의 형성과 이데올로기 장벽의 철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세계는 커다란 변화에 휩싸여 있다.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 지식이 민족국가를 초월해 이동하면서 민족국가를 단위로 했던 정치·경제·사회·체제는 쇠퇴하는 반면, 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공동체, 즉 초국가적 공동체(transnational community)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면서 역사의 대전환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동북아 지역에서도 분열과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동체의 기반을 닦기 위한 시도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설립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현하고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물류와 금융, 산업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물류기지 구축과 IT인프라 구축 및 첨단 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 관광 육성, 금융시장의 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등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비해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제한되었다. 단지 국가간의 긴장, 특히 경제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관심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동북아지역 저변에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뿌리내리기 위한 문화적 접근을 모색하며 나아가 초국가적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까지는 관심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 올해 6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동북아시아위원회로 개편되고 그 산

하에 사회문화협력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제적 통합과 제한된 문화교류만으로는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를 되짚어 본 앤더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체는 단지 공통의 지배 체계와 제도 하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상징을 서로 소통하면서 자신들을 어떤 끈에 의해 엮인 공동체로 상상함으로써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교류나 제도적 통합만으로는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확립될 수 없으며 오직 문화적 상징의 소통을 통한 상상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동북아 지역보다 앞서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추진해 왔던 유럽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서도 경제교류 및 제도적 통합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적 인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부터 문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활동과 문화유산보호 등에 대한 각종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화발전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해왔다. 1987년 문화분과 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는 『유럽공동체의 문화를 위한 새로운 후원』(A Fresh Boost for Culture in the European Community)에 입각해 유럽공동체 차원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활동은 회원국 차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전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활동을 위한 새로운 전망』(New Prospects for Community Cultural Action)에도 명시되어 있다: “문화활동이 국가적, 지역적 문화의 주체성을 꽃피우는데 기여하며, 이와 동시에 그들의 문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유럽인들이 일반 문화유산과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

운데에서도 문화유산은 특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문화유산은 각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며, 유럽의 문화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유산은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여 전세계에 걸쳐 유럽문화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럽연합에서는 1995년 라파엘(Raphael)로 칭해지는 문화유산 특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1996년부터 다음과 같은 주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홍보
- ▶ 유럽차원의 유산보호 분야의 상호협력 장려와 지식전문화, 실천의 연대화
- ▶ 유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통하여 유럽시민으로서의 확신에 기여하도록 하며, 대중들에게 유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접근성의 제고
- ▶ 상호 이해와 실천을 통한 유럽의 잠재력 확인
- ▶ 비회원국과 다른 국제조직, 특히 유럽회의와의 협력권장
(Richards 1995: 129-131)

문화, 특히 문화유산을 둘러싼 유럽연합의 노력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근대 이후의 역사적 질곡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과정을 거쳐 왔으며 상당기간 동안 상호교류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이에 동북아 공동체 형성 작업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미래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상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소통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물론 이제까지도 국가를 넘어선 문화교류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교류 방식, 즉 국가를 단위로 한정적이고 형식적인 민족문화 교류로는 탈국가적 공동체의 구성에 진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을 발굴하고 소통하는 역동성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 지배체제 하에서 간과되었던 문화주체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공동체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을 확인하고 여성문화가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역사와 문화에 의미 있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여성문화유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성문화유산은 과거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밝혀 주는 단서로서 동북아 여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핵심일 뿐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단서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국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제한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I-1> 동북아 3개국의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수준

	HDI	GDI	GEM
우리나라	28위	29위	68위
일본	9위	12위	38위
중국	94위	74위	-
전체국가수	(177개국)	(144개국)	(78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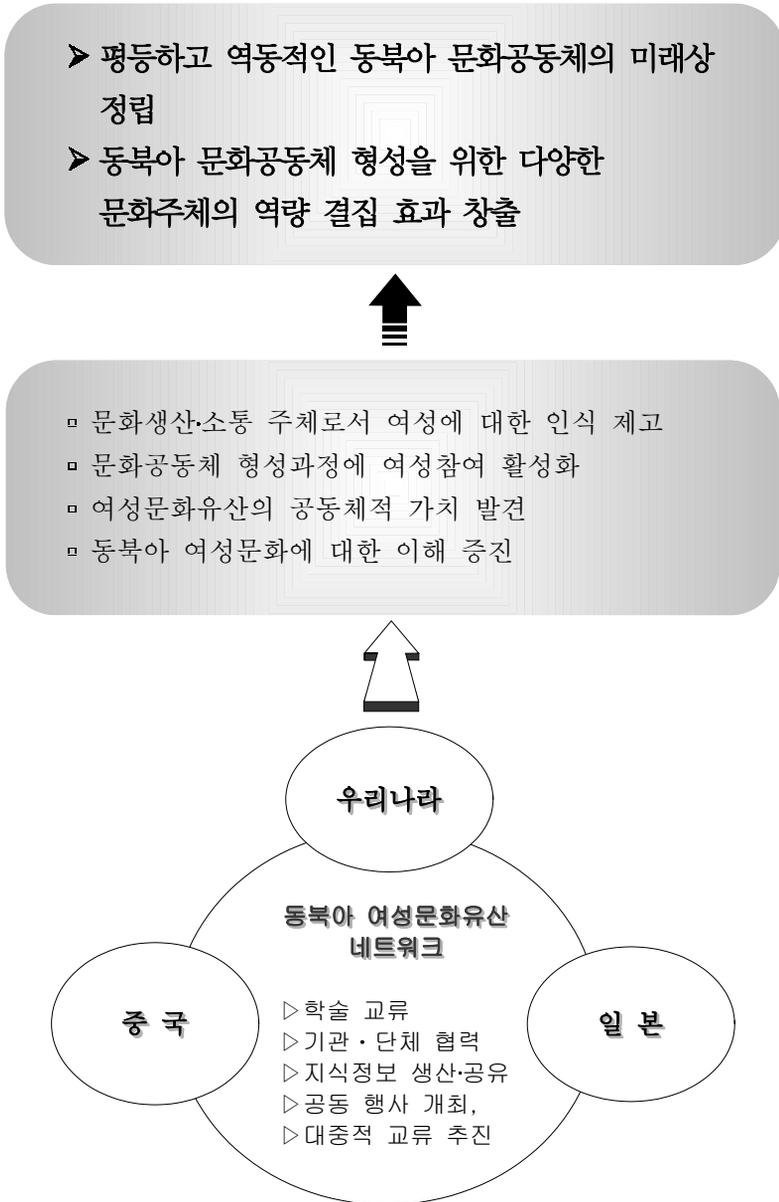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2004.

UNDP에서 해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지수를 비교해 보아도 이러한 점은 드러난다.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빠른 경제적 성장으로 전반적인 발전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성발전과 특히 여성의 세력화 정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표 I-1>). 뿐만 아니라, 공식 문화의 장에서도 여성문화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여성들은 역사의 주체로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해 온 바를 적극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역사주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분명히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상을 정립함으로써 동북아 젠더 문화에 대한 역동적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질서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질서가 유지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으며 오직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여성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만 평등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의 방향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문화유산의 교류는 동북아 여성협력 차원에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 여성들은 북경세계여성회의 등을 계기로 교류를 진행시켜 왔으나, 대부분의 활동이 UN 차원의 여성발전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기구 및 주요 NGO 간의 교류에 한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 여성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존재해온 여성들 상호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동북아의 특수한 여성의제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그림 I-1>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최근 들어 학계와 여성단체, 여성정책기구 등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유형을 범주화하고 동북아 3개국, 즉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 여성문화유산으로 주요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요소들을 개괄하고자 한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 여성이 공통적으로 생산해온 물질문화유산, 특히 직조공예유산에 주목하여 각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여성들의 직조와 관련분야 생산이 전개되어 온 바를 살펴보고 직조생산이 각국 여성들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여성의 직조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인식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나 전시, 보존 등의 활동 등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계승해 온 직조공예유산을 비롯해 여성의 삶과 역사를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이 동북아 여성문화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동북아 3개국의 주요 여성문화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헌을 연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연구 및 여성연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직조공예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 지역에서 직조공예유산이 전개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되짚어보고 이것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파악하는 작업은 각국의 경제사 및 여성사, 복식사 분야의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직조와 자수나 복식 등의 관련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산현황,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고 현재 직조 생산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연구자, 정부기관 관계자, 단체 활동가, 생산자 등을 인터뷰하였고 주요 생산지의 전시관, 박물관, 연구소 등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산모시로 유명한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비단 직조 본고장의 도도부현 하치조지마를 비롯해 도쿄와 교토 등지에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강소성 남통의 남인화포와 소주의 자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문헌연구와 현지연구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직조를 비롯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성과와 사회적 관심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했다.

II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가. 문화유산의 개념과 가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윗세대로부터의 교육과 동료들 간의 교류 등을 통해, 즉 문화화(culturalization)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고와 행동의 틀을 형성한다. 그 결과 문화는 해당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동시에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계승되어 공동체의 생명력과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 유산은 특정 집단이 쌓아온 문화적 요소 가운데, 그 집단이 역사적 실체임을 표상하는 핵심상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집단의 성원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의 일부로 자신들을 위치시키며, 동시대인들 간에 일종의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또한 자신들이 선조로부터 독특한 문화를 계승받았던 것처럼 자신들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 문화의 생명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의 문화유산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일종의 제도로 공식화된 것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일이다. 당시 민족국가를 문화적 정통성과 역사적 실체를 지닌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 (Andersen 1991)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화적 요소를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규정, 공표하고 이에 풍부한 의미를 부여하여 여타의 물품과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로 자리 잡았다. 당시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적 자산 또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로 인정받았으며, 파괴와 약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특히 2차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자 그 영향력은 한층 커졌다. 1946년 UNESCO 창설 당시부터 야만적 전쟁으로 파괴되는 인류 발전역사의 성취결과를 보존하는 것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었으며, 1954년 최초의 문화유산 관련 협약인 무력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s)이 체결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온 자산으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겨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이다. 이전까지 자산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에 접근한 결과, 건축물이나 고고학적 장소, 박물관 소장품 등 유형의 유산에는 일차적 중요성이 부여된 반면, 무형의 유산은 간과되었으며 유형의 유산에 있어서도 물질적 측면만이 부각된 반면, 유산이 지니는 의미는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여 후세에서는 오직 보존과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규정됨으로써 역사적 가치의 대상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실천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구에 따라 그 목록과 가치가 계속 재구성되어 왔다. 문화유산으로서 한결같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이는 유물이나 유적지들이 한때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대상으로 무시되거나 심지어 극복의 대상으로 치부되기도 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면,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요소가 정치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무시되는 경우도 많다.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보는 대신 사회적 구성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신흥 독립국가가 출현하면서 한층 본격화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식민지배시기와 거리를 두면서 민족적 역사성과 정체성의 위대한 상징이 될 수 있는 유산을 구성하여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었으며 그 결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산과는 거리를 둔 유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전해내려 온 모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와 역사적 과제에 따라 선택되고 가꾸어나가야 할 대상이며 그 목록과 형태, 의미 역시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유적과 유물에 집중되어 있던 경향에 대한 반성

이 제기되면서 언어나 의례, 축제, 구술 전통 등 무형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¹ 물질적 측면에 가려져 있던 문화의 의미론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탈국가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민족국가 중심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요소를 취사선택하고 국가적 단일성을 앞세워 지배집단의 문화를 표상하는 유물이나 유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각광을 받는 반면, 지역적, 민족적, 계급적, 성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독특한 전통은 유산으로서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이제까지 별다른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있는 주변적 집단의 문화를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개념의 변화는 나아가 문화유산 보존방식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 관심사로 등장한 이후 줄곧 문화유산은 있는 그대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외부의 일방적인 관심과 자원 투입에 의존하는 인위적인 보호제도로는 보존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유물이나 유적지와 달리 무형의 유산의 경우에는 보호 중심의 접근이 생명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구성원들의 삶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정한 실용성을 지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만이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다.

이제 문화유산은 민족국가의 단일성을 표상하는 지배집단 중심적인 정적인 상징 차원을 넘어 국가 내의 다양한 집단의 독특한 삶을 표상하는 역동적인 상징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UNESCO 등에서는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던 문화적 다양성을 발굴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생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¹ 특히 2001년에는 인류의 구술 및 무형유산 걸작에 관한 선언문(Proclamation of the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이 공포된 바 있다.

나.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선조로부터 계승되어온 모든 문화적 요소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요소가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민족국가 발달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줄곧 문화유산은 민족의 단일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상정되어 왔으며 지배집단 중심적 관점에서 그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유산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대상 가운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만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반면, 대부분의 요소들은 유산의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중심부에서 배제된 주변지역이나 소수민족, 피지배계급의 관점은 유산의 정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들이 만들어온 독특한 문화는 주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기껏해야 대전통(great tradition)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소전통(little tradition) 정도로 간주되는 정도였으며 심지어 민족통합을 해치는 요소로 치부되기도 했다.

남성 중심적 지배체계 속에서 여성 역시 적극적인 역사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요소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물론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의 일부 요소는 문화유산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분리를 초월하는 민족문화의 표상, 즉 몰성적(沒性的; gender-blind)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그 가치 역시 가부장제 질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었을 뿐, 남성지배적인 체계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여성의 존재를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요컨대, 문화유산의 목록과 가치가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된 결과,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의 존재는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으며 여성의 삶의 궤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화, 지방화 추세 속에서 국가 내외부의 다양한 세력이 문화유산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국가담론, 남성지배담론에 기초한 문화유산의 구

성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역사적 가치로 충만한 문화유산의 생산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주변지역과 소수민족이 온전한 문화의 생산자로 자격을 부여받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적 상징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사회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존재와 위상 역시 재조명되고 있으며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 문화유산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존재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창조해왔으나, 역사 구성에 있어 여성은 남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물론 모든 시기에 있어 여성의 존재가 전제되기는 했지만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가시화되지 못했으며 기껏해야 남성에 부수적인 존재, 남성중심의 질서에 봉사하는 소극적 존재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줄곧 여성의 존재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효와 정절을 지키는 여성상으로 등장하는 정도였다.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존재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항일운동기 독립운동, 사회활동, 교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음이 밝혀진 것을 비롯해, 고대국가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여성들은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사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역사의 장에서 여성들은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여성사 연구를 통해 특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여성 인물의 활약상이었다.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열사 등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온 여성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민족국가의 존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우리 역사의 주요한 인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의 많은 여성들은 그 존재조

차 알려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역사의 과정에서 부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여성사 연구에서는 여성인물의 존재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기존의 풍토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광범위한 역사의 장에서 활동했던 여성인물을 발굴해내는데 주력했다. 또한 남성중심적 역사 구성에서 주변적인 위치만을 부여받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폄하되어왔던 여성인물, 예를 들어 허난설헌, 명성황후, 나혜석, 최승희 등을 재평가하여 여성인물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통해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확산되어 최근 들어서는 새 화폐 도안에 여성인물을 새기는 문제까지 공론화되고 있다.

역사적 장에서 활동했던 여성인물은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실천을 전개한 적극적인 존재였으며, 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인물은 여성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우선 이들의 삶의 궤적과 관련된 각종 요소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전에 무시되었던 수많은 문화유산을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표출한 문학이나 그림, 무용 역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인물의 위상과 활동을 표상하는 각종 요소와 문화유산을 발굴해내는 것 이외에도 여성인물의 존재를 고려함으로써 물성적 관점에서 규정된 문화유산의 피상성을 극복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재구성하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기존의 여성사 연구에서는 역사적 장에서 활동해온 여성인물을 통해 역사의 주체이자 문화의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들과 관련된 공간이나 생산물 등의 각종 상징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여성인물들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 여성들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층의 특수한 개인으로서 우리 역사의 장에 있었으면서도 개인적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적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했던 일반 여성

들 역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상징을 생산해온 만큼, 역사적 존재로서 이들의 존재와 역할을 표상하고 이들의 삶을 전해주는 상징을 발굴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역사상 일반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도 직조는 1960년대부터 이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공인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유산의 의미를 조명하는데 있어 생산을 직접 담당한 여성의 삶과 문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물질적인 민족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그 결과 직조공예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풍부한 의미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여성사 연구와 사회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직조노동 양상과 그 사회경제적 중요성은 밝혀졌지만, 그것이 여성들의 삶과 문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현재를 사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 개인을 넘어서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이 생산하고 공유하던 각종 연행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주목할 만하다².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익혀온 기술과 지식,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각종 요소들 역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여성들의 생활상과 그 속에서 형성되어온 여성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에서의 여성사 연구는 20세기 초반에 전개된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과 신사학운동(新史學運動)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²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큰 인기를 누렸던 여성극은 배우 전원이 여성이고 주요 관객 또한 여성인 명실상부한 여성의 장르로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 신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여성을 둘러싼 각종 제한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공적인 장소에서의 문화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여성들이 공적인 무대의 주역으로 섰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남성 역할을 여성이 담당함으로써 성이 절대적인 자연의 질서라기보다 문화적 형성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극의 내용을 보면 남녀간의 사랑이 주를 이루는데, soap opera처럼 남성지배적 질서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관심을 표출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있다.³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당시 중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던 봉건파타의 기초를 이어받아 남녀평등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계몽적인 여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梁啓超이다. 그가 주장한 신사학은 역사연구의 대상을 지배층 중심에서 벗어나 인류 공동의 경험과 성취를 탐구해야 하며, 여성도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⁴

이러한 논의는 1919년 5·4운동의 전개를 통해서 본격적인 연구로 발전하였다. 사실 이전까지 중국 지식계는 여성을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인 음양(陰陽)의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도 ‘남존여비’의 유가적 전통을 통해서 봉건적인 여성상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명개화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사상 여성을 둘러싼 가족·혼인·여걸·교육·법률·문학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그 대표적인 여성사 관련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사무량(謝無良), 『中國婦女文學史』(上海中華書局, 1911)

역사상 유명한 여성 문학가를 중심으로 문학사를 정리했다.

○서천취(徐天嘴), 『神州女子新史正續編』(海神州圖書局, 1913)

역대 역사 편찬기들이 소홀히 다루어왔던 역사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을 중심으로 사료를 수집하여 완성하였다. 주로 고대부터 청말까지의 사서에 나타난 여성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조봉개(趙鳳喈), 『中國婦女在法律上之地位』(商務印書館, 1927)

이 책은 정사(正史)의 기록과 법률서적을 기초로 역대 중국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논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근대국가로서의 중화민국 법률 체계에 여성의 지위가 일정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³ 김인숙, “中國女性史研究100年-「新史學」에서 「新史學」까지,” 『中國史研究』 제 7권 (1999), p. 209.

⁴ 梁啓超, 『新史學』(臺北: 中華書局, 1960), p. 7.

○진동원(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商務印書館, 1928)

여성이 3천년의 역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 연원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부에 중국에서 진행된 여성사 연구는 여전히 전통적인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유가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열녀를 가장 고상하고 완전한 중국여성의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역설하며 정조를 지키고 과부의 수절을 찬양하는 등 전통적인 사고를 고수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등의 기간을 거치면서 중국 여성사 연구는 당시 서구와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후 여성사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81년 하남정주대학(河南鄭州大學)에 부녀학연구중심(婦女學研究中心)이 설립되어 이소강(李小江)을 중심으로 서구의 여성학 이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여성사 연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북경대학(北京大學)에 부녀연구중심(婦女研究中心)이 성립되어 여성사 관련 논저가 나오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회가 개최되면서 중국대륙의 여성학 연구는 세계적 조류에 편성하기 시작한다. 중국정부에서도 1995~2000년 『中國婦女發展綱要』, 2001~2010년 『中國婦女發展綱要』의 제정을 통하여 남녀평등을 중국사회 발전의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중국 여성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대체로 혼인과 가족문제, 역사상의 위대한 여성과 전설상의 여성의 지위, 기녀와 첩·후궁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민속상의 남아선호 풍속과 모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에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통해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도영백·이식陶咏白·李湜, 『中國女性繪畫史』(南美術出版社, 2000), 수천중(水天中), “藝術與婚姻-20世紀前期的美術家夫婦”, 『

中國女性主義』2004 春(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4), 서홍(徐虹), ““女學”和女畫家”『中國女性主義』2004春(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4) 등은 여성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근대 여류 화가에 주목하여 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특히 회화사에서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류 화가는 물론이고 자수와 공예 방면의 작가까지도 망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향후 중국여성학 연구자들이 여성문화유산에 대해 새로운 연구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역사적 존재로서 일본여성에 대한 연구는 1930-40년을 전후로 하여 출발하였다. 당시 인류와 사회의 여러 분야를 구성하는 여성의 생활과 여성의 문화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⁵ 생활사 연구 영역에서 여성이 주제로 등장할 정도로 여성사 연구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 후 1950년대 들어 여성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⁶ 여성을 주제로 연구가 대거 진행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는 “여성사 연구붐”이라고 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민속적 사실이나 전통문화의 유산을 나열하면서 그 속에 여성의 모습을 피상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피해자로서 여성을 조망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여성사를 발굴해

⁵ 예를 들면, 『妹の力(여성의 힘)』(1925)이라고 하는 글에서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는 일본의 문화와 사회를 여성이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 일본의 문화와 민속을 알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하라 히로코 1987:65). 이어 1942년부터 1944에 걸쳐 三國書房은 여성총서를 간행하였으며, 아마카와 키쿠에(山川菊榮)의 『武家の女性(무가의 여성)』의 출판, 야나기타의 제자인 瀬川清子の 학문적 업적, 문화인류학 분야에서의 토리이 키미코(鳥居キミ子)와 이소노 후지코(磯野富士子) 등의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것도 이 시기였다.

⁶ 동경대학 등에서 가르치고 있던 이시다 에이치로(石田英一郎), 오카 마사오(岡正雄) 등이 “문화인류학과 민족학 분야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한 사회를 연구하려면 남녀 연구자 모두가 필요하다. 특히 한 사회의 여성들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성 연구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여성 조사자가 훌륭한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며 초보 여성연구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하라 히로코 1987: 66). 이 때 아카데미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은 여성 인류학자들 중에 이후 학문적 분야에서 활발한 활약을 하는 나카네 치에(中根千枝), 이카와 후미코(井川史子), 아오야나기 마치코(青柳眞智子), 미야자키 노부에(宮崎信江), 그리고 하라 히로코(原ひろ子) 등이 있다.

내리는 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직조유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1974년대 출판된 『織物の旅(직물여행)』(毎日新聞社, 1974)이나 1975년의 『手仕事のおんな(손일을 하는 여자)』(大谷晃, 朝日新聞社, 1975)에서는 많은 자료 사진에서 여성들이 직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단지 직물과 함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며 초점은 각 지역의 역사와 직물의 역사 그리고 그 지역의 직물 특징과 아름다움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 속에서 일반여성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형성된 문화의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은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우선 여성사 총합연구회(女性史総合研究會)는 1990년 『日本女性生活史(일본 여성 생애사)』를 출판하며 여성의 일상을 역사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성공하였으며, 이어 1992년에는 『日本女性の歴史: 性・愛・家族(일본여성의 역사: 성, 사랑, 가족)』, 이듬해인 1993에는 『日本女性の歴史: 文化と思想(일본여성의 역사 문화와 사상)』을 출판하고 있다. 『日本女性の歴史(일본여성의 역사)』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여성 역사 연구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있다.

여성들은 역사적 소수자이고, 역사의 부속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사료 속의 여성들을 보았는데, 의외로 그들의 다채로운 활약을 재발견하고, 역사상 이미 잘 알려진 여성들의 이미지도 새롭게 조망할 필요를 느꼈다. 역사는 여성과 남성의 낱실과 씨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유명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미 역사의 기준이 아니다. 이후 사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성의 역사를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 회원들과 진지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였는데 이러한 착실한 여성사 연구는 전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20세기 후반의 역사연구의 큰 성과이다(永井路子: 1992: 11).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직조유산에 대한 시각도 크게 변화하여 여성의 직조활동을 둘러싼 젠더 구조, 그 속에서 직물생산자로서의 여성의 경

힘을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여 직조는 단지 물성적인 유산이 아니라 여성들이 생산한 문화유산으로서 구체적으로 탐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야시타 사오리(宮下 さおり)의 『職人' マスキュリニテイの歴史的變化の研究('직인' 메스쿨리니티의 역사적 변화의 연구)』(2000), 나가노 히로코(長野 ひろ子)의 『日本近世 ジェンダー論(일본 근세의 젠더론)』(2003), 히메오카 토시코(姫岡とし子)의 『ジェンダー化する社會(젠더화하는 사회)』(2004) 등은 농촌사회에 있어서 '집'의 경영과 젠더분업, 직물에 얽힌 젠더 이데올로기적 담론 분석, 근대화 과정에서 직물산업이 젠더화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직물생산자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구술사로 기록한 『<聞き書き>雪のしじまに絹織る箴言:十日町織物を支えた女性たちの生活世界(<듣고 기록한다> 눈의 정적 속에 비단을 짜는 소리: 토오카마치의 직물을 이어온 여성들의 생활세계)』가 1994년 간행되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을 '직인(職人)'으로 명명하며 전통 공예 안에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연구서들은 2000년 이후 등장하고 있는데 사토 테츠로(佐藤徹郎)의 『美の匠たち: 女性傳統工藝士の世界(아름다움의 장인들: 여성전통공예사의 세계)』(2001)와 아베 준코(阿部純子)의 『若き女職人たち(젊은 여성 직인들)』(2002)에서 비로소 여성은 묵묵히 일하는 또는 착취당하는 여성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이자 문화유산 생산·유통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 여성문화유산의 의미

여성문화유산은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유산이 단지 과거로부터 계승, 보존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역사적 계속성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여성역사인물이나 무명의 일반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 역시 오늘날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해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사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여성역사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 여성이 생산해온 각종 문화가 문화유산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영국의 소설가 브론테 자매나 허난설현처럼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해온 인물들, 이러한 움직임과 직접 관련된 요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⁷

그런데,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많은 부분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유산의 의미는 다면적이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가부장제 질서의 전형처럼 여겨지는 신사임당의 경우에도 그 자신이 뛰어난 문필가였을 뿐 아니라 신사임당의 생가인 오죽헌은 조선시대 당시 모거제가 행해진 바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반면, 가부장제 질서에 저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허난설현의 저술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특정한 요소가 지니는 가치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일본의 실크 직조의 경우, 과거 일본여성들에게는 남편의 통제 하에서 남편과 가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자 빈곤과 고통의 상징이었으나, 현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계기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⁸

여성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습득, 계승한 문화적 요소 중 현재를 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일부임이 분명하지만,

⁷ 조혜정 (1996).

⁸ Creighton, Miller R., "Japanese Craft Tourism: Liberating the Crane Wif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2) (1995), pp. 463-478.

여성문화유산의 가치가 그것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지,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기술과 생산물, 연행 등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여성들이 역사주체, 문화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2.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역사를 만들어간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향취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는데, 우선 여성과의 관련성 면에서 여성이 직접 생산한 유무형의 상징과 물질적 차원에서 여성이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점유와 사용을 통해 의미를 생산한 유산, 그 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상과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먼저 여성 개인이나 집단이 생산한 결과물과 활동은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존재와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여기에는 여성인물들의 저작물이나 예술작품, 집단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생산했던 물품이나 여성들이 행했던 연행과 의례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과 행위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 기술체계 역시 여성들 사이에서 전수되어 독특한 여성문화의 기초가 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여성들은 점유와 사용을 통해 특정한 공간이나 물질의 의미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존재와 삶의 모습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공간이나 생산도구 등은 물질적 차원에서 여성이 생산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 내지 사용함으로써 여성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즉 의미론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생산한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외에 여성이 생산하거나 점유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회화나 시 또는 각종 기록물 역시 역사적 장에서 잊혀지기 쉬운 여성의 존재를 일깨우고 여성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로서 넓은 의미의 여성문화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 기록물을 생산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은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문화유산은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유형화 틀에 따라 범주화할 수도 있다. 문화유산은 크게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 문화유산(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유물이나 유적지와 같이 물리적 실체를 띠고 있는 문화유산을 가리키며 물리적 실체보다는 지식, 기술, 그리고 그에 기초한 활동 등이 중심이 되는 문화유산은 무형 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서는 이러한 틀을 받아들여 문화재 유형을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이나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의미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법적으로는 기념물과 민속자료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광범위하게 보면 유형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을 크게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구분하는 일반적 틀을 준용하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각종 요소를 분류할 수 있는 틀을 고안하였다(표 II-1). 먼저 유형의 문화유산

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와 각종 유물을 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유적지로는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지와 일반유적지 가운데 여성들의 공간, 그리고 여성들의 생산활동, 교육활동, 종교활동 등이 이루어진 공간을 들 수 있으며 근자에 들어서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 역시 여성문화유적지에 포함된다. 이외에 여성과 관련된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 등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많은 유적지들이 현재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변해있어 유산으로서의 본래 면모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변형은 되었지만 그 터만으로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적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유물로는 역사상 여성들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생산한 문서나 저작물, 예술작품 뿐 아니라 여성상이 유통시킨 물건, 여성들이 사용했던 각종 도구와 의복이나 장식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그린 예술작품이나 기록물 역시 커다란 의미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기록에 있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 왔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구전전통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생산, 확산, 계승해왔다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문자기록물 뿐 아니라 구전전통 역시 여성문화유산의 주요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유산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역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들이 생산해온 직조 등의 공예와 음식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연행과 의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전통사회에서 놀이나 의례는 노래와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연행이 혼합되어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놀이가 의례를 동반하거나 의례가 놀이와 함께 이루어져 양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서는 행위예술 분야가 일상적인 놀이나 의례와는 구분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도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어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여성문화유산을 각각 구분된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1>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문화유산유형		여성문화유산유형
유형문화유산	유적지	여성역사인물 유적지 여성역사인물의 생가나 시집, 묘소, 사당, 정려각 등
		여성 생활유적지 궁궐의 여성공간, 집터나 가옥 등에서의 여성공간
		여성 생산활동 유적지 공동작업장, 여성노동자나 여성자영업자의 작업장
		여성교육·여성운동유적지
		여성관련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 및 신앙관련 유적지
	유물	여성의 복식 여성이 사용했던 의복, 장신구 등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그에 비견되는 구전전통
		여성의 예술작품 여성이 제작했거나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역사적 존재와 삶을 보여주는 작품
		여성의 생산도구
무형문화유산 (기능, 기술, 지식)	물질문화	여성 공예문화유산 -길쌈-바느질, 자수, 매듭
		음식문화유산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여성들이 즐기던 세시풍속, 종교의례, 생산관련놀이
		행위예술 음악, 무용, 연극

3. 동북아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가. 우리나라

<표 II-2>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사례

여성문화유산 유형		주요 사례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 오죽헌, 허난설헌 생가 - 진덕여왕릉, 선덕여왕릉, 수로왕비릉, 유관순 열사유적등
	여성 생활 유적지	- 궁궐의 중궁전과 궁녀공간, 종묘, 칠궁 - 부엌,안채 등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 선잠단 터, 잡실, 빨래터, 해녀작업장 등 - 초창기 방직공장이나 기숙사 등 - 초창기 양장점, 미용실 등
	여성 교육·운동 유적지	- 여학교, 여성단체건물 등
	기타 여성 관련 유적지	- 해주산성, 진주성, 아차산성 - 무속사당, 성황당, 해신당, 순교지 등
유물	여성의 복식	- 국립민속박물관, 석주선 박물관 등에 다수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 한중록, 정일당유고 등 - 규곤시의방 등
	여성의 예술작품	- 여성작가의 그림, 조각상, 공예품 등
	여성의 생산도구	- 부엌도구, 길쌈, 양잠도구, 밭농사도구, 상업관련(여보부상, 박물장수 물건), 해녀의 도구 등
물질문화유산	여성 공예문화유산	- 한산모시, 나주솻글나이, 곡성돌살나이, 명주 짜기 - 자수, 침선 누비4 - 망건, 탕건
	음식문화유산	- 궁중음식 - 향토술담그기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 강강술래, 뽕다리밟기, 강릉단오제 - 굿 - 길쌈놀이
	행위예술	- 경기민요, 노동요 - 진주검무, 태평무 - 여성국극

* 주요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나. 일본

<표 II-3> 일본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사례

여성문화유산 유형		주요사례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 히구치 이치요우(樋口一葉) 구적지 및 묘 -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생가 및 묘 - 토히쿠테이(冬栢亭) - 마츠이 스마코(松井須磨子)의 연극비, 생가, 묘
	여성 생활 유적지	- 니혼바시(日本橋) 요시초(芳町) 일대
	여성 교육·운동 유적지	- 츠타우메코 영어학교(津田梅子英語塾) - 우애회 부인부(友愛會 婦人部) - 오오사카 키시다와시(大阪 岸和田市) 공장
유물	여성의 저작물, 고문서	- 『蜻蛉日記(카게로일기)』 - 『和泉式部日記(이즈미시키부일기)』 - 『源氏物語(겐지모노가타리)』 - 『紫式部日記(무라사키시키부일기)』 - 『更級日記(사라시나일기)』
	여성의 예술작품	- 카지와라히사코(梶原緋佐子)의 「暮ゆく 停留所(저물어가는 정류소)」 - 이토쇼하(伊藤小派)의 작품들
물질문화	여성 공예문화유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 직물** (越後上布, 小千谷縮布, 結城紬, 久留米紬, 芭蕉布, 宮古上布) - 종이(石州半紙, 本美濃紙, 細川紙, ほそかわし, 伊勢型紙) - 도자기(柿石衛門, 色鍋島, 小鹿田焼) - 칠기(輪島塗) <동경도 지정 무형문화재> - 직물(本場黄八丈) <이외 각 현 지정 무형문화재다수>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 가이아와세(貝合せ) - 스고로쿠(双六) - 깃초(毬杖) - 게마리(蹴鞠)
	행위예술	- 노쿠세마이(女曲舞) - 온나 카부키(女歌舞伎) - 온나사루가쿠(女猿樂) - 온나노 노(女の能) - 타카라즈카 가극(宝塚歌劇)

* 주요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기능적으로 실짓기 부문 보유자, 직조 부문 등으로 나뉘어 있고 모두 여성들이 기능보유자임.

다. 중국

<표 II-4> 중국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사례

여성문화유산 유형		주요사례
유적지	여성 인물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안화청지(당현종과 양귀비의 전설) - 서안간릉(서안시 건현 양산, 당 고종과 측천 무후의 무덤) - 북경이화원(서태후 관련) - 북경송경령고거
	여성 생산 활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통심수예술관 - 남통방직박물관 - 소주자수연구소 - 소주시오현자수연구소 - 소주사주박물관 - 황도파의『선면사』: 상해송강
	여성 교육·운동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파여숙(寧波女塾, 1844년) - 북경패만여학(北京貝滿女學) 등 기독교 설립의 여자학교(1860년대 이후) - 상해여교(1903년, 도화·전통공예·자수 등 전공) - 북경여자사범(1918년) - 여자공독호조단(1920년)
유물	여성의 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사서(『사여칙(四女則)』『여계(女誡)』『여논어(女論語)』『인효문황후내훈(仁孝文皇后內訓)』) - 채문희(동한) : 『胡茄十八拍』 - 설도(당대) : 『答祝秀才』등 - 어현궤(당대) : 『江行』등 - 이청조(송대) : 『一剪梅』등 - 사빙심(근대) : 『超人』 등 - 정령(근대) : 『在黑暗中』 등 - 기타 근대 여성문학 및 예술가의 작품

여성문화유산 유형		주요사례
물질문화	여성 공예문화유산 (역사상 중요 여성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통남인화포, 소주비단, 소주자수 등 - 이 분야에서는 수 많은 여성인물들이 활동했는데,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광의 처(서한): 織機改革(散花綾) · 소혜(秦州刺史竇滔妻, 전한): 染織工藝家(回文錦) · 두씨(백행간의 처, 당대): 刺繡(觀音綉像, 阿彌陀佛綉像) · 여미낭(당대): 刺繡(綉字, 法華經七卷) · 주극유(남송): 緯絲(蓮塘乳鴨圖, 牡丹) · 짐자변(남송): 緯絲(梅花寒雀圖, 桃花雙鳥圖, 靑壁山水圖) · 황도파(원대): 棉紡織 革新家로 棉織生產技術을 개선하고, 양자강 하류의 棉紡織手工業의 발전을 도모함. · 정낭자(명대): 棉紡織 개량(丁娘子布) · 한희맹(顧綉藝人, 명대): 자수(畫綉, 虞美人, 洗馬圖) · 예인길(명대): 자수(綉心經, 五蝠圖, 『凝香綉譜』출판) · 형자정, 동소원, 설소소, 왕월: 명대 자수전문가 · 심수(청대): 자수 전문가(櫻花栖霞, 山水風景, 『雪宦綉譜』저술) · 정패(청대): 자수전문가(『綉譜』저술) · 호련선(청대): 자수전문가(綉花吳萸) · 조혜균, 금성일, 왕원, 노원소: 청대 자수전문가
의례 및 연행	놀이와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석절 풍속(치치아오(乞巧)) - 야행(夜行), 과교(過橋), 유백병(游百病), 등불놀이
	행위예술 (역사상 중요 여성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은 가녀(歌女), 평극(評劇), 월극(越劇) 무도(舞蹈), 잡기예인(雜技藝人) 등에서 활동해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춘주시대): 민간가창가 · 영신, 장홍홍(당대): 가녀 · 왕소옥(청대): 가창가(梨花大鼓 유명) · 주소란(청대): 평탄예인으로 유명 · 백옥상, 화련방, 이금순, 소계화(20세기 초반): 평극(珍珠汗衫, 潘金蓮 등) · 원설분, 부전향, 도행화, 축소아, 마장화(20세기 초반): 월극(梁祝哀史, 祥林嫂 등) · 이부인(李延年的 누이, 한대), 조비연(한대), 손쇄(위나라), 녹주(서진), 장소아, 만화인(명대): 무도 · 공손대낭, 사아만, 장소낭, 장운용(당대), 왕옥산(오대), 장역낭(청대): 가무(歌舞) · 석화호(당대), 주림수, 손수수, 양원수(원대): 잡기예인

* 주요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III

동북아 직조공예의 역사적 전개와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역사상 여성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생산, 계승해왔지만, 남성중심적인 연구 분위기 속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여성사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역사주체로서 여성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나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현저한 활동을 펼쳐온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지나 유물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를 통해 부각된 여성문화유산이 주로 개인으로서의 여성, 특히 지배집단 출신의 여성 개인과 관련된 상징이 대부분이어서 무명의 수 많은 일반여성들의 위상과 삶을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역사상 무명의 수 많은 일반 여성들은 가구 내에서 뿐 아니라 마을, 지역,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면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생산, 계승해왔는데, 그 대표적 예가 여성들이 전담해온 전통직조이다. 동북아 각국에서는 전통직조는 국가의 주요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화유산으로서 직조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있어 여성에 의해 생산, 계승되어 왔으며 그 만큼 직조에는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위상이 투영되어 있으며 여성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있다는 점은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장에서는 동북아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와 동시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대표적 수공예분야인 직조생산이 각국의 역사과정 속에서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으며 그 속에서 여성들의 위상이 전개되어 온 바를 살펴봄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문화유산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기능하고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직조생산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는 여성들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가내·외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었고 정치, 종교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부장제가 성립되면서 남녀유别的 원칙 하에 여성의 활동은 크게 제약 받기 시작했다. 여성의 존재가치는 오직 가구 내에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정되었으며 딸로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 그에 따라 정치적 영역에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가구 외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되었으며 그러한 역할은 여성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실제 여성들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으나,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저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 가구 외에서 활발한 활동한 여성들은 예외로 규정되었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활동상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여성사 정립은 물론 우리 역사 전반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서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직조생산은 역사를 총괄해 여성들이 담당해온 분야로서 역사 구성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일반 여성들의 활동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해온 독특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절에서는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여성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일이었던 직조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여성 직조노동의 변화상을 살펴봄으로써 직조생산이 지니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가. 고대 여성의 직조생산

여러 곳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물레의 부품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직조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위지』, 『후한서』, 『북사』 등에 변진, 마한, 진한, 옥저, 예 등의 직조생산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⁹ 1-2세기 초엽에는 이미 직조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생산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이러한 직조는 모두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남자는 경작하며 여자는 직조하는”식의 성별분업양식이 확립되었다.

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직조는 두 방향으로 분리, 발전되었다. 일반 촌락의 농가에서는 자체의 의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조를 하는 한편, 궁중에서는 귀족과 왕실의 사치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중국에 대한 조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관영수공업 차원의 직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직조 역시 일반 여성들이 가내에서 하는 직조와 궁중 관영수공업 차원의 직조로 분리되었는데, 후자는 하위 여성 기술관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는 여성들이 종사하는 관직이 기록¹¹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여성들이 종사하는 관직은 주로 직조나 염색, 표백, 바느질 등 직물과 관련된 관사에 배속되어 있었다. 조하방(朝霞房) 23인, 염궁(染宮) 11인, 소전(疏典) 6인, 홍전(紅典) 6인, 소방전(蘇芳典) 6인, 찬염전(攢染典) 6인, 표전(漂典) 10인, 침방(針房) 16인, 기전(綺典) 6인 등

⁹ 기원 40년경의 『위략』의 염사착설화에서는 진한에 대한 중국 군현의 요구가 사람과 변한포였다는 내용, 변한포 1만5천 필을 낙랑에게 주었다는 내용, 한가위의 기원으로 알려진 길쌈놀이(계)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후한서』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2세기 초엽 고구려왕 수성(遂成)이 한의 생구(生口)에 대한 대가로 현도군에서 검포(縑布)를 주었다고 기록이 전해지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 마한조에는 마한에서는 잠상(蠶桑)과 면포의 직조를 알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서울: 신서원, 1996), p. 47.

¹⁰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김점호 구술(유시주 편),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90), pp. 176-188;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pp. 70-71.

¹¹ 여성이 종사하는 직위는 母 또는 女로 표기되어 있다. 母와 女 직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pp. 126-127 참조.

이 그것으로 조하방은 조하주(朝霞紬) 등의 견직물을 직조하던 기관으로 보이며 소전은 고치실을 켜는 기관, 염공, 홍전, 소방전, 찬염전은 염색기관, 표전은 표백기관, 침방은 바느질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여겨지며 여성들은 이러한 기관의 하부실무관리로서 직물을 생산했다.¹²

농가 여성들의 직조와 궁중에서의 직조는 생산양식이나 생산물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농가에서는 직접 삼을 재배하거나 양잠도 하여 그 원료로 직조를 하는 데 비해, 궁중에서는 특수용도의 고급직물, 특히 견직물과 세포(細布)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였다. 농가여성들은 비분업적인 형태로 직물을 생산한 것과 달리 관영수공업 분야에서는 농가에서 재배한 원료를 가지고 작업공정별로 분화된 형태로 생산이 진행되었으며 기술수준도 농가의 직조와는 현격히 차이가 났다. 삼국시대 직조기술의 발달은 궁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7-9세기 경에는 궁중에서의 직조 수준이 현저히 발달해 직물의 섬세함이 더해졌으며 생산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¹³

나. 국가의 직물 수요에 따른 여성의 직조 노동 증가: 고려-조선전기

(1) 고려

삼국시대에 이미 “남자는 경작하며 여자는 직조하는¹⁴ 방식이 굳어질 만큼 직조는 여성들의 핵심적인 일로 자리 잡았으며 관영수공업차원에서의 직물 생산과 자급자족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농가여성들의 직조가 병존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시대 들어서도 지속되어 직조와 염색을 담당하는 관영기구¹⁵가 설치되는 한편 농가에서도 직물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

¹²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고대에서 대한제국시대까지-”, 『여성학논집』 5 (1988), pp. 7-113.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p. 115.

¹³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¹⁴ 『신당서』 권 200 열전 145 동이전 신라

데 대부분의 직물생산은 농가에서 이루어졌다.¹⁶

농가 여성들은 일상의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삼베나 모시 등을 직조를 했을 뿐 아니라, 부세(賦稅)로 납세하기 위해서도 직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미 신라 시대부터 환과고독자와 병사들에게 사여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일반 농가에서 생산된 직물을 납부하도록 했던 데 더해(박남수 1996: 71) 고려시대에는 다른 공물에 대신해 마포가 납부되기도 함으로써 부세로서의 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게다가 마포는 현물화폐로 기능하였던 만큼 농가 여성의 직물 생산량은 현저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농가 생산 나아가 수공업생산 전반에서 여성들의 직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층 커졌다.¹⁷

이처럼 대부분의 직물은 농가여성이 농한기를 이용해 부업 차원에서 생산해냈으며 고려 후기로 갈수록 공물 납부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관장하는 관료들의 부패가 심해는 데 대한 항소가 제기되고¹⁸ 베짜기가 여성의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언급될 정도로¹⁹ 여성들은 보다 많은 직물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직조에 투여하는 여성들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별다른 기술적 변화도 없었던 상황에서 생산물의 질적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고려 후기 들어 귀족문화가 한층 발달하고 고급 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가여성의 기술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물론 일반 군현의 여성들 이외에 통일신라 말기에 형성된 소(所) 가운데 주소(紬所)

¹⁵ 초기에는 잡직서와 도염부로 조직되었다가 이를 통합한 직염국과 지방기구인 잡직감방으로 개편되었다.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¹⁶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 108.

¹⁷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¹⁸ 충렬왕 때 홍자변의 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도에서 가는 모시를 거두니, 백성이 견디기 어렵나이다. 마땅히 관비로 있다가 풀려난 자로 하여금 베짜기를 시키어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시옵소서. 본디 공물부과는 양이나 액수자 정해져 있사온데, 각도가 민가의 세마포를 끄집어 내어 실에 있어서는 횡령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금하시이다.” 이능화,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원전 1927), p. 370.

¹⁹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 p. 31.

에서는 견직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는 했지만, 생산물 대부분을 공물로 납부했던 만큼 증가하는 고급품 시장을 위한 생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기술을 지닌 전문 생산자가 등장하여²⁰ 개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급 직물 시장을 상대로 가는 삼베나 고급모시, 고급 견직물을 생산하였다.

(2) 조선전기

삼국시대 이후 출공 국가지배체계가 강화되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직물의 양은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만큼 여성들의 직조노동도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전기 들어 최고조에 달했다. 고려말 목화씨의 도입 이래 조정에서는 면업을 광업, 염업과 함께 삼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²¹ 면화 재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면직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²²

이처럼 조정에서 면직물 생산에 주력한 요인은 면포에 대한 재정적 수요와 군사적 수요의 증대에 있었다. 관료의 수적 증가에 따라 녹봉과 상사 등으로 하사할 면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해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지불수단으로서 면포의 수요가 증대했던 것이다. 특히, 성종조 들어 일본으로부터 금을 비롯한 귀금속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할 면포의 양도 계속 증가해 해마다 50만 필을 헤아릴 정도였으며 이는 정부가 징수하는 연간 총 면포량의 두 배에 달하는 량이었다. 이에 더해 성종조 이후에

²⁰ 『고려사』 권 123 주인원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왕과 최고위관료가 요구하는)가늘고 견고하게 직조된 황색 마포는 여공이 포를 짜는데 있어 매우 어려운 고난이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시골 아낙네가 어찌 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겠는가?”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각주 142.

²¹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²² 세종 17년(1435) 종자를 남부지방에서 거두어 북부지방에 심게 한 것을 비롯해 면직 생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후 세종, 예종조를 거쳐 성종대에 이르면 기존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 이외에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도 면화가 재배되었고, 성종조에는 국민이 거의 목면을 착용할 정도로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澤村東平,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 p. 31. 재인용.

는 사치풍조가 널리 퍼지고 관료들 부패가 심각해지면서 15세기말부터 공부(貢賦)의 징수가 강화되었는데, 특히 목면의 징수강화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종 10년 종래에 미곡만으로 지급하던 녹봉을 증액하여 면직물과 함께 지급하기 위해 기존에 호당 2-3필씩 부담하던 호포제 이외에 비역자인 보인들에게까지 1정(丁)당 면포 2필씩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직조생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²³

이후에도 면포 징수는 줄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란으로 인한 농업 생산 부진으로 전조미(田租米) 징수량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면포 징수가 한층 강화되는 경향까지 있었다.²⁴ 또한 양민들의 군포 징수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²⁵이 시행된 이후에도 삼정의 문란으로 양인들의 부담은 가중되면서 17세기말에 면 직조를 필두로 여성들의 길쌈노동량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왕실의 고급 직물 수요를 충당하던 관영 직조가 완전히 쇠퇴한 가운데, 군사적, 재정적 이유로 증가한 직물 수요는 농가에서 생산된 직물로 충당되었다. 각 가구에서는 가족들이 입을 의류 생산의 목적 이외에 상당한 양의 면포를 생산해 공물로, 군포로 국가에 납부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더 긴 시간동안 직조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삼베나 모시, 명주 등의 길쌈을 여성들이 해왔던 것처럼, 면포 생산 역시 여성들의 일이었다. 물론 발갈기와 씨뿌리기, 비료주기 등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작업했지만, 면화재배과정 중에서도 잔손질이 많이 드는 솜아내기, 솜따기등의 작업은 여성들이 담당했으며, 재배한 목화로 실을 뽑고 면포를 짜는 일은 여성들이 전담했다. 또한 면화재배에서부터 직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여성이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⁶

²³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

²⁴ 박영애,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위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 52.

²⁵ 임란 이후 조세개혁으로 양정(良丁)이 부담하는 포는 한필로 감소하였다.

²⁶ 梶村秀樹, “이조말기(개항 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사계절, 1983), p. 170.

다. 상품경제의 발달과 직조생산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지배체계가 강화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오랜 시간 직조를 해야 했다. 여성들은 자가소비용 의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직조 이외에 공물과 군포로 납부할 면포를 생산했으며, 점차 후자가 직조생산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직물은 쌀, 은과 함께 대표적인 현물화폐로서 기능하였다.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삼베가 화폐대용으로 사용된 것을 비롯해²⁷ 17세기 중엽 상평통보가 주조되기 이전까지, 심지어 1894년 조세의 금납화가 완전히 실시될 때까지도 시장교환의 주요 매체였다.²⁸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가 수요를 넘어선 직물은 흔히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자급자족을 위한 직물과 국가에 납부할 직물 이외에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찍이 고려 전기부터 농민들이 특산물이나 일반 마포를 직조하여 부세로 납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시전에서는 판매용으로 생산된 저포나 견직물 등이 널리 유통되었다.²⁹

판매를 위한 직물 생산은 조선시대 들어 한층 증가했으며 직물 매매가 성행하고³⁰ 특히 사대부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직물 시장은 큰 활기를 띠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직물은 시장의 발달을 이끄는 동인이었으며, 18-19세기 전국 1,052개의 향사에서 유통되는 물품 중 40%가 저포, 면포, 명주 등의 직물류일 정도로³¹ 시장거래 물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³²

²⁷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²⁸ 박영애,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위상」, p. 52.

²⁹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p. 109. 112.

³⁰ 『세종실록』 세종 11년 11월의 사료에 의하면 양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뽕잎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자가소비용이라기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양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종조에 발생한 비단 사취사건은 비단 매매가 성행했던 증거로 볼 수 있다.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 p. 33.

³¹ 김신웅, 「조선시대 수공업 연구: 경공장-외공장의 분화와 기업적 수공업의 대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5), p. 64.

조선후기 상품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직조 생산은 새로운 면모를 띠어갔다. 대부분 농가 여성이 가내 수공업 차원에서 생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시장교환용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길쌈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에 따라 직조는 이익이 높은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며, 직조의 핵심인 여성 노동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기도 했다. 특히, 정약용은 『경제유표』에서 ‘목면을 재배하면 이익이 오곡의 백배’가 되며 ‘한명의 베 짜는 여인이 남성 농부 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며(一織婦女勝三農夫)’, ‘남자가 45일 걸리는 일을 여자는 한달 만에 해내는’ 것으로 평가했다.³³ 이렇게 직조가 상품생산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점차 직포의 값이 미곡의 값보다 높아지면서³⁴ 농가의 집집마다 여성이 길쌈을 정업(正業)으로 하여 살림을 불러 부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특히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다.³⁵

시장경제의 발달과정에서 직조생산량은 현저히 증가했으며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직조에 전념하는 경향까지 생겨났다. 토지가 척박하고 수전의 소출이 적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오로지 면직업을 전업으로 삼았으며 마포로 유명한 황해도나 경상도와 저포산지인 충청도의 저산팔읍(苧産八邑)³⁶ 등지에서는 각읍이 면사, 방적, 직조로 돈을 벌었다.³⁷

이들 지역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직조를 하던 데에서 벗어나 직조를 주업으로 하거나 직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직조를 전문으로 하는 생산자가 존재하기는 했었다. 고려 후기에는 보통의 아낙네들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기술을 지닌 전문 직조생산자가 있어 최고급 직물을 생산해냈다.³⁸ 그

³² 농업생산물과 가공품류의 비중은 30% 정도였다. 위의 책, p. 64.

³³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19세기의 한국사회』, (대동문화연구원, 1972), pp. 189-190.

³⁴ 위의 책, p. 187.

³⁵ 이능화, 『조선여속고』, pp. 373-374.

³⁶ 충청남도 일대의 모시 생산지역으로 한산, 임천, 서천, 홍산, 비인, 정산, 감포 등의 저산칠읍이라고도 하고, 감포를 빼고 남포와 주포를 포함해 저산팔읍이라고도 한다.

³⁷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pp. 187-188.

런데, 새롭게 등장한 전문적 생산자는 뛰어난 기술로 최고급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상업적 경영을 통해 대량 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생산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료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고 가족의 노동력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하였으며³⁹ 종래의 물레와는 다른 새로운 방거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높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직물을 생산하는 직물제조장⁴⁰에서는 원료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직물을 함께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농가 부업으로 하는 경우 일년에 10필 정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호당 40필에서 많게는 60필에 이르는 양을 생산할 정도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⁴¹

새로운 생산방식의 등장으로 여성들의 직조노동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자신의 집에서 재배한 원료로 농한기를 이용해 실을 잣고 직물을 짜는 형태 이외에 여성들 중 일부, 특히 빈곤한 여성들 중에는 품값을 받고 다른 집에 일을 다니는 경우가 생겨났다. 또한 직물 생산과 유통이 분화되는 가운데 일부 여성들은 직물 유통에 진출하기도 했다.⁴²

³⁸ 『고려사』 권 123 주인원전에는 “이십승황마포, 즉 매우 가늘고 견고한 황색 마포는 여공이 포를 짜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고난이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촌부가 어찌 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겠는가? 필히 수도에서 구해야 할 것인데, 값이 비싸고 구매가 힘들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又令諸道貢二十升黃麻布 紡績於女工最難 村婦安能細織 必求諸京 價貴難買 民將不堪)”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난이의 기술로 최고급 마포를 생산하는 전문 생산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p. 108.

³⁹ 정약용의 본가 부근에는 교거와 방거가 각각 수대가 있었으며 여러명의 부녀자가 밤낮으로 모여 함께 직포를 짰다.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p. 189.

또한 1895년 유명한 산지에서는 농가 1호에 2-3대의 기계를 두고 인근의 부녀자를 모아 베를 짜는 곳도 있어 일본에서 직조공장을 설립하여 직공을 고용해서 많은 직물을 짜내는 것과 같은 구조였다. 梶村秀樹, “이조말기(개항 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

⁴⁰ 정약용은 이러한 형태를 직초가(織稍家)로 정의하였다.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pp. 208-209.

⁴¹ 위의 책; 梶村秀樹, “이조말기(개항 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 pp. 170-175;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 p. 34.

⁴² 9세기 말 평안도 정주의 무명장나이 신삼희당은 친정 오빠가 생산한 면직물의 판로를 맡아 크게 부를 얻어 집안 살림을 일으켰다. 강숙자, 『한국 전통사회 여

라. 근대화과정에서 직조생산의 부침

우리 역사상 국가 지배체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직물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왔으며 그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여성들은 상당 시간동안 직조 노동을 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는 시장경제의 발달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기술과 도구가 발달하는 등 직조가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면모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개항과 함께 크게 변화하였다. 값싼 영국산 옥양목이 수입되고 1890년대부터는 일본 면제품이 들어오면서 면직물 직조는 급격히 쇠퇴했으며,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 직물공업의 원료공급지이자 제품소비지로 전락하고 말았다.⁴³ 이에 더해 모든 세금이 전납화되면서 군포나 공부로 납부하던 면포 수요도 사라졌다.

농가의 면직물 생산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결국 직조를 하던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다.⁴⁴ 더욱이 일제 식민통치기에는 가내 직조에 필요한 물레나 베틀 등의 모든 도구를 경찰이 몰수하여 불태웠으며 베짜는 부녀자들은 체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 직조를 금지하기도 했다.⁴⁵

다만 면직 이외에 삼베나 모시 등의 직조는 기계화가 어려운 만큼 자본주의적 생산에 한계가 있어 외래 상품과 직접 경쟁을 하지는 않아 일제시대 이후까지도 상당부분 유지되었으며⁴⁶ 해방 후 정부에서는 저포증산 5개년계획을 세우기도 했다.⁴⁷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합성섬유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대체직물이 보급되면서 모시나 삼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쇠퇴하기 시작했다.⁴⁸

성의 삶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53.

⁴³ 김상수, 『개항기 한국 공업입지의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49.

⁴⁴ 광무 9월 1일에는 “일본의 침투로 과부의 실업을 초래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 p. 34.

⁴⁵ 조은 (1986), p. 104.

⁴⁶ 梶村秀樹, “이조말기(개항 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 p. 183.

⁴⁷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⁴⁸ 김상수, “개항기 한국 공업입지의 연구,” p. 43.

대신 직조는 경제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재 차원에서 가치를 인정 받기 시작했다. 1967년 한산모시짜기가 중요 무형문화재(제 14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1969년에는 나주의 셋골나이(무명짜기)(제 28호), 70년에는 곡성의 돌실나이(삼베짜기)(제 32호)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88년에는 경북일대의 명주짜기(제 87호)도 지정되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기능보유자에 대한 약간의 재정 지원 이외에 별 다른 지원책이 없는 만큼 모시나 삼베, 명주 직조 쇠퇴 추세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많은 생산자들이 수요가 없어 팔기 힘들고 몸만 고달픈 직조를 포기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말부터 자연섬유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 직물을 그 지역을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한산모시나 안동포 등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다소 환기되고 있다.

2. 일본

가. 직조의 기원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 저편에 천상의 황제의 딸인 오리히메(織女)라 불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오리히메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매일 옷감 짜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오리히메가 짜는 옷감은 오색으로 빛나고, 계절이 바뀔 때 따라 색이 바뀌는 신비로운 비단이었다. 황제는 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하였지만,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되었는데도 얼굴에 화장 한 번 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할 틈도 없이 일하고 있는 딸을 가련히 여겨 은하수 서쪽에 살고 있는 건실한 청년 히코보시(牽牛)라고 하는 소를 먹이고 있던 청년과 결혼을 시켰다. 하지만 결혼 후 직녀는 견우와의 신혼생활의 단 꿈에 빠져 옷감 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황제는 처음에는 그냥 두고 보다가 급기야 딸에게 “오리히메야, 옷감을 짜는 것이 너의 천직임을 잊었느냐?”하고 꾸짖으며 오리히메와 히코보시를 각각 하늘 반대편에 떼어두고 열심히 옷감을 짜면 일 년에 한 번 7월 7일 밤에 히코보시와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오리히메는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열심히 옷감을 짜며 히코보시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

이것은 일본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견우와 직녀’ 이야기이다. 일본에서는 이 전설 속의 ‘오리히메(직녀)와 히코보시(견우)’를 기념하는 타나바타 마츠리(七夕祭)를 매해 열고 있다. 타나바타의 시작은 나라시대(奈良時代: 593-1192) 때부터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다섯 개의 명절(節具: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중 하나로 초기에는 궁중 내 공식행사였다고 한다.

이 일본의 ‘오리히메와 히코보시’의 이야기는 고대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칠월칠석에 관련된 전설인데, 이 전설은 한국과 베트남⁴⁹ 등지에서도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고 전설과 관련된 유적지도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덕흥리 벽화무덤에서 고구려시대인 약 408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견우직녀 그림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며, 일본에는 전국 각지에 칠석을 기념하고 히코보시와 오리히메를 제사지는 신사가 남아 있다. 동북지역인 미야시로현(宮城縣)의 《夕神社》, 관동지역인 토치기현(栃木縣) 아시카가시(足利市)의 《織姫神社》, 군마현(群馬縣) 키류시(桐生市)의 《織姫神社》, 킨키(近畿)지역인 교토(京都) 니시진(西陣)의 《今宮神社 内織姫神社》, 오사카(大阪)의 《織姫神社》, 나라시(奈良市) 아스카무라(明日香村)의 《牽牛子塚古墳》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신사가 지어진 것은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전해지고 ‘타나바타 마츠리’가 시작되고 한참 후의 일이다.⁵⁰

⁴⁹ 베트남에서는 7월을 ‘까마귀가 나는 달’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일본의 ‘견우와 직녀’이야기에도 ‘까치’대신 ‘까마귀’가 등장한다.

⁵⁰ 아시카가시(足利市)의 오리히메신사는 1879에 지어졌으나 이후 전소되고, 지금

일본에서의 직물의 시작은 직물에 관련된 각종 신사들⁵¹이 지어지기 전, 그리고 타나바타 마츠리의 시작보다 앞설 뿐 아니라, ‘태고적 천상에서 오리히메가 짜고 있던 비단’ 보다 앞선다.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최초의 직물은 스위스의 듀엘러 호(Lake Duellers)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마직물이라고 한다. 이렇듯 직물의 유래에서 그 기원적 위치에 있는 것은 마(麻)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직조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죠문시대(繩文時代: 10,000년 전- 3,000년 전)는 유적들에서 식물섬유로 짠 직물의 조각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직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마(마: 麻), 참피나무(시나노키: 科), 등나무(후지: 藤), 쥘(쿠즈: 葛) 등의 식물섬유를 소재로 평평하게 짠 안잔(編布)이란 직물의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을 뽑아 직물을 시작한 것은 야요이 시대(彌生時代: 2,300년 전-587년)이다. 이때는 한반도에서 벼농사, 철기, 청동기, 유리 등이 전해졌는데 특히 403년 경 의복공녀(衣ぬい工女)가 백제로부터 도래하여 재봉기술이 전해졌다고 한다. 이때는 의복을 만드는 전문기술자가 생기기 시작한 시대이며, 고분에서 출토된 동경이 담겨져 있던 주머니 천이 청, 갈, 황록색으로 짜여진 견직물인 짐에 미루어보아 견(키누: 絹)의 직조도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스카·나라시대(飛鳥·奈良時代: 591-784)에 들어 견직물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문물이 들어옴에 따라 뛰어난 견직물 기술도 전해지며, 다양한 종류의 비단(아야: 綾, 니시키: 錦, 라: 羅) 등이 만들어졌다. 또한 자수 기술의 현저한 발달을 보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에도시대에 이르러 금사 자수가 시작되는

의 모습은 1934에 재건에 착수하여 1937에 완성된 것이다. 또한 키류시(桐生市)의 신사는 1895년 당시 일본직물주식회사가 그 부지내에 오리히메상을 보시고 있던 것을 옮기며 지어진 것이다.

⁵¹ 직물을 짜는 직기신인 하타노노(機殿), 또는 하타오리가미(機織神)를 모시고 있는 중부지역인 마츠사카시(松阪市)의 《上機殿神社, 下機殿神社》, 신오사카(新大阪) 니시와키시(西脇市)의 《機殿神社》, 큐슈(九州)의 《機織神社》가 있으며, 직물을 파는 가게를 의미하는 고후쿠(呉服)를 제사지내는 타카라즈카시(宝塚市)의 《呉服神社》도 있다.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나라시대에는 염색도 이미 많은 기법들이 사용되어 다양한 모양의 직물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천을 작게 잡아 실로 묶거나, 실을 교차하면서 꿰매어 색이 들지 못 하게 한 다음 염색하여 모양을 내기도 하고, 또 녹인 초를 가지고 손수 그림을 그려 나머지 부분에 색을 물들이거나, 나무틀을 올려놓고 거기에다 염료를 부어 모양을 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대는 공납품으로 견직물을 중앙으로 보내고 있었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뽕의 재배와 양잠 일을 권유하였다고 한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2)에는 얇은 명주(우스기누: 紗)나 이중 직물(二重織物)⁵² 등이 일반화되었으며, 우스기누나 니시키의 직조방법도 달라졌다. 또한 송나라에서 수입된 카리아야(唐綾), 카라니시키(唐錦) 등의 견직물 등도 관리들(役人)이나 귀족의 의복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마, 면, 콩과의 칩뿌리, 닥나무, 꾸지나무(카지노키), 등나무, 난티나무 등으로 만든 직물로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고 전해진다.

카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92-1333)에서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에 걸쳐서는 중국에서 또 다른 직조기술이 들어와 돈스(緞子)⁵³ 린즈(綸子)⁵⁴와 같은 직물이 만들어졌다. 또한 당나라 직물처럼 금실이나 은실, 또는 색실을 씨실로 하여 짠 화려한 비단도 새로운 직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직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 직조의 역사는 야요이 시대(2,300년 전-587년)에 시작은 했으나, 아스카·나라시대(591-784)에 견직물을 포함한 직조가 활발해졌으며, 헤이안시대(794-1192)에는 더욱 견직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카마쿠라·에도시대(1192-1867)에 들어 기술의 고급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복과 계층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본다면, 나라시대에는 고급견직물이 등장하며 의복에 있어서 평민과의 차별화가 시

⁵² 경사(날실)와 위사(씨실)가 이중으로 짜여진 직조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두둑이 나타나 있는 직물로 피케(Pique) 등이 있다.

⁵³ 날실과 씨실이 네올 이상 건너서 한 올씩 일정하게 교차 되도록 짠 직물, 두껍고 윤이남. 양단이나 공단 따위를 가리킨다.

⁵⁴ 고운 생사로 윤이 나게 짠 고급 견직물이다.

작되었으나, 에도시대에 들어서면 막부는 17세기 전반부터 자주 검약령이나 절약령을 내리고 농민은 마나 면제품만을 허용하고 견직물 사용을 금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귀족만이 향유하던 고급 견직물이 초카마치를 중심으로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일반에게까지 확산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직기의 역사는 이와 같은 직물 발달의 역사를 뒷받침한다. 직기는 야요이시대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의 직기를 겐시바타(原始機)라고 부른다. 5세기경에는 중국에서 지바타기(地機)가 전래되고, 주로 히라오리모노(平織物)를 짜는 데 쓰이다가,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는 면직물을 짜는데 사용하여 멘바타(綿機)라고 불렸다. 또 5-6세기경에는 지바타의 발 부분을 높여 짜는 사람이 의자에 앉듯이 앉아 더욱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자유자재로 짤 수 있는 타카바타(高機)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주로 견직물을 짜는데 사용되어 키누바타(絹機)라고 불렸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는 소라비키바타(空引機: 2층으로 되어 위에서 짜는 사람 아래서 짜는 사람 둘이서 함께 짜게 되어 있다) 등도 개발되며 더욱 활발해지는 직물의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14세기경에는 견직물을 파는 곳으로서 코후쿠텐(呉腹店)이 등장하여 이후 점차 성황을 이루며 에도시대에 이르면, 초카마치(城下町)의 고후쿠텐 등에서는 포목들을 가게 앞에 늘어놓고 팔았다고 하니 견직물이 무사 계급 뿐 아니라 일반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물의 역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타나바타의 시작은 비단 생산이 본격화 되고, 견직물 직조기인 타카바타의 등장, 그리고 견직물이 공납품으로 바쳐지며 전국적으로 양잠이 장려되던 때이며, 타나바타의 시작과 함께 ‘비단을 짜는 오리히메’ 이야기도 함께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직물의 역사, 즉 양잠이 장려되고, 비단이 공납품으로써 한창 각광을 받을 때 시작된 타나바타 마츠리의 시작과 오리히메 이야기의 등장과 확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직물생산에 있어서 여성이 수행했던 역할과 그리고 여성의 노동은 각 시대마다 어떠한 제도 속에 놓이고, 그 여성의 직조 노동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나. 여성 직조노동의 역사적 전개

(1) 고대사회

고대사회는⁵⁵ 율령국가체제가 성립하면서 중앙, 지방 정치조직의 공식적 지위에서 여성들은 배제되고 부계에 따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남성을 호주⁵⁶로 하는 각 호에 편입되며 가부장제체제적인 ‘이에(家)’의 모습을 갖춘 시기로 기록된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 정비와 남성호주 중심의 집 체제의 시작이 즉각적인 계급의 분화를 발생시키거나 여성의 성과 노동력을 한 사람의 남성 호주의 통제 하에 온전히 수렴하는 가부장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생활을 보면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마츠리(祭)에 참가하고 있었고, 마을 제사를 담당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경제적 기초가 마을 공동체 소유 하에 있었고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하게 마을 공동체 경영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에 기반 한다.

법적으로는 여성의 재산소유가 금지되어 있었고,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관직은 남성으로만 등용되고 여성은 공식적으로 관직에 오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귀족과 호족의 우지조직(氏組織) 내부에서 남녀는 거의 평등하고, 여성도 일족의 재산을 남성과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증식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세기 초반에 간행된 불교설화집 『日本靈異記』에 의하면, 율령 국가 체제 하의 호족층(豪族層)은 남편은 가장(家長)으로 아내를 가실(家室)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었고, 귀족층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경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굴된 고분 등에서 보면 고대에는 여성 수장(首長)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조정에서도 후궁(後宮)의 궁인(宮人)인 노관(女官)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 노관은 중책에 해당하

⁵⁵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이 지배하는 국가가 성립되고, 뒤이어 율령제도(律令制度)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유지된 4세기 초에서 12세기 말에 이르는 시대이다.

⁵⁶ 이때의 호주가 의미하는 것은 한덴(班田)과 납세에 책임을 갖는 사람으로만 의미를 갖는다.

는 일이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많은 귀족 여성이 후궁의 궁인으로 조정에서 일하고 역직에 올라 중요한 일을 하며 남편과 아버지와는 다른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서민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 소유의 재산은 없으나 여성도 일정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전 수수법(班田收授法)에서는 남녀 모두 일정 면적의 땅이 국가에서 주어지고 죽으면 돌려주게 되어있었다. 남녀가 각각 공동체 성원으로 경지를 분배받고 마을 공동체 성원과 친족들의 공동노동으로 경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는 성경험을 갖지 않은 여성을 의미하는 ‘처녀’라는 말은 없었고, 처녀에 해당하는 ‘오토메’라는 말은 단지 젊은 여성을 뜻하는 말로 국한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니 여성의 경제적 성적 독립성은 역사가 시작한 이래 상당히 오래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여성의 생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나, 고고학의 성과와 여성사연구 진전에 의해 여성의 생활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미발달 상태에 있던 8세기 이전의 중요한 재산은 벼(稻), 직물(布). 말과 소, 노비 등이었는데, 여성은 이러한 중요한 재산을 생산하는 농업, 어업, 상업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노동에 종사하고 이었다. 특히, 토기생산, 섬유제품 생산은 관에 소속된 공방에서 생산되는 일부 고급품을 제외하고는 줄곧 여성들이 맡아 수행한 일이었다. 일상의 소규모 생산은 여성 자신의 계획, 분배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국가에 공급하는 조용포(調庸布) 생산 등은 수장의 통솔 항에 집단적으로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조용이 부과되는 것은 남성만이지만, 실제로 직물을 짠 것은 여자였다.⁵⁷ 또한 술 만들기는 신을 제사하는 일에 관련한 여성(토지 刀自)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며, 여성은 단순한 제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경영자였으며, 남편과 아버지 밑에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상인으로 활약하고 있었다.⁵⁸

하지만 7세기 후반부터 사회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변

⁵⁷ 義江明子, “古代の村の生活と女性,” 女性史総合研究會, 『日本女性生活史』(東京大學出版會, 1990), pp. 144-145.

⁵⁸ 위의 글. p. 147.

화해 간다. 조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인사유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지배자는 공동체 성원이 조세로써 공납하는 쌀, 옷감 등을 지위, 직무에 따라 급여로 받고 있었는데, 약 8세기 후반부터는 호족층이 이스이코(私出舉)⁵⁹를 실시하며 공동체의 분해가 시작된 것이다. 8세기 전체를 통하여 귀족층에서만 발견되던 재산의 사적소유의 움직임이 서민상층부에서도 확실히 발견된다고 한다. 사유재산의 확산 움직임 속에서 공적지위가 그동안 법적으로 남성에게만 보장되고 있었던 사회구조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실제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경작하던 토지는 남성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서민층에서도 여성이 직조한 직물이 남성의 이름으로 공납되며 조세도 남성이 공적 책임자가 되었다. 또한 9세기 후반에 이르면 후궁의 궁인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귀족여성은 경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점점 더 남성으로 공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과 가실이란 평등한 이원적 체제가 재산의 사유화가 서민층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지위의 체제가 공식적/비공식적, 대표적/보조적인 것으로 차별화된 이원적 체제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 이원적 체제는 성(性)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요시에 아키코는 이로써 노동의 결과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하느냐가 중요해졌고, 이것이 가족 내에 지배관계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소유의 우선권에서 배제된 노인, 여성, 어린이가 점점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 ‘이에 경영체’에 소속되기를 바라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의 성립이 모든 계층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의 성립 시기는 계층에 따라 다른데, 귀족층에서는 대략 10세기부터 성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이카(在家)’라고 하는 ‘이에’의 단위가 과세의 단위가 되는 11세기 후반에는 농민층에서도 미숙하지만

⁵⁹ 곡식이나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영리사업, 하지만 원래는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을 창고에 보관된 벼를 필요할 때 배분하던 제도였는데 8-9세기부터 국가의 조세수탈과 부유층의 사유재산 축적수단이 되었다.

‘이에’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12세기에 이르면 어느 계층에서나 집이 성립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귀족층에서부터 이혼 건수가 줄어들며 단혼이 확립되어 간다.⁶⁰

헤이안시대의 기록문서인 『平安遺文』에 의하면 상속권에 있어서도 10세기까지는 전 계층에서 남녀평등상속의 실태가 잘 나타나는데, 11세기가 되면 귀족과 호족층에서 상속이 남성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12세기에 이르면 귀족층에서는 여자에게는 재산을 상속한 경우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⁶¹ 또한 토지매매 통계를 봐도 토지 매입자가 9세기까지는 남녀 모두 반반이었던 것에 비해 10세기 이후가 되면 여성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⁶² 이것은 귀족여성이 9세기 이후부터 조정의 공직에서 배제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북조시대 이후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돈’으로 ‘성’을 사는 매매춘이 등장하는 한편,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의 정조관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⁶³ 사유재산의 확산과 정착, ‘집’ 경영체제의 정비, 남성 가부장권의 강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와 성이 종속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 8세기에서 10세기에 거쳐 점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에 있어서도 초기의 자연적 성별분업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⁶⁴, 공납대장(木間荷札)에 남성의 이름만이 명기되면서 여성은 이전과 같이 노동을 변함없이 수행하면서도 노동의 성과는 협동작업 방식이든, 가내작업 방식이든 법적으로는 공납 책임자인 남성이 대표하는 경영체 하에 종속되어 가는 것이다.

⁶⁰ 服藤早苗, “平安後期の家の成立と結婚・性愛,” 総合女性史研究會, 『日本女性の歴史: 性・愛・家族』(角川書店, 1992), p. 65.

⁶¹ 14세기에 이르면 적자 이외는 여자는 물론 남자도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고 이전보다 가부장권은 더욱 강화된다.

⁶² 服藤早苗, “平安後期の家の成立と結婚・性愛,” p. 74.

⁶³ 위의 글. p. 66.

⁶⁴ 예를 들면, 예로부터 벼 베기는 남성의 노동, 벼를 찧는 일은 여성의 노동이었다.

(2) 중세 및 근세사회

12세기 카마쿠라 막부체제 하에서 무사계급의 남성은 전쟁에 참여하는 일과 장원을 통치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반면 전쟁에 참여하는 일도 할 수 없었고, 막부의 역직(役職)이나 나누시(名主)의 지위에도 오를 수 없었던 여성들은 점점 더 ‘집 안의 여성’이 되어 간다. 13세기의 설화집 『沙石集』에 의하면, 한 무사가 여성과 결혼할 때 “당신이 나의 가산을 관리 해주었으면 하오”⁶⁵라고 했다고 한다. 전쟁을 하고 장원을 관리하던 무사의 역할과 달리 여성은 ‘집’에 머물며 아이를 낳고, 가산을 관리하고, 하인들을 통솔하며 제사(製絲), 염직(染織), 의복 바느질일을 하며 직물생산의 책임자가 된다. 수확물을 팔고 필요한 물자를 사들이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인들을 교육시키며 여성의 노동은 생산의 영역에서 재생산의 영역으로 변화한다.

반면 농민층 여성의 노동은 재생산 영역뿐 아니라 생산의 영역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음식을 배분하고 양육하는 일 뿐 아니라 모심기, 풀베기, 양잠, 벼 베기, 탈곡 등의 농업활동까지 하였다. 중세의 모습을 담은 에마키(繪卷)에는 서민들의 일상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돌보며 생선을 굽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아내는 발가벗은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는 모습뿐 아니라, 모심기, 벼 베기, 채소 재배, 양잠을 하고 실을 뽑고, 직물을 짜는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고된 육체적 노동이지만 특히 모시에서 실을 만들어 베를 짜는 일은 장시간을 요하는 중노동이었다. 서민층 여성의 고된 노동을 말하여 주듯 『沙石集』에는 아내가 하인도 없이 혼자 물동이를 이고 일을 하도 해서 머리가 다 빠져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⁶⁶ 에마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서민층에서는 귀족층과 달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곡물

⁶⁵ 西村汎子, “中世の「遊女」,” 總合女性史研究會, 『日本女性の歴史: 性・愛・家族』(角川書店, 1992), p. 88.

⁶⁶ 위의 글. p. 89.

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경영의 주도권을 잡고 영주로부터 경영의 책임자로 인정되는 것은 남자 쪽이었으므로 서민층에서도 공식적인 가장권은 남성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가 성립하고 남편은 가장으로써 집을 대표하며 사회적인 공적지위를 갖고 재산의 소유자가 되어 가며, 중세시대 여성은 계층에 따라 일의 강도는 달랐겠지만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적 노동의 중심이었다. ‘이에’의 경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실제적인 노동의 중심이 된 여성의 위치가 오히려 여성에게 ‘이에’ 안에서 힘을 주는 여지를 남겨 이것이 ‘주부권’이란 것을 탄생시키게 되는 배경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부권이 가장권과 동등한 선상에서 사회적·공식적으로 대등한 것은 아니었다⁶⁷는 것이다.

근세에 들어서도 여전히 공식적인 정치적·경제적 제도는 성에 의한 분업체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여성은 공적 지위에 오를 수 없었고, 연공부담이나 부역대장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서민층에서는 ‘이에’를 대표하는 가장이 없을 경우 여성이 가장으로 등록되는 예도 있었다. 가독(家督)과 가산의 상속도 장자 단독상속이 보편적이었다. 18세기 후반 상품경제가 더욱 발달하며 사회는 보다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며, 도시에서는 종사할 수 있는 직종도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직물은 이제 일상의 필수품이나 막부에 바치는 공납품으로서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현금 상품이 되어갔다. 당시 농촌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노동은 나가노 히로코(長野ひろ子: 2003)의 『日本 近世 ジェンダー論(일본 근세 젠더론)』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분석이 되어 있다.

‘베 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오지야(小千谷)⁶⁸란 곳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에치고구니(越後國)의 카타가이무라(片貝村)에 살고 있는 호농(豪農)인 키에몬(喜右衛門)이 文化 6년(1809)에 저술한 『야세카마도(やせ

⁶⁷ 服藤早苗, “平安後期の家の成立と結婚・性愛,” p. 77.

⁶⁸ 현재 니가타현(新潟縣)은 오지야치지미(小千谷縮), 에치고쥬후(越後國上布)를 지역 특산물로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에치고 쥬후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かまど)』를 보면 원래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었는데, 키에몬 집안에서는 이력저력 20여 년 전부터 모내기를 남자만 하고 있다고 한다. 여자들은 시장에 내어져 한 필에 평균 금 두 돈 정도에 중매인에게 팔리고 있던 치지미 짜기에 온 정성을 쏟고 농사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농서인 『粒ノ辛苦録』은 에치고구니에 인접한 나가오카한(長岡藩) 지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농서이다. 저자는 나가오카한의 가신(家臣)인데, 이것을 쓴 목적은 ‘농민의 고통을 알리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훈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책에서도 역시 치지미 짜기에 바쁜 모습이 나오고 있다. 농가에서 봄철 농한기에는 농사철을 대비하여 일 년 중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여자들은 틈틈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하고 농사지를 때, 몸에 착용하는 카쿠한(脚半)·코테(小手) 등을 준비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2월까지 지속되는데, ‘여자도 모시를 짓고, 실을 뽑다가 두 번째 닭이 울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날이 밝으면 아침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다. 3월에 들어 ‘모심기 전에 남녀노소 모두 그 준비로 바쁘고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된다. 4월 모심기 때는 ‘여자는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모심기하러’ 나가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치지미 짜기에 정신이 없었으므로 모심기는 남성만이 하는 집도 많았다고 한다. 5월부터는 남녀 모두 날씨가 좋으면 밭 일 등을 하고 날씨가 나쁘면 논을 풀을 뽑는데’ 온 정성을 들인다. ‘남녀 모두 별을 보고 나가서는 별을 보고 들어오는 바쁜 생활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특히 논밭 일에 하루 세 번 식사 준비까지 더욱 바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6월도 ‘남녀 모두 주야를 불문하고 농사일에 빠가 빠진다’고 쓰여 있다. 또 6월 토용(土用)⁶⁹ 동안, 여성들은 모시를 베어 와서 다듬기를 한다. 7월 오봉(お盆) 때는 농민들도 한 시름 쉰다. 8월에는 ‘만물이 익어 가는’ 시절이고, 콩, 밤, 마 등의 작물을 수확하고, 벼 베기도 빠르면 8월 중에 늦어도 9월에 들면 시작한다. 9월 하순에는 연공을 바치는 쌀을 상납해야 한다. 또 ‘이 때 여자는 조

⁶⁹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전 각각 18일

스이(雜水: 채소와 된장을 넣어 끓인 죽)를 만들기 위해 채소 등을 다듬어 썰고, 데치고, 팔이나 보리 등을 절구에 넣고 찐다' 그리고 '틈틈이 바느질 등을 한다.' 10월부터 겨울 동안 여자들은 '베 짜기, 이불 빨기, 봄부터 입었던 옷들을 꿰매는데 전념 한다'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일본 근세 농촌의 '이에' 경영체에서의 노동 역시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생산 노동은 농사를 짓는 일과 직물을 짜는 일이고, 재생산 노동은 세대적 재생산(자녀 양육과 교육)과 일상적 재생산(가사 노동)으로 나누어진다. 상기의 두 저서에는, 『야세카마도』에 저자인 키에몬이 35-40명의 남자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만 나올 뿐이고, 출산, 육아의 실제 노동에 대한 기록은 없다. 또한 일상적 재생산 노동에 대해서도 『야세카마도』의 2월 된장 담그기나 9월의 죠스이 담그기 등을 제외하면 거의 재생산 노동에 관한 기록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산노동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농사짓기에 대해서는 두 책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의복 생산 노동은 의복류가 상품화됨에 따라 기록이 증가해 가는 경향이 보인다⁷⁰고 한다. 이 점에 대해 이 점에 대해 나가노 히로코는 이미 생산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상실한 재생산 노동은 '기록할 가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근세 후기 농촌의 '이에' 경영체에서의 노동 분업 유형들을 표를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⁷¹

⁷⁰ 長野 ひろ子, 『日本 近世 ジェンダー論』(吉川弘文館, 2003), p. 64.

⁷¹ 위의 책. pp. 73-75.

<표 III-1> 소농 경영체 ‘이에’

		공적 경영 (집)	소유주 체	경영주 체	가업 비가업						
					생산노동			재생산 노동			
					농업		농한기 부업 (방직)	세대간		일상적	
					a	b		a (교육)	b (양육)	a	b
남성	남편	○	○	○	○	○		○		○	△
여성	아내				○	○		○			○

※ a는 관리적 노동, b는 실제 노동

○은 완전 종사, △은 전적인 종사는 아니지만 관여하는 경우

<표 III-1>는 소농경영, 특히 여성들이 활발하게 농한기에 의복 생산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의 노동 분업이다. 여기서 보면, 남성은 모임에 출석하는 일 등 ‘이에’ 경영체에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소유 주체이며 경영 주체였다. 그의 노동을 보면, 실제 노동으로서는 생산노동 특히 가업인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이 아니라 관리 노동으로서는 생산 노동(농업)에 한정되지 않고 재생산 노동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처는 실제 노동으로서는 생산 노동으로서의 농사짓기(가업) 의복생산(농한기 부업) 및 재생산 노동과 모든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의 관리 노동은 일상적 재생산 노동 가운데 가족 의복을 준비하는 일 등 이었다. 남성은 가업인 농업에 있어서 농사를 짓고 관리 노동을 주로 하는 반면, 여성은 생산 노동이든 재생산 노동이든 가업이든 부업이든 모든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 호농 경영체 ‘이에’

		공적 영역		소유주체	경영주체	가업 비가업												
		마을	집			質地 金融	생산노동						재생산노동					
							양조업		농업		製茶		양잠		세대간		일상적	
							a	b	a	b	a	b	a	b	a	b	a	b
남성	남편	○	○	○	○	○	○		○						○		○	
	아들	△	△			△		○	○		○		○					
	장기 고용인							○	○			△						△
	일일 고용인								○	△		△						
여성	아내		△			△				○	○	○	○	○	△	○	△	
	딸										○		○					△
	장기 고용인										○		○		○			○
	일일 고용인								△	○		○						

<표 III-2>는 호농 경영체 ‘이에’에서의 노동 분업을 나타낸다. 여기서 마을의 나누시(名主)로서의 공적 역할도 갖는 남편은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일은 거의 없고 관리 노동만을 하고 있다. 다망한 남편 대신 가업에서의 실제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성인이 된 장남이다. 이 때 장남은 농업, 간장주조, 금융, 제차(製茶), 양잠 등, 직조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업과 생업 관련 노동을 하고 더구나 마을의 나누시로서의 아버지를 보좌하여 마을의 공적 영역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을 보면, 아내는 친척과의 교류 등은 남편과 일을 분담하고 있지만, 가업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생산노동 중에도 양잠과 찻잎 따기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재생산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딸들의 경우 양잠과 찻잎 따기와 같은 계절적 노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일상적 재생산 노동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보조하며 장남의 노동 분담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농 경영의 경우 가족 노동력에 고용 노동력이 더해지는 것이 통례였다. 고용 노동력 가운데 장기 고용인을 보면, 남성고용인은 가업 중심으로 생산노동의 대부분의 실제 노동에 종사하

고 있고, 여성 고용인은 실제 노동으로서의 재생산 노동에 거의 시간을 쓰며 또한 양잠과 찾잎 따기와 같은 계절적 노동에도 참가하고 있다.

<표 III-3> 남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

		공적영역		소유주체	경영주체	가업 비가업									
						생산노동				재생산노동					
		마을	집	산림업	농업		양잠·실뽑기		세대간		일상적				
					a	b	a	b	a	b	a	b			
남성	남편	○	○	○	○	○	○	○	○	△		○		○	△
	남동생		△				○		○						△
여성	아내											○		○	
	어머니		△							○	○	○	△	○	△

<표 III-3>는 소농모델도 호농모델도 아닌 변칙적인 그러나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젊은 가구주와 그의 어머니, 처, 남동생으로 구성된 ‘이에’ 경영체에서의 노동 분업이다. 우선 ‘이에’의 주인으로서의 남편이 분담한 노동은 공적 역할, 소유주체, 경영주체로서 앞의 소농이나 호농의 경우와 같다. 생산노동 가운데, 가업인 산림과 농업에는 관리 노동, 실제 노동 모두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의복생산에도 정보수집 쪽에서 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에’ 경영체 안의 마이너리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남동생은 관리노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산림업과 농업에서의 실제 노동이 집중적으로 분재되어 있다. 남편의 어머니는 때마침 생사업의 호황(이토봄 糸ブム)으로 의복생산 및 그 판매 일의 중심인물이었다. 친척과 이웃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가업인 산림업에도 간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노동 시간 분배에서 생각하면 재생산 노동에 관해서는 관리적 측면에 머물고 있었다. 아내는 생산노동에 있어서는 양잠과 실뽑기, 그리고 재생산에 관여한 실제 노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더욱이 이 집의 여성 가족 두 명은 농업 노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먼저 근세농촌의 ‘이에’ 경영체에서의 노동 분업에는 계층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력을 포함하는 호농 경영에서 남편은 관리노동에 집중한다. 호농 경영의 아내의 경우는 소농경영의 아내와 비교하여 재생산 노동의 관리적 측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업에의 관여란 점에서는 소농경영의 아내와 호농경영의 아내와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전자는 실제노동의 중요한 담당으로서 위치 지워져 있는데 반해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의복생산이 상품경제의 중심이 되며 가계 수지에 접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고 해서 여성들의 ‘이에’ 경영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⁷² 농한기 부업으로든 가업으로든 직조 노동 및 의복생산에 있어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중심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사총합연구회(女性史總合研究會)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한 일본여성사 통사인 『일본여성의 역사』(1992)에서도 마의 껌데기를 벗기고 바람에 말려 건조시키고 푸른 모시실(靑苧)로 만드는 단기 집중 작업이나, 아야(綾), 니시키(錦), 니시진(西陳) 등의 고급 견직물을 짜는 사람은 주로 하급 관리(役人)인 남성들의 일이었지만, 서일본에서는 양잠, 제사(製絲), 베틀 일(주로 견직물), 동일본에서는 모시 잣기(苧績), 베틀 일(주로 마직물)을 중심으로 각각 염색도 포함하여 거의 여성이 중심이 되어 하던 일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 근대사회

근대에는 의복생산 특히 제사업, 방적업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중심이 되고, 양잠이나 직물업도 함께 발전해 간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중심이 된 나가슈한(長州藩)의 사무라이 5명은 ‘살아있는 기계’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글을 남기고 영국으로 떠난 뒤 이후 메이지 정부의 관료가 되어 돌아와 ‘동양의 영국’을 꿈꾸며 공업화를 위한 중앙기구로써 공부성(工部省)을 설

⁷² 長野 ひろ子, 위의 책. p. 78.

치하고 공업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寮(工學寮: 工部大學校)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염원대로 살아 있는 기계로써 전시이든 평시이든 일본 국가를 서구와 같은 근대화대열에 올려놓기 위한 공업사관 교육과 양성에 힘쓴다. 이 때 선진화된 공업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물론 남성이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산업혁명은 목면 방적공업이 선두를 이루었다. 그리고 방적공업의 전문기술자들의 대부분은 공부대학 출신으로 주로 영국으로 파견되어 방적기계 및 면사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일본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 갔다.⁷³

이러한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농촌의 삶의 모습도 서서히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근세의 농촌에서의 노동과 노동의 분업에서 상세히 살펴보면 농가의 노동과 생애주기는 농사를 짓는 일(생산)과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일(재생산)으로 분리되어 각각 계층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의해 그리고 호농층에서는 고용인들에 의해 분담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에도 서서히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오며 농업기반이 취약해지고 현금화가 빠른 노동으로 아내나 며느리가 이웃 마을에 임금을 받는 일을 나가거나 딸이 큰 도시 공장의 여공이 되어 돈을 벌러 나가기 시작하였다. 1880년(明治 13)에 태어난 아마카와 히토시(山川均)는 자신의 자전소설에서 소학교 시절의 모습은 회상하고 있는 데 그 가운데 “에로부터 내가 태어나 곳은 면을 재배하던 지역이었고 대개 수직기(手織機)로 면을 짰다. 그런데 ‘물레가 기계화되자 농민 가정에서 면화 재배는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내가 소학교를 마칠 무렵인 1900년대 경에는 면화재배 풍경은 거의 볼 수 없었고 대신 농가에는 염색된 실을 사서 포목점에서 팔고 있던 것에 뒤지지 않는 모양의 면직물을 짰다”고 나와 있다.⁷⁴

또한 동북지역 출신의 한 소작농민의 아들이었던 타니쿠치 젠타로(谷口善太郎)는 『綿』이라고 하는 글에서 1880년(明治 20) 전후를 회상하며 “하

⁷³ 三好信浩, 『日本の女性と産業教育: 近代産業社會における女性の役割(일본의 여성과 산업교육: 근대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東信堂, 2000), p. 18.

⁷⁴ 永原和子, “民俗の轉換と女性の役割,” 『女性史總合研究會, 『日本女性生活史』(東京大學出版會, 1990), p. 62.

안 면화가 날리는 목화밭에 마디마디가 검게 굵어진 손으로 면화를 따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밤에는 직조기 앞에 앉아 정성껏 옷감을 짜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저자의 기억으로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면의 재배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마을에는 도자기 공장과 제사공장이 세워지고 많은 남녀가 그곳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에는 포목점, 잡화점, 과자점 등이 등장하였고, “물레나 수직기 대신 양잠을 하는 곳이 집 안에 만들어지고 목화밭은 뽕밭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러일전쟁 직후였고, 이 시기를 경계로 사람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임금을 위해 공장에서 과로에 시달렸고 누나는 이웃 마을 제사공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시기(1890년-1900년)는 일본에서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화폐경제가 확산된 시기였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의 변화는 농촌의 생활과 의식주를 바꾸어놓았다. 위의 谷口가 밝히고 있듯이 농가의 삶은 바뀌어 부업으로 하고 있던 이전의 면직작업은 양잠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양잠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이를 주는 번거로운 일이었으며 한창 바쁠 때는 가족 모두가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바쁜 일이었으므로 노동의 기계화가 농촌의 여성의 일을 줄여준 것은 전혀 없었다. 또한 근대화와 함께 생활의 많은 부분이 화폐에 의한 구입품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한 마을의 경우는 생계의 자급자족 부분이 46%이고 나머지 50% 이상이 화폐에 의한 구입품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고 있다.⁷⁵ 가정 소비의 55%를 점하고 있던 식품 부분에서도 생선, 고기, 우유, 과자, 담배, 술, 사탕 등은 구입 품목이었다. 하지만 아직 곡물, 야채, 과일, 된장, 간장, 계란 등은 자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성의 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식생활과 함께 의생활에 있어서도 마츠리나 정월, 혼례의상, 또는 외출이 많은 남성복에서부터 상품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일상복이나 노동복은

⁷⁵ 위의 글, p. 65.

완전히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이것 역시 전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한 노동이었다. 따라서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 그리고 소비생활과 상품경제의 확산이 농촌 여성의 가사노동을 줄여준 측면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한 여성은 줄어들지 않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이제는 양잠일로 바뀐 부업을 가정에서 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현금을 벌기 위해 도시의 섬유공장의 여공으로 떠난다.

그런데 여공이 된 여성들은 장시간의 중노동만이 아니라 공장으로부터의 심한 학대라고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1930년(明治 36)에 발행된 『平民新聞』신문에는 “심하게 때린 후 발가벗겨 밖에 세워 두었다”, 또는 “심하게 학대 받은 후 여공 철도에 뛰어들어 자살”과 같은 기사 등이 발견되며, 이와 같은 여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1924년(大正 13) 동경시 사회국은 ‘직업 부인에 관한 조사’를 간행하여 동경 시내 317개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여공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이르렀다. 특히 그 이듬해인 1925년(大正 14)에는 여공문제의 상징이 된 『女工哀史』가 간행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호소이 와키쥬(細井和喜藏)는 그 자신이 공장 노동자였고 아내도 방적공장 여공이었는데, 서문에는 “맞고 멸시당하면서도 매일 사랑의 옷을 만들어 인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일본의 3백만 여공의 생활기록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⁷⁶

1872년(明治 5) 군마현에 처음으로 제사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외국인은 여공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아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10년 후인 1882년(明治 15)에 오사카에 방적회사가 설립되고 많은 여성들이 여공으로 취업하여 일하며 일본의 근대 섬유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해간다. 당시를 회고하는 글 중에는 “일본이 랑카스타 방적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방적업이 혼면기술(混綿技術)로써 세계 제일이고,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기계를 두 배로 돌려 조업능력이 두 배였던 점, 또 과도하게 돌려 고장 난 기계를 신속하게 교체했던 점과 임금이 저렴하

⁷⁶ 三好信浩, 『日本の女性と産業教育: 近代産業社會における女性の役割』, p. 23.

있던 점 등이다”라고 기록되고 있다.⁷⁷ 오사카 방직회사는 야간작업을 위해 신식 전등까지 달았으며 이후 증자를 거듭하며 공장 규모를 확대하여 1889년(明治 22)에는 방추의 수가 육만 이천 추에 달했는데 이에 자극 받아 오사카 중심부에는 일만 추 이상의 방직공장이 속속 세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 산업의 눈부신 발달이란 화려함 뒤에는 앞서 서술한 여공의 고된 노동이 전제되어 있다. 1920년(明治 35)의 『工場通覽』을 보면 제사업에 종사하는 여공이 118,872명으로 전체 직공의 94%, 방직업에서의 여공은 62,607명으로 전체 직공의 7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산업 노동의 중심이자 주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장 뿐 아니라 각종 형태로 직물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전기는 여성의 삶에서 밤과 낮의 경계를 빼앗아 갔지만, 이후 여러 번 시도된 기업법 개정에서도 기업주들이 끝까지 저항한 것이 이 야간작업 폐지 조항이었다고 한다.⁷⁸

섬유공장에서의 여공의 고된 삶이 계속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부모도 딸들도 섬유공장 취업 기피현상이 생기며 여공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기업주들은 부족한 여공수를 메우기 위해 오키나와섬이나 조선반도에서 여공들을 모집해왔다. 이러한 모집은 1920-1930년대에 피크를 이루었다고 한다. 타이쇼(大正) 중기부터 오사카의 키시와다시(岸和田市)를 비롯하여 각지 방직공장에서 다수의 조선인 여공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한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김찬정 『朝鮮人 女工のうた(조선인 여공의 노래)』, 후에 히라츠카 라이쵸는 1919년(大正 8) 발표한 『名古屋地方の女工生活 (나고야지역의 여공생활)』에서 아이치현(愛知縣) 내에 65명의 조선인 여공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⁷⁹

근대화가 진행되고 직물업이 산업화 되면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있었던

⁷⁷ 위의 책, p. 20.

⁷⁸ 위의 책, p. 22.

⁷⁹ 위의 책, p. 24.

근세의 분업은 그 세부적 사항에 있어서는 달라졌으나, ‘성’에 기초한 분업이란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즉, 기계관련 산업부문에서 남성들은 주로 면화를 터는 작업이나 염색 일을 하였으며, 여성들은 제직(製織)부문의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에 기초한 이 분업은 노동의 구조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고 다른 의미를 생산하며, 남성과 여성의 노동에 있어서 차별화된 구조를 생산해내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토죠 유키히코(東條由紀彦)는 근대적 노사관계가 성립하기 전인 1888-1908(明治20년-30년)의 노동력을 고찰하고 이것을 동직 집단형(同職集團型), 생계 보조형(生計補助型), 궁민형(窮民型)으로 분류⁸⁰하였는데, 이 분류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우선, 사회적·동직집단이란 오야카타(장인: 도제작업에서 스승)와의 인격적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집단이다. 이 시기 일본에는 영국의 크레프트 유니온과 같은 것이 명확하게 제도화된 직업규제는 없었다. 단 남성이 종사하는 선반이나 조선직과 같은 중공업부문의 노동력과 목공 등에는 동직집단으로서의 전통적 규제가 존재하고 숙련기술은 이 집단내부에서 재생산되었다. 이 집단에는 도제, 직인(職人), 장인과 같은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고 ‘직인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다.⁸¹ 섬유공업 가운데 남성의 일이었던 면화 털기, 염직 일은 이 동직 집단형에 속한다. 즉, 도제수업을 끝낸 남성들이 ‘직인’으로 한 사람의 독립적 인간이 되어 자신의 기술로 생활해 나간다. 그들 가운데는 가업을 잇기도 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소경영의 장인이 되는 자도 있기도 하고 그냥 직인으로 생애를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직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규범 속에서 행동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기 일은 생계 보조형에 속한다. 기계를 임대하여 손수 직기를 돌리며 여성들이 생산해낸 직물은 그 모양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생산되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하고 질 높은 것이었다. 앞서 아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여성들이

⁸⁰ 東條由紀彦, 『製絲同盟と女工登録制度』(東京大學校出版會, 1990), pp 417-452.

⁸¹ 위의 책. pp. 424-427.

포목점에 뒤지지 않는 옷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증언에도 잘 나타나고 있던 바와 같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은 생계 보조형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직조일 역시 똑 같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계 보조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숙련’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었다. 히메오카 토시코는 이에 대해 노동의 가치와 성격을 정하는 것은 어떤 직종이냐가 아니라 누가 담당하느냐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직 일은 여성이 하고 있으므로 동직집단형 노동이 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² 여성의 경우도 기계를 빌려 제직 일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은 봉공기간을 보내고 기술을 익힌 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제수업에 들어가는 남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히메오카 토시코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노동의 성격과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남성은 기술을 숙련하고 직인으로 또 장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성은 기술을 숙련하고 돌아와 ‘이에’의 상황에 따라 기계 일을 하고 또 ‘이에’의 생계를 위해 노동한다. 이러한 여성이 수행하는 직기노동은 기업에 종속된 부업이란 의미가 부여되고 직인의 세계로부터 애초에 배제되어 있었고, 여성이 인정받는 것은 단지 주변으로부터의 칭찬뿐이었다.⁸³

3. 중국

일반적으로 중국은 세계 4대 문명권의 하나가 위치한 곳으로 알려졌다. 중원(中原)으로 일컬어지는 황하 상류 지역은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고대문명이 시작된 곳이다. 고대문명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겠지만, 국가의 형성을 통한 권력의 정치적 조정역할 증대와 경제적 분업을 통한 전문화가 핵심에 놓인다. 특히 기술의 전문화는 문화유산을 생산하는 특수

⁸² 姫岡とし子, 『ジェンダー化する社会』(岩波書店, 2004), p. 92.

⁸³ 위의 책. p. 92.

집단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러나 발명과 발견의 시대에 대한 고대인의 기억은 대부분 신화와 전설을 통해서 후대로 전승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물질문화유산, 그 가운데에서도 직조유산의 생산자로서 여성은 신화와 전설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그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전설의 직녀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전설은 기원전 8~7세기경에 나온 책인 『시경(詩經)』에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우녀고사(牛女故事)’라고 부른다. 우녀고사(牛女故事)의 주인공은 견우와 직녀다. 견우와 직녀는 본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별자리의 이름이었다. 즉 견우성과 직녀성을 가리킨다. 여름날 밤하늘을 쳐다보면 뭇별들로 이루어진 빛의 띠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문학에서 말하는 은하계(銀河系)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을 천하(天河)라고 불렀다. 천하의 서쪽에 위치한 별 중에서 푸른빛을 뿜는 밝은 별이 직녀성(織女星)이다. 그리고 천하를 사이에 두고 직녀성과 멀리 마주하고 있는 곳에 등황색 빛을 뿜는 별이 견우성(牽牛星)이다. 직녀성 옆에는 네 개의 작은 별들이 평행사변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베틀의 북을 상징한다. 그리고 견우성과 그 옆에 있는 작은 두 별은 견우의 뿔대 혹은 견우가 뿔대로 두 아이를 맨 것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한 여름 밤하늘의 별들이 견우와 직녀 전설을 만들어낸 자연환경적인 요소이다. 한나라 때 이르러 직녀와 견우는 인격적인 존재로 변하면서 전설로 꾸며진다. 결국 남북조시기에 이르러 견우와 직녀 전설은 일정한 틀을 지니기 시작했다. 그 후 민간에서 여러 차례 변용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전해지는 전설로 자리를 잡았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우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형님과 형수 밑에서 자랐는데 늘 그들의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항상 늙은 소 한 마리가 따라 다니면서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이 소는 견우에게 직녀를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계책을 알려 주었다. 늙은 소가 일러준 날이 되자, 과연 아름다운 선녀들이 은하에 내려와 목욕을 하면서 물장난을 하였다. 이때 갈대숲에 숨어있던 견우는 갑자기 뛰어나와 직녀의 옷을 가져가 버렸다. 이것을 보고 놀란 선

녀들은 황급히 강 언덕에 올라와 옷을 입고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옷이 없어진 직녀만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결국 견우는 직녀에게 청혼을 했고, 그들은 혼인을 하였다. 혼인 후 견우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직녀는 천을 짜면서 살았다. 그들 사이에서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다. 늙은 소는 죽으면서 견우에게 자기 껍질을 벗겨 두었다가 급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 쓰라고 하였다.

그런데 직녀가 지상에서 견우와 혼인한 사실이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와 서왕모에게 알려졌다. 크게 화가 난 그들은 천신(天神)에게 아래로 내려가 직녀를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천신은 견우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직녀를 붙잡아 갔다. 집에 돌아온 견우는 직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소 가죽을 걸치고 두 아이를 등에 메고 직녀를 찾아갔다. 그들이 직녀를 거의 다 따라잡을 때 서왕모는 자신의 금비녀를 뽑아 은하에 대고 선을 그었다. 이때 평소에는 맑고 얇던 은하가 순식간 파도가 치는 큰 강으로 변해버렸다. 그리하여 견우는 더 이상 직녀를 쫓아갈 수 없었다. 이 때부터 견우와 직녀는 은하를 사이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된 옥황상제와 서왕모는 매년 음력 7월 7일이 돌아오면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다. 매년 음력 7월 7일이 되면 인간 세상에 있는 까치들이 모두 은하로 날아올라가 견우와 직녀의 상봉을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⁸⁴

중국인들은 이 전설을 근거로 하여 매년 음력 7월 7일을 칠석절(七夕節)이라 하여 명절로 지내온다. 특히 부인들은 칠석절에 ‘걸교(치치아오, 乞巧)라 하여 직녀성을 향해서 바느질을 잘하게 해 달라고 제사를 드렸다. 사실 치치아오 풍속은 한나라 때 이미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지만,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때는 유교를 중요한 윤리덕목으로 내세운 송나라의 태종(太宗) 때에 들어와서다. 칠석절에 행하는 치치아오 풍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⁵

⁸⁴ 喬繼堂, 『中國歲時禮俗』(天津:天津人民出版社, 1991), pp. 202-204.

⁸⁵ 위의 책, pp. 204-209.

- 부침시교(浮針試巧) : 표침시교(漂針試巧), 주교침(丟巧針), 투화침(投花針)이라고도 부른다. 용기 안에 물을 가득 담은 후 그것을 며칠 간 밖에 둔다. 그러면 물 위에 막이 생긴다. 이 막 위에 침이나 가는 풀을 놓으면 그것이 가라앉지 않고 뜬다. 이때 용기 밑에 생기는 문양을 살펴보고서, 지교(智巧)를 얻었는가 구분한다.
- 천침걸교(穿針乞巧) : 금침도인(金針度人)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제일 오래된 치치아오 방법이다. 칠석날 밤에 달 아래에서 바늘에 실을 꿴는 시험을 하는데, 가장 먼저 꿴 사람을 ‘득교(得巧)’라 하고, 그 다음을 ‘수교(輸巧)’라 한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시험에서 사용하는 바늘로 한나라 때는 칠공침(七孔針), 원나라 때는 구미침(九尾針) 등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 바늘은 일반 바늘보다 구멍이 몇 개 씩 더 많기 때문에 꿴매기가 매우 어렵은 것이다.
- 종생걸교(種生乞巧) : 칠석날 이전에 물이 들어 있는 그릇 안에 콩·밀과 같은 다섯 가지 곡물의 씨앗을 넣는다. 칠석날 밤에 직녀가 치치아오 하는 데 쓰도록 이들 다섯 가지 곡물 씨앗을 달을 향해 바친다.
- 주망걸교(蛛網乞巧) : 거미 한 마리를 잡아서 작은 곱 안에 넣고, 다음 날에 그것을 관찰한다. 거미줄이 많고 둥그라미가 중간에 있으면 득교(得巧)하였다고 판단을 하는 일종의 점복행위이다.

비록 지금은 중국대륙에서 이와 같은 칠석절 풍속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러한 전설과 풍속이 역사상 존재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물질문화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충분히 기념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견우는 농사를 짓는 일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녀는 바느질과 옷감 만드는 일을 잘 해야 하는 전통사회의 여성상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칠석절에 행하는 몇 가지 풍속은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바느질과 직조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었는지를 증명해준다.

가. 여성 직조생산의 역사적 전개

중국은 방직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직조기술이 발달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직조공예는 대부분 여성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졌다. 대체로 중국의 직조공예의 종류로는 비단직조공예, 마포직조공예, 모직공예, 면직공예 그리고 직물을 이용한 자수공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각각의 지역별로 시대별로 기술의 변천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다음에서는 고대 여성의 직조공예가 지닌 역사적 전개과정을 직조공예의 종류에 따라 살펴본다.⁸⁶

(1) 비단직조

중국은 비단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산서성 서양촌(西陽村)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양잠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심지어 상나라 때의 갑골문자에는 ‘蠶(누에)·桑(뽕나무)·絲(명주실)·帛(비단)’과 같은 문자가 나올 정도이다. 이로 인해 고대 중국을 부르는 명칭은 ‘Serica’라 했으며, 중국인을 ‘Sersser’라고 불러 오늘날 China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과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이어주는 실크로드를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이 고대 문명의 전파 및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물질문화였음을 증명한다.

고대부터 비단의 생산은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뽕나무의 잎을 따는 여성을 ‘채상녀(採桑女)’라고 불렀다. 산림에서 뽕나무를 채취하여 누에의 먹이로 만드는 일을 채상녀가 맡았다. 또 여성은 비단을 짜서 여기에 문양을 수놓는 일도 하였다. 『관자(管子)』에는 “상나라의 재상 이윤(伊尹)이 박지(薄之)의 유녀(游女)로 하여금 수를 놓게 하여 한 폭을 만든 후 이것을 하나라에서 보내 조 백종(百種)을 얻었다(伊尹以薄之游女工文綉, 纂組一純, 得粟百鍾于桀之國)”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여성에 의해서

⁸⁶ 본고를 작성하는 데는 吳淑生·田自秉, 『中國染織史』(上海人民出版社, 1986); 華梅, 『服飾與中國文化』(人民出版社, 2001)를 주로 참고하였다.

비단의 생산과 장식,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나라 시기 들어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했다. 『시경·위풍·십묘지간(詩經·魏風·十苗之間)』에는 밭에 온통 뽕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너비가 십묘(十畝)에 이른다는 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이미 주나라 시기에 비단 생산의 고대적 수공업 형태로 발전했으며, 특히 청주, 형주, 서주, 양주, 예주 등지가 주요 비단산지였다. 아울러 『주례·천관(周禮·天官)』에는 비단으로 지은 제복인 ‘위의(禕衣)’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 궁중의 모든 제례에서 제관들은 비단으로 만든 제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비단 생산기술은 각종 문양을 수놓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이미 상나라와 주나라 때의 것으로 알려진 비단 유물 중에서도 간단한 기하문양이 나타났지만,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오면 새·짐승·용·봉황·꽃무늬 등의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문양이 비단에 수가 놓인다.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에 들어오면 이른바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비단의 생산이 전문화되고 유통망도 중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세계 비단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논형(論衡)』에서는 “오늘날 산둥지방은 자수로 이름이 높아 그곳 여자들은 자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곳곳에서 비단을 직조하여 부인들 중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齊部世刺繡, 恒女無不能, 襄邑俗織錦, 鈍婦無不巧)”라고 했다.

한나라의 비단은 그 품질과 종류뿐만 아니라, 문양에서도 특징을 보였는데, 대체로 구름 모양이나 새, 문자, 기하학적 문양을 사용했다. 아울러 한나라 때의 비단 직조 기술은 오늘날 직조기술인 통경단위(通經斷緯)의 방법이 구사되었다. 즉 세로로 실을 잇고 그 사이에 가로로 실을 엮는 방식이다. 아울러 가금(加金)의 방식으로 색채를 내는 기술도 생겨났다. 동시에 누에 실을 더욱 탱탱하게 만들어 비단의 신축성을 높였다. 일반적으로 이 때의 비단을 한금(漢錦)이라 부른다. 이 때부터 비단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西域)에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비단이 금(金)값에 비견된다고 하여 비단의 ‘帛’이 ‘錦’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금은 평직(平織)의 변화조직인 경묘직(經畝織)의 일종이다. 여러 가지 색상으로 염색된 섬세하고 치밀한 경사(經絲)의 매 올마다 굵은 위사(緯絲)의 여러 올을 한꺼번에 교차시킴으로써 경사만이 천의 표면에 두둑처럼 나타나는 다채로운 무늬 효과를 냈다. 이와 같은 비단생산 기술의 발전은 후한시기에 들어가면서 방직생산력의 발전과 잉여 노동력의 증가로 인해 소농가정의 가내 방직경영이 좀더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갔다.⁸⁷

삼국시기에는 지금의 사천 성도가 비단의 유명 산지로 알려졌다. 이때 비단 기술이 오늘날의 귀주·운남의 소수민족에게 전파되었다. 남북조시기에 들어오면서 불교의 전파와 함께 중국 주변으로 비단기술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일본 『고사기(古事記)』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서 사신을 중국의 양자강 지역에 보내 비단기술을 배우려 했고, 결국 그 지역의 女工이 직접 일본에 가서 비단기술을 전수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이미 고대 동북아 방직기술이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고대 이후 비단 생산은 관영(官營)과 사영(私營)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당나라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고급견직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뽕나무 재배에서부터 직조에 이르기까지 방직에 관련된 모든 공정이 개별농가 내에서 ‘남경여직체제(男耕女織體制)’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체제는 당대까지 지속되었다.⁸⁸

당의 측천무후 시기에 왕실에는 비단 방직에 종사하는 직공이 365인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왕실과 관리들의 비단 옷 사치가 극에 달했다. 아울러 사영도 발달하여 당나라 전국에 걸쳐서 전문적인 비단 생산지역이 수십 곳에 달했다. 아울러 당대의 비단은 생활의 실용품 이외에 화폐로도 사용되었다. 즉 견백(絹帛)이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부세(賦稅)의 단위로 쓰였

⁸⁷ 박동현, “中國 古代 家內 紡織經營의 성장과 그 의의-漢代의 小農家庭을 중심으로,” <<http://web.kyunghee.ac.kr/~lejpdh/pds/introduction/gnbjsil.hwp>>. 연대미상.

⁸⁸ 위의 글.

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폐 대응으로 비단이 사용되었다.

오 대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는 시기에 비단의 생산과 유통은 확대되었다. 특히 송나라 왕실에서 각종 비단 제품을 고급관리에게 내리는 상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단은 필수적인 공물(貢物)이었다. 또한 송나라는 북방의 금나라 및 서하와 지속적인 외교군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제적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다량을 비단을 제공하였다. 송나라 때 대외무역의 중요한 상품은 비단이었다. 군대의 장비에 비단이 다량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송나라에서 필요로 했던 비단의 양은 황하유역과 양자강유역을 통틀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하여 충당하였다. 특히 남방의 비단 생산량이 종래의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원나라 시기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비단을 남방에서 생산하는 경향으로 바뀐다. 특히 이때 비단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성행하여 서화(書畵) 전용의 비단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가금(加金)비단의 생산이 늘어났다.

명나라 시기에 들어오면 비단 생산은 대체로 세 개의 중심지역이 형성된다. 첫째는 오늘날 양자강 하류지역인 강남으로 그 중에서 소주가 유명했다. 이 시기에 온 소주지역이 비단 생산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는 산서역이다. 셋째는 사천지역이다. 특히 명대에는 북방에서 면화를 심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주로 이들 세 지역에 비단생산이 집중되었다. 즉 오늘날의 북면남사(北綿南絲)의 전통이 이 때 형성된다.

명대 비단의 색채는 대체로 남색·홍색·황색·녹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온난한 느낌을 제공한다. 특히 직조기술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 원인으로는 임홍(林洪)이란 장인이 직조기를 원래의 오층 직조기에서 사층 직조기로 개량하여 오늘날 고급비단으로 여겨지는 두께가 얇아지고 표면이 부드러우며 색채가 잘 입혀지는 비단이 생산되게 되었다.

청나라 시기에는 소주·남경·항주가 중국 비단 생산의 중심지로 집중적인 발전을 가져온 때이다. 주로 왕실에 공물로 들어가는 것과 민간에서

소용되는 것이 모두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당시 소주에는 비단 수공업 집단인 작방(作坊)이 1만 소에 다다랐다. 금단(錦緞), 화단(花緞), 라단(羅緞) 등 수십 종에 달하는 비단 제품이 국내외로 유통되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남경 일대의 민영 방직기가 3만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비단 제품 중에서 용단(絨緞)이 최고로 발달했다. 따라서 청나라 시기에는 양자강 하류지역에서 일반 가정의 사영 비단 직조업이 최고의 극성기에 있었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2) 마포직조

마포(麻布)직조는 주로 삼베나 모시풀, 덩굴을 이용하여 실을 생산한 후 이것을 원료로 하여 천을 짜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은 대마(大麻)와 저마(苧麻)의 원산지로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재배되어 옷감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상나라 때의 유적지에서는 마직품이 출토되기도 했다. 당시 마포는 주로 하층민들이 입었던 옷감으로 여겨진다.

이미 주나라 때는 마포 생산기술이 크게 발달했으며 조정 내에서 마포 생산을 관리하는 전문직책을 두기도 했다. ‘전시(典枲)’라는 직책은 대마의 생산을 맡았으며, ‘장갈(掌葛)’이란 직책은 덩굴의 생산과 방직을 전문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당시의 마포직조 기술은 이미 비단생산과 맞먹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엄격한 등급제를 시행해 7승에서 9승의 조잡한 마포는 노예와 범죄자에게 입혔다. 10승에서 14승의 마포는 일반평민이 사용했고, 15승 이상의 마포는 ‘시포(總布)’라 하였는데, 비단의 조밀함과 비슷했다. 30승 이상의 것은 주로 천자와 귀족들의 모자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마포는 의류직물 이외에 옷칠을 하여 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칠포(漆布)를 만들면 보존성이 높았다. 주로 칠포는 귀족들이 앉는 가마의 덮개와 깔개로 사용하였다. 주나라에서 춘추전국시대에 오면서 마포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시대에 오면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은 조밀한 마포를 이용하여 여름철 옷을 짜 입는 것이 유행

이었다. 그러나 마포를 짜는 데는 실을 엮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저마와 같이 가는 실을 길게 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함께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그래서 겨울에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저마를 짜지만 그 생산량은 많지 않았다.⁸⁹

기후의 변화로 인해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 중국의 북방은 저마 생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북방에서는 저마가 생산되지 않았고, 단지 대마만 생산되었다. 특히 비단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저마의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다만 마포만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인 직조물로 쓰였다. 특히 갈포의 경우 산지에서만 주로 생산되었다.

당나라 시기에도 비록 마포의 생산은 지속되었지만, 그 생산량은 비단을 앞서지 못했다. 비록 일반 백성들의 일용품으로 여전히 마포가 중요했지만, 비단의 생산에 견줄 수 없었다. 그러나, 마포 생산기술은 꾸준히 발달했으며 특히 송대에 들어와서 방직기가 대량으로 변하면서 직조생산의 대량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방을 중심으로 저마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절강의 산후포(山後布), 광서의 소자포(練子布) 등이 유명했다. 특히 광서지역의 저마포는 공납품으로 대량생산되었다.

원나라에 들어오면 마포는 일반 가정에서 자신들의 필요로 만들기도 했지만, 세금 대응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기도 했다. 특히 원나라 때 저마의 생산기술이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다. 종래에 저마의 풀기를 제거하기 위해 석회나 재를 사용했는데, 이 때 저마를 삶아서 물기를 뺀 이후 햇볕에 말리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저마를 표백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더욱 흰색의 저마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송 이후 면화의 생산이 중국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저마의 생산은 점차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저마는 여름에 입는 옷을 만드는 옷감으로 변했다. 이러한 사정은 명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청대에 광둥에서는 저마의 실과 비단의 실의 교직하여 어동포(魚凍布)를 생산하였다. 이

⁸⁹ 가령 馬王堆에서 발견된 한 두루마리의 23승 저마를 짜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었다.

것은 비단과 저마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섬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나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직조 일반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마포 직조에서 여성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상 관영생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사영으로 이루어졌던 마포직조는 일상 가정에서 여성들의 주요 생산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재료의 재배과정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실을 만들고 이것으로 천을 짜는 일은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3) 모직생산

모직은 동물의 털을 실로 만들어 천을 짜는 기술로 농경을 위주로 생업을 해온 한족보다는 목축을 하는 북방민족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우공(禹貢)』이란 책에는 상나라 때 북방의 유목민족과 한족 사이에 모피와 모직 제품이 교환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중원을 중심으로 한 고대 중국에서 모직제품은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나라에 들어오면 중원에서 모직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당시에 官營으로 모직제품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집단이 있었으며, 주로 양탄자와 같은 모전(毛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술은 조잡하여 동물의 털로 두꺼운 실을 만들어 옷을 엮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평민들이 주로 입는 투박한 옷으로 여겨진다. 한나라 시기에는 중국은 이미 다민족으로 구성된 고대국가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왕실에서는 북방과 서남지역 유목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모직제품은 고급 천으로 인식되었다. 주로 모전을 비롯하여 장식용 혹은 복식용으로 쓰였다.

이러한 사정은 후대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중원지역의 한족들이 모직 제품을 자주 이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직조기술도 발달했다. 당나라 시기에 오면 ‘울초양(靛芳羊)’이란 양의 품종 개발로 얇고 따뜻한 모직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양모에 각종 색깔을 염색하는 기술도 발달하여 화려한 모전이 생산되었다.

송나라 때는 북방과 남방이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직제품의 수입 감소하였지만, 몽골인들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모직제품 생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하였다. 특히 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염색 기술이 발달하여 화려한 색깔을 지닌 각종 모직제품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나라 들어 모직 생산기술은 극성기에 이르렀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는 모전의 경우 왕실과 귀족들의 전유물에서 수출용으로 쓰였다. 명나라 모전의 특징은 백색 바탕에 남색으로 꽃무늬를 장식하고 사각형의 주위는 흑색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청대 역시 만주족이 지배집단이었기 때문에 왕실에 모직제품 생산을 위한 전문적인 관청을 설치하여 모전을 생산하도록 했으며, 특히 北京의 모전은 왕실 공급용으로 이름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모직의 생산은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의 털을 깎는 일은 남녀의 구분이 없지만 주로 남성이 맡아서 했으며, 염색의 경우에도 남성이 주로 담당했다. 여성은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전체적인 생산관리는 주로 관영에서는 남성이 중심이 되었고, 사영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었다.

(4) 면직생산

아프리카와 동남아가 원산지인 면화는 한나라 때 중앙아시아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주로 서북지역에서 생산하여 완제품이 중원에 소량 들어간 정도였지 본격적인 생산은 아니었다. 비록 해남도의 원주민들은 자생하는 관목형 면화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중원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당나라와 남북조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서북지역에서는 아프리카산의 면화가 중원으로 들어왔고, 강남지역에서는 동남아의 면화가 들어와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나라 시기의 각종 기록에는 지금의 광둥·광서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제품이 인기를 모았다고 적혀 있다.

이를 기초로 원나라 때가 되면 면직기술은 남방과 북방을 막론하고 전국

적으로 유행하는 일종의 신흥 방직업이 되었다. 그래서 원나라 왕실에서는 오늘날의 절강성·복건성·호남성 일대에 ‘木棉提舉司(목면제거사)’를 파견하여 목면 생산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양자강 하류지역에서의 목면 생산이 북방과 견줄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면직을 제조하는 과정은 다른 어떤 직조보다 복잡한 과정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기 때문에 목면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조기술은 낙후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황도파(黃道婆)란 부인에 의해 타개되었다. 황도파는 송나라 말기에 지금의 상해 근처 농촌에서 태어나 집안이 가난하여 10대에 해남도로 가서 여족(黎族)의 면방직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해남도의 여족은 자생하는 면화로 일찍이 옷을 지어 입으면서 면직기를 개량하여 중원보다 기술이 앞서 있었다. 이에 황도파는 면화 재배법과 함께 직조 기술을 함께 배우며 생산에도 참여하였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황도파는 고향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직기를 개량하기 시작한다. 가령 면화의 씨앗을 제거하는 씨앗기와 실을 세 자락씩 뽑아낼 수 있는 물레, 발로 조작하는 방직기, 그리고 면직에 꽃무늬를 주입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면직생산에 일대 혁명을 가져 왔다.

황도파의 새로운 기술로 양자강 하류지역의 오늘날 상해의 송강 일대는 원나라 초기 면직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으며, ‘송강포(松江布)’라는 것이 중국 전체에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민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진다. ‘황도파, 황도파, 우리에게 직조기술을 가르쳐 주었네, 두 개의 통에서 두 필의 면이 나오네(黃道婆, 黃道婆, 教我紡紗教織布, 兩只筒子兩匹布).’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면직생산 역시 官營보다는 私營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여성에 의해서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면화를 재배하고 씨앗을 제거한 후 털로 실을 짜고 다시 그것으로 옷감을 만드는 전체 과정은 매우 섬세한 동작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위주의 생산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 때에 이르면 북방의 면화생산량도 증가하지만, 여전히 강남의 면

직 생산이 중심이 된다. 특히 원대의 영향을 이어서 양자강 하류지역의 면직 제품 생산은 날로 번성하였다. 그래서 면직제품의 종류도 더욱 증가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면직을 남색으로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했으며, 특히 오늘날 ‘남인화포(藍印花布)’라고 부르는 직물이 명대에 상해지역에서 개발되었다. 각종 식물성 재료를 발효시켜 염료로 만든 후 면직 천을 여기에 염색하여 남색 천을 만드는 기술이 생겨나서 면직물은 일반 백성들의 중요한 옷감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5) 자수공예

비단과 마포, 면직, 모직 이외에 직조 역사는 직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자수이다.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춘추전국시대의 유물 중에는 자수를 한 옷감들이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수공예는 이미 크게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강릉마산일호묘(江陵馬山一號墓)에서 출토된 자수제품은 10건에 이르는데, 모두 비단에 자수를 놓은 것으로 검은색 혹은 붉은색의 실로 봉황과 용의 도안을 자수했다.

한나라 시기에 오면 자수공예는 더욱 발달하였으며 특히 산동 일대의 부인들이 지닌 자수기술이 유명했다. 이 때의 자수 문양은 비단이나 칠기의 문양과 비슷하여 주로 구름모양, 동식물, 기하학적 문양, 문자 문양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자수문양은 주로 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었다. 당나라 시기에 들어오면 자수공예는 비단을 직조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그 이전까지 주로 복식에 자수를 놓던 것이 불교와 관련된 형상을 자수기술을 이용하여 비단에 형상화한 일종의 회화작품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왕실에서는 자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측천무후나 양귀비가 왕실에 있던 시기에는 그들을 위한 자수 여공(女工)이 수백명이나 되었을 정도이다.

자수공예는 오로지 여공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수공예를 하는 여공들을 여홍(女紅)이라 부른다. 그들이 놓는 자수가 너무나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송나라에 들어오면 官方에서 자수를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공방으로 ‘수원(繡院)’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수원에서는 3백여 명의 여흥을 모집하여 인물이나 화조, 산수, 누각 등의 문양을 수놓게 했다. 특히 송대의 자수는 일반적인 복식품 이외에 감상용의 서화 작품과 비슷한 자수품이 다량 생산되었으며, 특히 역사상 유명한 회화작품을 자수로 모사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로 인해 송대의 자수품에는 제작한 여흥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주극유(朱克柔)의 연당유압도(蓮塘乳鴨圖)와 침자번(沈子蕃)의 매화한자도(梅花寒雀圖) 등이 그것이다.

원나라와 명나라 시기의 자수공예는 관복의 복식은 물론이고 귀족들의 옷에도 수를 놓는 데까지 이른다. 따라서 송대의 수원을 이어서 관영의 자수공방이 운영되었다. 가령 명대에는 왕실의 자수공방은 생산품에 따라 분업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상의감(尙衣監)·어마감(御馬監)·침공국(鍼工局) 등이 그것이다. 왕실에서 수장(繡匠)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는데, 자수라는 특수한 공예기술로 인해 관영에서 일하던 수장들도 모두 여성이었다. 이외에 사영도 매우 발달하여 농촌의 부녀들이 주로 자수공예에 종사하였다.

명대의 자수는 남수(南繡)와 북수(北繡)의 양대 계통이 있었다. 남수는 실용성이 강하고, 북수는 장식성이 강했다. 북수는 산동과 북경이 유명했고, 남수는 소주와 항주가 유명했다. 당연히 제작기술도 수십 종에 이르렀다. 이 시기 들어 많은 자수 장인들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한희맹(韓希孟 - 畫綉, 虞美人, 洗馬圖), 예인길(倪仁吉 - 綉心經, 五蝠圖, 『凝香綉譜』출판), 형자정(刑慈靜), 동소원(董小苑), 설소소(薛素素), 왕월(王月) 등이 유명했다.

나. 산업화와 직조생산에서 여성 역할의 부침

중국의 직조는 궁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영 생산과 농가의 소규모 생산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청조부터 면직생산은 전문적인 공장화 되어 대량생산단계에 들어섰다. 『명청사(明清史)』의 기록에 의하면 남

경·소주·송강·진강·항주 일대에는 천여대의 방직기를 갖추고 수천명의 공인들이 일하는 대형 면직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직조업은 자수공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장제 산업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87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근대적 무역으로 인해 중국 비단의 대외수출은 날로 증가하였다. 당시 비단의 생산은 이미 송나라 때부터 형성되었던 전문 수공업 작방(作坊)에서 생산한 원료가 주를 이루었지만, 1890년대부터는 기계식 방직공장에서 비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견사방직업을 기계화시켜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중국 비단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수출경쟁에 불이 붙었다.

방직공장의 발달로 가내 수공업은 큰 타격을 입어 붕괴되었으며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 직조생산에서 개별 농가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치기를 하거나, 면화를 재배하는 원료생산자에 불과했다. 비단을 주로 생산했던 농촌의 여성들은 원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공장에서는 여공들이 기계적인 생산에 종사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기술의 이전과 고급 수공 비단의 생산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추어 갔다.

구체적으로 소주의 비단공업 연혁을 살펴보면 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⁹⁰.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소주에는 방직기가 약 15,000대 정도 있었고, 생산량은 생산량: 360,000필⁹¹, 금액으로 6,000,000은량(銀兩)에 달했다. 전문적인 비단 직조작방은 10여 군데 있었다. 1895년에 소주상무국에 소속한 소경소륜고빈유한공사(蘇經蘇綸股份有限公司)가 창건되었는데, 이 회사는 소주의 첫 번째 근대기업이고 최초로 기계를 사용해서 소사(纜絲)를 한 공장이었다. 1912년부터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 나무로 만든 방직기의 수량이 점차 줄어들었다. 1914년 5명이 8만원(銀元)을 투자해서 蘇經紡織廠를 창건하였다. 이 공장은 소주 사직업에서 첫 번째 신식 방직기를 사용한 수공 공장이었다. 1921년 수랍철목궤(手拉鐵

⁹⁰ 蘇州市志編纂室, “絲綢工業,” 『蘇州市志』 15卷 (1998).

⁹¹ 필은 청대 비단의 단위인데 길이가 2~4장(丈, 약 6.4~12.8미터), 넓이가 2척이다.

木机)를 사용한 비단공장은 14군데, 직주궤(織綱机)는 1,000여대로 증가되었다. 같은 해 전력을 사용한 직주궤도 수입되었다. 1922년 가격이 비단 원료의 50%에 해당하는 인조사를 수입하였다. 1926년 전력 직궤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絲織廠은 수공 공장으로부터 전기화된 근대 공장으로 발전되었다. 1936년 전력을 사용한 비단 공장은 93군데, 전력 방직기는 2,100대로 늘어났다. 비단 생산량은 24만필을 이루었다. 그러나, 1937년 11월 일본군의 소주에 침입으로 인해 비단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가령 1939년의 비단 생산량은 5만필에 불과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경제 봉쇄로 인해 1949년에 비단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해 162만 미터에 불과하였고, 1950년에 95만 미터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51년 이후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여, 1955년에는 460만 미터로 생산량이 늘어났다. 결국 1954년 振亞綱廠이 처음으로 공사합영으로 운영되었고, 1956년에는 合作化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점차 비단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1967년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다. 1970년에 다시 1966년의 생산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1979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비단산업은 자유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국 1985년 이후 국영 비단공장 등의 수출 중심의 생산시설이 갖추어졌다. 1990년 현재 소주비단공장은 3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32,273명의 직공이 일하고 있으며, 총생산량은 1억위엔을 상회한다.

19세기말 면직공예의 사정도 비단공업과 비슷하였다. 1890년 상해에 면직공장이 들어서면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자 직접 가정에서 면직 생산을 하던 부인들은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에 다니는 임노동자로 변모했다. 특히 여성위주의 면직생산은 남성위주로 바뀌고 여성은 일종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단직조와 함께 면직공예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완전히 관영화가 이루어져서 여성인력의 노동자화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른다. 비록 남녀평등의 기초를 내세웠지만, 직조 생산과정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원료의 생산자, 기계적 생산의 노동자로 머물게 하였다.

근대 이후 직조생산의 변화에 비해 자수공예의 경우에는 그 기술의 성격상 공장제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여전히 수공업적 양상을 유지했다. 물론 자수공예의 근대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상해 북쪽의 남통에는 남통여공전습소(南通女工傳習所)가 1914년 9월 28일에 설립되었다. 청말의 실업가인 장건(張謇)은 남통에서 자수전문학교를 창건하고 유명한 소수예인(蘇綉藝人) 심수(沈壽)을 초빙하여 소장으로 위임하였다. 그녀는 다시 언니와 제자, 조카를 초빙하여 남통여공전습소에서 강사로 위임하였다. 이 학교는 여성직업학교인데 목적은 우수한 중국 자수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다시 국내외 시장의 수요를 결합하여 자수 기술을 개선하며, 자수를 중국의 근대적 산업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여공전습소는 처음 2년 동안에 남통여자사범학교 내에 설립되었는데, 제 1기에 20여 명 학생을 모집하였다. 그들 중에 현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지원하였다. 1916년에 학교는 남통성 남쪽 호양로에 위치한 2층 건물(현 심수예술기념관(沈壽藝術紀念館))로 옮겨갔다.

여공전습소에서 받았던 직업 교육을 토대로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 위해 장건은 자수 제품을 판매하는 직수국(織繡局)을 별도로 창설했으며,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직수국은 미국의 시카고, 뉴욕 및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상해에서도 판매점을 설치하였다.

남통여공전습소에서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켜 교학과 생산, 판매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 당시로 보아 상당히 개척적인 방식이었다. 1921년에 심수가 사망한 후 심수의 언니인 심립이 소장을 담당하였다가, 1939년에 일제의 침입으로 해산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심수의 제자이자 여공전습소의 제1회 졸업생인 송금령이 다시 여공전습소를 설립하였지만, 전쟁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남통시에서는 남통여공전습소의 졸업생을 위주로 자수생산합작사를 창건하였다. 1959년에는 이를 토대로 남통공예미술연구소가 성립되었다. 연구소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이 파괴되었지만, 1972년에 다시 창건되어 연구와 생산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비해 소주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1917년 소주에서 전문적으로 자수를 생산하는 수공업적인 공장인 소주수장(蘇州綉庄)은 6호가 있었고, 여기에서 일하는 여흥은 16,300명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3년 소주자수업은 주문생산 방식에서 관영과 사영이 합작화하는 경영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주시의 문련(文聯)과 부련(婦聯) 등에서 별도로 자수소조(刺繡小組)와 궈수소조(機綉小組)를 만들었다. 1957년 소주시에는 제1자수생산합작사, 제2자수생산합작사, 제3자수생산합작사, 소주시자수공예미술생산합작사를 비롯한 총 여덟 개의 자수생산합작사가 있었다. 그 후 위의 각 자수생산합작사들이 다시 소수청(현 소주자수청), 소주자수연구소, 蘇州綉品廠 등으로 합병되었다. 1979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이들 공장들은 계획경제에서 탈피하여 자생력을 강화시켰고, 1998년 이후에는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나긴 중국 직조의 역사를 통해 여성들은 생산공정의 대부분을 맡아 하면서 생산기술의 발달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근대적 대량생산체계의로의 전환과 함께 여성들은 남성관리자의 통제를 받는 여공으로 그 지위가 전락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개혁개방조치를 통해 그러한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수공예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편이다. 주지하듯이 자수공예는 비록 기계 자수가 등장했지만, 직조생산에 비해 대부분 수공예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업을 맡은 남성의 판단에 따라 문양과 기술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수분야에서도 점차 뛰어난 기술을 지닌 여흥(女紅)보다는 단순노동력으로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4. 동북아 직조생산의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여성들은 평생을 집안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딸로서의 역할만을 해왔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은 각종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이러한 점은 많은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조명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직조생산은 여성들이 전담해온 대표적 분야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상과 삶을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가. 직조를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

선사시대에 직조가 시작된 이후 줄곧 중국의 관영생산을 제외하고 모든 직조는 여성들이 전담하는 분야였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에서는 아내를 얻어야 의복을 입었으며 고구려 벽화에서도 여성들은 베를 짜는 광경으로 묘사되었다. 이후 삼베와 견직, 모시, 면직을 포괄한 모든 종류의 직조생산은 여성들의 손에서 발달되어 왔다. 여성들이 생산한 직물은 일차적으로 가족원들의 의류재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가족원들이 추위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있어 여성은 필수적인 존재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물은 교환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여성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가구소비용 이상의 잉여 직물을 판매하여 가구경제의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⁹²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그

⁹² 삼국유사 선유환생조에 망덕사의 중 선유이 저승에서 인간세계로 오는 도중 한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 말이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곱게 짠 베를 침구 사이에 두었으니 그 베를 판 돈으로 경폭(耕幅)을 삼아 주시면 황천에서도 은혜가 되겠다”고 하였다. 일연, 『삼국유사』, 김성희,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01), p. 70 재인용.

러한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특히, 남편 없는 과부의 경우에는 길쌈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으며 조선시대 들어서는 가난한 양반가정에서도 생계유지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미 신라 시대부터 국가에서는 농가 여성들이 생산한 직물을 거두어 들여 빈민층과 병사들에게 사여했으며⁹³ 고려시대 들어서는 포상품, 빈민구제용품, 교육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직물 수요가 한층 증가하여 다른 공물 대신해 마포를 납부할 정도로 직물이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⁹⁴ 조선시대 들어 국가 재정에서 여성의 직조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조선전기부터 재정적, 군사적 수요의 증대로 인해 면포에 대한 국가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지불수단으로서 면포의 수요도 증대했다.

가구 외부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된 상황에서도 직조를 통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여성들의 과중한 노동부담이 아니었다면 국가재정이 확보될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직조 생산을 통해 시장경제 발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물은 쌀, 은과 함께 대표적인 현물화폐로 사용되었는데,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삼베가 화폐대용으로 사용된 것을 비롯해⁹⁵ 17세기 중엽 상평통보가 주조되기 이전까지, 심지어 1894년 조세의 금납화가 완전히 실시될 때까지도 직물은 시장교환의 주요 매체였다.⁹⁶

직조 생산을 통해 여성들은 가족의 의복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며, 국가 재정의 근간을 구성하고 시장경제의 발달을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들은 과중한 노동 부담에 시달려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조를 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⁹³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서울: 신서원, 1996), p. 71.

⁹⁴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p. 108; 김성희,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p. 6.

⁹⁵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⁹⁶ 박영애,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위상」, p. 52.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정약용은 『경제유표』에서 “목면을 재배하면 이익이 오곡의 백배”가 되며 “한명의 베 짜는 여인이 남성 농부 세 명보다 많은 일을 하며(一織婦女勝三農夫)”, “남성이 45일 걸리는 일을 여성은 한달 만에 해낸다”⁹⁷고 하며 여성들의 생산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능화 역시 길쌈하는 조선 여성이 없었다면 산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이 남성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으로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여자가 부지런히 일하여 남자에 뒤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나는 고치실과 명주, 베, 모시, 무명 등 어느 하나도 여자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로써 보건대 조선산업사상에 실로 여자는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⁹⁸

또한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직조는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서 삼국시대에는 직조나 염색, 표백, 바느질 등 직물과 관련된 관사가 설치되어 여성들이 하급실무관리로서 직물을 생산해 냈으며 고려 시대에도 직조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활동했다. 또한 신라 시대에 여성들이 직물의 유통과 교역에도 참여한 예도 있으며⁹⁹,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직물 유통을 담당하는 여성 대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여성들은 농업생산과 함께 생계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직조를 통해 자급자족적인 농가의 한 기둥을 형성해왔다. 특히,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중국이 세계 비단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으며 황도파(黃道婆)와 같은 여성들은

⁹⁷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pp. 189-190.

⁹⁸ 이능화, 『조선여속고』, p. 368.

⁹⁹ 일본 나라의 정창원 소장 유물 가운데 50여장의 모전이 있고 그 가운데 ‘자초량 맥자칭모일’이라는 마포 꼬리표가 붙은 모전이 있다. 이는 자초량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딴 귀족의 공장에서 생산된 ‘자칭모’를 뜻하는 것으로 자초량은 신라 귀족 여성의 이름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1999), pp. 97-102

직조 생산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동북아 각국의 여성들은 방직공장의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직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여성들의 위상도 크게 낮아졌다. 물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들은 소극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 자신들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직조노동자들은 연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¹⁰⁰ 또한 직조와 자수 등의 관련분야에서 여성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시행되기도 했으며 기업화된 세계에서 여성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함).이처럼 역사를 통해 직조문화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여성의 위상을 재조명함으로써 풍부한 직조기술과 지식의 보유자인 여성의 생산주체로서의 진면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직조를 통한 여성문화의 형성

직조는 특정 계층의 여성들에게 제한된 일이 아니라, 농민계층에서부터 왕비와 여왕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면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일이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문제 통치기에 황후가 친히 양잠을 시행하면서 직조를 권장한 바 있다.¹⁰¹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유사에 진덕여왕이 스스로 비단을 짜고 무늬를 놓았던 바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부유한 상류층 여성들이 길쌈을 중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¹⁰²

¹⁰⁰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에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통제체계 등에 대항하는 운동을 조직하였다.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서울: 풀빛, 1992), pp. 180-181.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섬유 산업의 중심으로 여공의 착취가 극심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오사카의 키시와다의 공장에서는 1954년 “이제 여공에서는 그만!”이란 케치플레이즈 하에 스트라이크를 벌이게 된다. 이 때 평균 19세 정도의 여공들이 모여 106일간의 투쟁에 들어간 후 여공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전후 여성들의 노동파업의 하나의 결정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¹⁰¹ 박동현, “中國 古代 家內 紡織經營의 성장과 그 의의-漢代의 小農家庭을 중심으로,” p. 7.

물론 국가체계가 발달하고 계급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왕실과 일부 지배층 여성들은 점차 직조에서 멀어졌으며 시장경제의 발달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일본역사상의 여성생활지침서인 『여중보기(女重寶記)』(1692), 『양천비록(養蚕秘錄)』(1803), 『면포요무(綿圃要務)』(1833)와 같은 저서에서도 양잠은 여성의 일이었다는 것을 그림과 함께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황후는 물론 높은 신분의 부인 일반 여성까지 누에를 기르고, 실을 뽑는 일 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최상층 여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평민, 양반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직조를 하였다. 특히, 노비가 없는 대부분의 양반가에서는 자가 소비와 가계 운영을 위해 여성이 직조에 나섰으며 양반가정의 혼자된 여성 또는 가난한 양반가에서는 여성들이 직조를 통해 생계와 자녀 교육을 책임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이상 직조를 하지 않던 최상층 여성들도 상징적 차원에서는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조선 왕조에서는 왕비가 누에치기와 길쌈을 권장하고 양잠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친히 누에치기를 하는 친잠례(親蠶禮)¹⁰³를 거행하기도 했으며 누에치기 전에 잠신에게 제사드리는 잠제를 잠모(蠶母)가 주관하여 치르기도 했다.¹⁰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행하는 핵심적인 일로서 직조는 보편적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한, 중, 일 3국에서는 남성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성들은 길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규정되었다. 중국의 칠석절 풍속은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시대에서부터 이러한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고구려 대안리

¹⁰² 김성희,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pp. 70-71.

¹⁰³ 친잠례는 조선시대 왕비가 궁궐에 선잠단(先蠶壇)을 쌓고 제를 올리고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주는 의식이다. 기록은 태종 11년(1411년)에서부터 비롯되지만 실제 친잠례를 갖춘 것은 성종 7년(1476년) 왕국 후원에 만들어 놓은 채상단에 서 실시한 것이 최초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4년 조선조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비의 약식화한 수견례를 끝으로 그 맥이 끊겼다.

¹⁰⁴ 강숙자, 『한국 전통사회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52.

21호분에서 여성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광경이 그려져 있고 덕흥리 고분벽화에서는 견우와 직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비롯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에서도 세오녀가 길쌈을 하며 그 직물에는

<사진 III-1> 김홍도의 <자리짜기>



- 여성이 나란히 앉아 실을 잣고 있다 -

그녀의 정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을 비롯해 여성들은 흔히 길쌈 하는 모습으로 표상되었다.¹⁰⁵

이처럼 길쌈이 여성 역할의 핵심을 구성한 만큼, 길쌈 능력을 갖춘 여성만이 엄연한 사회 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의 사회화(socialization) 내지 문화화(culturalization) 과정에서는 길쌈 기술의 획득이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어릴 때부터 여성들은 길쌈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¹⁰⁶ 길쌈기술을 갖고 닦는 것이야말로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¹⁰⁵ 조선 인종과 김종직(1431-1492) 등은 길쌈 하는 여성을 다룬 시를 지은 바 있으며 영조는 경직도에서 양잠과 길쌈, 바느질하는 아낙네를 그린 바 있다. 이능화, 『조선여속고』, pp. 376-380. <http://www.nonghyup.com/a_allnacf/06_culture/act/at_46.html>, 또한 김홍도의 <자리짜기>에서도 자리짜는 남편 옆에서 부인은 물레로 실을 잣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덕목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부지런히 실을 뽑고 길쌈을 하는 여성은 본받아야 할 표본으로 추앙되기도 했다. 따라서 고구려 대안리 고분에서 보이는 직녀의 당당한 모습처럼 길쌈을 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감을 지닐 수 있었다.¹⁰⁷

물론 국가 체제가 발달하면서 힘든 노동의 결과로 발생한 생산물 대부분을 조세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수취해가는 착취적 성격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압력 하에서도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들 특유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우선 아래세대 여성들이 위세대 여성으로부터 직조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에서 삶의 방식이 여성들 사이에 전승될 수 있었으며,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짠 옷감을 넣어주어 딸이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직물을 통해 여성들 간에 상상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물레를 돌려 실을 짓고 베틀에서 직조를 하면서 여성들은 삶의 고달픔과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¹⁰⁸ 특히,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직조에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투영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부인 직물이 떠날 때에는 큰 박탈감을 느끼면서 글이나 노래로 그 감정을 표현해왔다. 표현하고 있다.

¹⁰⁶ 동국이상국집에는 “4살로 자못 능히 길쌈과 바느질을 배운” 어린 딸에 애도가 담겨있다. 김성희,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p. 71.

¹⁰⁷ 강영경,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여성의 역할과 지위,” <http://www.kok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 연대미상.

¹⁰⁸ 직조와 관련해 물레노래, 베틀노래, 베짜기 노래, 삼삼기 노래 등의 노동요가 전해지고 있다. 그 예는 박미라, 「노동요에 나타나는 여성의 체험과 자기인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p. 42. 등 참조.

베틀노래사례(강원도)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삼간방에 누어 놓고 청실홍실 뽑아 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계다가
짜궁짜궁 짜아내어 가지잎과 묶거워라
배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외씨같은 보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겉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¹⁰⁹

허난설현의 [빈네]

밤늦게까지 베틀에 앉아 쉬지 않으니
베틀만 삐걱삐걱 차갑게 울어댄다.
뜰에서 또 한 필 짜내건만
이번에는 누구의 옷이 되려나?¹¹⁰

이외에도 직조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로서 가내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들의 영역이 집밖으로 확대되고 여성들 간에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왕녀 2사람이 6부내 여인을 나누어 거느리고 7월 보름 이후 매일 일찍부터 밤늦도록 대부(大部)의 뜰에 모여 베짜기를 하여 8월 보름에 가서 그 공을 가렸다는 기록에서 직조를 통한 여성들의 공동체 형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직조가 일반화되면서부터는 황해도와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¹⁰⁹ <<http://www.seelotus.com/gojeon/gojeon/min-yo-pan-so-ri/be-teul-nolae.htm>>.

¹¹⁰ 이능화, 『조선여속고』, p. 372.

전국 각지에서는 길쌈 작업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여성들이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한 두레를 형성하기도 했다.

길쌈은 직물 재배에서부터 직조에 이르는 다양한 공정을 거쳐 진행되는 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실을 만드는 일은 주위의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 직조의 경우에는 물레 잣기를 공동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삼베 직조의 경우에는 짧은 섬유를 잇는 삼삼기 작업을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서로 무릎을 맞붙이고 둥글게 앉아” 일을 한다. 연령대도 비슷하고 숙련도도 비슷한 친구들의 일상적 만남의 일부로 구성되는 길쌈두레는 각자 일 거리를 가지고 모여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한사람씩 일거리를 돌아가면서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¹¹¹ 모시 생산 작업에서는 섬유의 올을 짜는 작업(짜기)과 짧은 섬유를 길게 잇는 작업(삼기)의 경우에 여럿이 모여 앉아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직조 작업도 여러 명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해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도 한다.

여러 명의 여성이 함께 모여 하면서 일의 지루함을 잊을 수 있으며 작업 능력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단지 공동작업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여성들이 애환을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음식도 해 먹고 화투도 치고 옷도 놓고 재미있게 노래도 하고, 누구 제사라든지 환갑이라든지 잔치라든지 하면 그 집 음식 갖다 놓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놀기도 한다.”¹¹²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길쌈을 하는 여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길쌈 두레는 거의 사라졌으며 여성들의 보편적 일이자 생활의 핵심이었던 직조의 의미도 개개인의 전업적 경제행위로 전환되면서 직조를 통한 여성들간의 세대전승과 공동체 형성, 경험의 교류 등도 더 이상 큰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길쌈두레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안동이나 서천 등의 주요 직조생산 지역 생산자들 사이에 그

¹¹¹ 임영진, 「삼베길쌈기술과 노동교환조직에 관한 연구: 안동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p. 69-70.

¹¹² 위의 글, p. 71.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여성생산자들이 중심이 된 직물조합을 중심으로 직조를 통한 여성들간의 유대와 공동 활동전통이 유지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함).

다. 직조를 통한 동북아 문화 교류

유교문화의 지배로 인해 여성에 대한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직조를 통해 여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여성들 간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기술과 지식을 세대로 전승하면서 독특한 여성문화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직조전통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나아가 직조기술은 동북아 지역내 문물교류의 핵심이었으며 고대부터 여성생산자들은 직조기술의 전파자로서 동북아 각국의 문화발달을 이끌어냈다.

일본 『고사기(古事記)』에서는 일본에서 사신을 중국의 양자강 지역에 보내 비단기술을 배우려 했고, 결국 그 지역의 여공(女工)이 직접 일본에 가서 비단기술을 전수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고대 동북아 방직기술이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찍이 3세기 말 백제의 봉의공녀가 일본으로 파견되어 능직을 비롯한 일본직조의 기원을 연 것을 비롯해 신라의 진덕여왕은 직접 비단을 짜 당태종에게 보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에 모시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모시와 견직물이 대송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아 “희기가 구슬과 같은” 모시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졌으며, 원나라에서는 고려 여승이 바친 흰모시를 본 제국공주가 모시를 짠 여승의 몸종을 바치도록 요구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¹¹³

이처럼 직조는 여성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으로서 뿐 아니라 대외 외교 및 교역 무대에서 각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직물 시장 개방과 공장제의 발달로 인해

¹¹³ 이화여대, 『한국여성사 I』, (1972), p. 146; 이능화, 『조선여승고』, pp. 368-380; 김성희,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pp. 70-72

직조를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각국의 문화적 우수성의 표상하는 대표자로서의 여성생산자들의 면모도 현저히 퇴색했다. 특히, 공장제 생산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직조생산은 공장 내에서 남성에게 의해 통제되는 영역으로 변화했으며, 여성은 저임금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공통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상기시키고 여성들 간에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직조는 오직 가난한 여성들의 힘든 노동으로만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기계화에 따라 직조 기술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도 각광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 중, 일 각국의 주요 직조생산지에서는 전통 직조를 중심으로 한 예술관, 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이나 축제 등을 개발하면서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직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소 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과 여성생산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적극적 움직임도 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IV

동북아 직조유산 현황: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 각국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다양한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무명의 수많은 여성들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발전시키고 계승해온 직조는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위상과 여성들의 삶을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장에서는 동북아 각국의 주요 직조 생산지를 중심으로 직조 생산현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여성생산자의 위상을 파악하며, 생산자나 기관 관련자 사이에서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한산모시

길쌈은 베와 모시, 목화, 누에고치 등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시는 까칠까칠한 촉감과 뛰어난 흡수력, 통풍성, 섬세하고 단아한 멋을 지닌 여름철 옷감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에 한산의 한 노인이 건지산(乾芝山)에서 모시풀을 발견하여 모시를 짜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전국시대부터 저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삼국 이전부터 모시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 들어서는 상류층은 물론 일반 백성들의 의복재료로서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사치를 금하기 위해 모시의 질을 통제할 정도로 그 사용이 일반화되고 직조기술도 발달해 신라 제48대 경문왕 때에는 모시가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다.

우리 역사상 모시직조가 가장 발달한 것은 고려시대로 이 시기 들어 생산이 한층 활기를 띠고 수요도 급증하였다. 모시는 공물로서, 상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귀족들의 사치품일 뿐일 뿐 아니라 일반적 직물로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제17대 인종 원년에 개경을 방문한 송나라의 서극은 『고려도경』에서 “농민은 빈부에 관계없이 상인은 근원에 관계없이 그 복장이 모두 흰모시로써 포(袍)를 만들고 오건(烏巾)에 네 가닥 띠를 하는데 오직 포의 치밀하고 거친 정도로써 구별하며 나라의 관원과 귀인이 물러나 사가에서 생활할 때에도 역시 그것을 입는다”고 할 정도였다.¹¹⁴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모시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으며 그 품질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귀족문화에 걸맞게 섬세한 무늬를 짜 넣은 가늘고 치밀한 고급 모시는 중국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서극은 “결백하기가 옥과 같다”고 하였으며 고려에서 보낸 꽃무늬 백색모시의 섬세함에 감탄한 원나라 공주는 이를 저자에 전시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하게 하였다.¹¹⁵

이미 이 시기부터 한산은 모시의 고향으로 이름을 얻어 『택리지』 북거 총론편에는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원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논”이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였다. 모시품은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모시 직조 역시 재배지를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시품이 재배되었지만, 전라도와 충청도의 해안지역이 주요 생산지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재의 서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조선 초기부터 저포칠처(苧布七處: 한산, 서천, 비인, 임산, 홍산, 남포, 정산) 또는 저산팔읍(苧産八邑: 한산, 서천, 비인, 임천, 홍산, 남포, 보령, 정산)으로 불릴 만큼 모시 생산지로 이름이 높았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한산모시’는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났다.

가. 생산현황

(1) 생산구조 및 규모

여름옷감으로 사랑받던 한산모시의 생산은 1960년대 합성섬유의 보급과 함께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렇다고 모시 생산이 단절된 것은 아니다. 1967년 한산모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되어 한산모시 전승에 기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일반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모시 생산의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다.

모시는 다년생 식물인 모시풀을 원료로 하여 몇 단계의 공정을 거쳐 생

¹¹⁴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p. 109.

¹¹⁵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p. 180.

산된다. 우선 베어낸¹¹⁶ 모시풀의 곁껍질을 벗겨낸 속껍질(태모시)로 만든 후, 이를 물에 적시고 햇볕에 말리기를 네다섯 차례 반복하여 물기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윗니에 걸고 아래 입술로 훑어내 가는 섬유로 잘라낸다(짜기).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가는 섬유가 나오느냐에 따라 모시실의 굵기와 모시의 품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만든 섬유 한 올 한 올을 무릎에 대고 손바닥으로 비벼 길게 이어(삼기) 놓은 것이 모시굿으로 한필의 모시를 짜기 위해서는 날실용 모시굿 10개와 씨실용 모시굿 10개, 총 20개의 모시굿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날실용 모시굿을 가지고 날기¹¹⁷와 매기¹¹⁸ 과정을 거쳐 날실을 준비하고 씨실은 꾸리에 감은 후 베틀에서 직조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시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생산자들은 전체 공정을 직접 하기보다는 각각의 공정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즉, 모시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태모시만을 생산하고, 일단의 생산자들은 태모시를 사다 짜기와 삼기를 해 모시굿으로 만들면 또 다른 생산자들이 그 모시굿을 사다가 날기와 매기 과정을 거쳐 베틀로 짜서 필모시를 만들어 낸다. 이외에 최근에는 샅을 받고 모시매기만을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공정별로 전문화된 구조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모시시장은 크게 완성품인 필모시 시장과 원료인 태모시와 모시굿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태모시와 모시굿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며 특별히 질이 높은 모시굿의 경우에는 필모시 생산자와 대놓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필모시 대부분은 거간을 통해 한산모시조합의 검사를 거쳐 판매되지만, 일부는 상점이나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솜씨가 좋은 생산자들은 개별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직접 거래하고

¹¹⁶ 모시풀은 일년에 세 차례(4월 말~5월 초, 6월 말~7월 초, 8월 말~9월 초) 베는데, 중간에 베는 것의 품질이 좋다.

¹¹⁷ 10개의 모시굿 각각의 실 끝을 젖을대 구멍으로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한 후 날틀에 걸어 한필의 길이에 맞추어 날실의 길이로 날고 새수(조직의 치밀함을 재는 단위, 7새~15새 정도)에 맞추어 날실의 올수를 맞춘다.

¹¹⁸ 날기가 끝난 날실을 바디에 끼워 한쪽 끝은 도투마리에 매고 다른쪽 끝은 끌개에 말아 고정시킨 후 콩가루와 소금을 물에 풀어 만든 풋닛가루를 뺏술에 묻혀 고루 먹여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왕겨불로 말려 도투마리에 감는다.

있어 시장에서 품질이 뛰어난 필모시를 찾기는 힘들다.

서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03년도에는 군내의 총 95가구에서 3.5ha의 면적에 모시풀을 재배했으며, 짜기와 삼기 과정을 거쳐 모시굿을 생산하는 가구는 398가구로 일년에 17,340곳의 모시굿을 생산해냈다. 이외에도 전남 승주와 고흥, 전북 부안과 정읍 등지에서 생산된 태모시와 모시굿이 한산지역으로 들어와 필모시의 원료가 된다. 이러한 모시굿을 가지고 모시를 짜는 가구는 총 186가구로 일년에 4,404필의 필모시가 생산되었으며 총생산액은 11억8천5백만원 정도에 이른다.¹¹⁹

<표 IV-1> 한산모시 생산 규모(2003)

	모시풀 재배	모시굿 (짜기·삼기)	필모시
생산농가	95	398	186
생 산 량	3.5ha	17,340곳	4,404필
생 산 액	89,902천원	172,063천원	1,186,070천원

자료: 서천군 문화관광과 모시진흥담당 제공

1976년도에는 총 340ha의 재배지에서 3,270톤의 모시풀이 재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0년 동안 재배면적이 10%정도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모시 생산자도 크게 줄어들어 “동네 친구 모두가 모시를 하던”(이복구, 65세, 한산면) 때와 비교해 지금은 젊은 여성들이 모시를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한산면의 경우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126가구에서 모시짜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24가구에서만 모시짜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서천군 일대에서 모시를 가장 많이 짰던 화양면 월산리만 하더라도 전체 70여 가구 중 60가구 이상이 필모시를 생산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단 5가구만이 모시짜기를 하고 있다. 더욱이 모시

¹¹⁹ 이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다. 군청 담당자도 모시짜기와 삼기, 모시짜기를 하는 실제 생산자들은 통계수치보다 1.5배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짜기와 삼기 생산자들의 감소 속도는 필모시 생산자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보인다.

(2) 생산자 현황

(가) 생산자 일반

이 가운데 모시풀 재배는 농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모시짜기와 삼기, 짜기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여성이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농가별로 한명의 여성이 작업을 하고 2명 이상의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 있는 만큼, 모시곳과 필모시를 생산하는 여성은 각각 400명, 200명 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모시생산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면, 극소수의 40대 말 연령층의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50대 말~60대의 초기노인들이며 70대 이상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처럼 생산자 대부분이 노령층인 가운데에서도 특히 모시짜기와 삼기는 노령층 여성들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비교적 젊은 여성들은 모두 모시짜기를 하고 있어 모시생산자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특히 모시짜기와 삼기 생산자들은 머지 않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모시 생산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연령대에 따라 길쌈을 익힌 배경이나 경험이 상이한데, 60대 이상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길쌈을 보고 자라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다가 10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비해, 40대 여성들은 결혼 이후 30대 들어 일을 배우기 시작해 모시일을 익힌 시기가 이전에 비해 훨씬 늦어지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 친척들이 길쌈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동네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모시일을 하던 윗세대와 달리 돈벌이를 위해 모시짜기를 시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산모시는 그 생산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생산자의 충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짜기와 삼기를 담당할 생산자들이 노령화된 채 더 이상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어 모시의 질을 좌우하는 기능 모시곳 생산을 기대하기 힘

든 실정이며 얼마지 않아 모시의 원료가 되는 모시긋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짜기의 경우에도 비교적 늦게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숙련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산모시 생산자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죽은 풀이 산 사람 죽인다”고 할 정도로 힘든 일에 비해 수입은 농업임금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길쌈은 매우 고된 일로서 특히 모시짜기를 할 때에는 입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삼을 때에는 무릎에 피멍이 들기도 한다. 또한 날마다 하루 종일 베틀에 앉아 짜기를 한 생산자들은 예외없이 허리와 무릎병으로 고생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생산수입은 그리 높지 않으며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모시짜기와 삼기생산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2,5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솜씨로 짜기를 해서 최고의 모시긋을 만들어도 하루 수입은 7,500원 선에 불과하다. 모시짜기와 삼기에 비해 필모시 생산자들의 수입은 다소 높지만, 그래도 하루에 15,000원에서 기꺼야 20,000원 내외의 수입만을 올릴 수 있으며¹²⁰ 그마저도 철이 정해져 있어¹²¹ 수입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15-20년전만 하더라도 모시생산수입은 꽤 괜찮은 편이어서 “밤늦게까지 해서 장에 내고 그걸로 쌀도 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생활하고 했었지만”(나상덕, 72세, 한산면) 이제 더 이상 모시수입만으로 생활하기는 힘들어서 심지어 무형문화재 전승후계자로 지정된 생산자도 모시짜기만으로는 수입이 변변하지 않아 품팔이를 할 정도이다.

생산자의 수입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중간상인을 통한 유통구조¹²²

¹²⁰ 중간 정도의 품질을 지닌 모시 한필을 짜는데에는 평균 5일이 소요되는데, 한필을 팔아 모시긋 값(긋당10,000~25,000원선. 한필에 소요되는 모시긋 총액은 200,000~500,000원 선)을 제하고 남는 돈은 적게는 5만 원, 보통 10만 원 내외이다. 세모시의 가격은 1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 평균 수입은 큰 차이가 없다.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여름철 잘 팔릴 때에 한달에 70~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연수입은 500만 원 정도이다. 일반 생산자들의 수입은 이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¹²¹ 수요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습도가 낮으면 모시를 짤 수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생산이 거의 중단된다.

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산모시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의 기억에 따르면 약 10여년전부터 모시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중국산 모시 수입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한산모시의 수요 감소추세는 가속화되어 생산자들의 체감 수입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

(나)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길쌈의 감소세는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합성섬유가 도입된 6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1967년 여러 종류의 직조 가운데 처음으로 한산모시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하여 보호해왔으며, 충청남도에서도 1973년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왔다.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기능보유자를 지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화유산이 계승되도록 하는데 있다.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방연옥, 서천군 기산면, 58세)

1967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기능보유자는 문정옥 보유자(보충할 것)로 1999년까지 32년간 한산모시 생산자를 대표하여 활동해 오다가 2000년 들어 문정옥 보유자 밑에서 모시기술을 배우던 방연옥씨가 추가 지정을 받으면서 현재에는 문정옥 보유자와 방연옥 보유자 2인이 지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문정옥 보유자는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방연옥 보유자가 한산모시 기능보유자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방연옥 보유자가 모시직조를 시작한 것은 80년 34세 되던 때로 다른 생산자에 비해 비교적 늦게 모시직조를 시작했다. 당시 문정옥 보유자가 전 수학생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방연옥씨는 그 아래에서 모시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고 그저

¹²² 한산모시조합에서는 규격만 검사하고 가격은 거간이 결정하는 형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진다.

어려운 생활을 보충하고 자녀교육비라도 벌어들임 심정으로 모시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짜고 삼는 일이 서툴러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도 많이 들었고, 건조한 날에 모시가 끊어지면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사일, 집안일 모두 해가면서 모시일을 해야 하는 데다가 하루 종일 베틀에 앉아 한쪽 발만 써서¹²³ 육체적 고통도 심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명이 모여 앉아 짜기, 삼기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시름을 덜 수도 있었다. 요새 들어서는 모시생산자가 감소하면서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방연옥 씨 자신도 보유자로 지정되면서부터는 한산모시관의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이들과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한다.

공방에서 그녀는 모시 생산작업을 시연하고 방문객들에게 설명도 해주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필모시 생산자들처럼 보유자도 작업 전반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곳을 사다가 개량베틀로 짜는 작업만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작업을 할 줄은 알지만 짜기, 삼기 작업은 직접 하지 않는다.

현재 방연옥 보유자 하에는 모두 7명(조교 2명, 이수자 4명, 전수학생 1명)이 한산모시생산기술을 전수받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산모시의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전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베틀을 이용한 직조는 이미 잊혀져가고 있어 전통 생산기술이 완전히 보존되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무형문화재 보유가 해당분야의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조와 관련해 여성들 사이에 공유되고 향유된 다양한 전통문화의 전승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나상덕, 서천군 한산면, 72세)

나상덕 보유자는 1973년 한산모시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부터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31년간 활동하고 있다. 나상덕 보

¹²³ 개량베틀과 달리 전통베틀에서는 한쪽 발을 사용한다.

유자가 처음 모시일을 시작한 것은 18살 때부터로 이모가 모시 짜는 것을 보고 시작했다. 당시 일대에서는 미혼, 기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모시일을 했으며 나 보유자 역시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모시를 짠으며 그녀의 딸(현재 40세) 역시 어머니 등에서부터 모시를 보고 자라 17살때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어머니의 후계자 역할을 맡고 있다.

방연옥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나상덕 보유자는 한산모시관에 있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객으로부터 주문도 받고 필모시나 모시기성복도 판매하고 있어 시장에서 판매해야 하는 일반 생산자들보다는 판로가 다양하고 수입도 좋은 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한산모시 생산자들은 선대의 여성들로부터 모시생산기술을 습득하여 평생 동안 모시를 삶의 일부로 삼아왔으며 가구경제의 주축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모시에는 평생을 모시와 함께 해온 여성들의 땀과 애환이 서려 있으며, 그만큼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풍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생산자들에게 있어 모시는 생계수단 내지 수입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의미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시를 생산하는 자신도 문화유산을 생산, 계승해온 주체라기보다는 제조기술에 능통한 기술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여성생산자들이 모시와 모시생산자로서 자신에 대해 부여하는 소극적인 가치는 모시와 모시생산자에 대한 주위의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1) 지방자치단체

한산모시와 관련해 가장 현저한 역할을 하는 곳은 서천군청으로 특히 경

제진흥과와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서천군청은 모시의 수요 감소와 생산자 노령화, 중국모시의 시장 잠식 등으로 인한 한산모시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 직물 이외의 상품 등을 개발하여 수요를 진작시키고 판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시도되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한동안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2003년부터 서천군 경제진흥과에서 지역특산물 차원에서 모시산업 진흥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높은 가격에 비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전통모시의 한계를 넘어 값싸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입으로 짜고 무릎에 비벼 삼는 대신에 기계로 실을 만들어 필모시와 이를 이용한 의복과 침구류 이외에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화 모시 작업이 추진 중인데, 현재에는 시범적으로 모시실을 만들어 양말 등의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계로 만든 모시실의 품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시제품의 색상과 품질도 문제가 있어 향후에도 3년 정도의 시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험이 성공한다고 해도 시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우선 기계설비를 갖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시풀 생산면적이 현재의 100배 정도로 증가해야 한다. 또한 기계화모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색상도 너무 단순하고 품목도 양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 모시의 성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천군에서는 이 부분에서 앞선 일본 니이가타현을 벤치마킹하여 한산모시 기계화 직영사업, 한산모시 종근 지원사업, 전통 천연염색 강좌 등을 계획 중이다.

기계화 이외에 모시를 활용한 각종 기념품 개발도 한산모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서천군에서는 매년 공예품 대전을 열

어 한지, 고무찰흙, 짚풀 등을 이용한 기념품과 함께 한산모시를 활용한 공예품을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참여율도 낮고 출품작의 디자인도 다양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 상품으로 자리 잡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산모시가 특화되지도 못한 상태여서 새로운 모시상품개발에 별 다른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천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의복재료로만 사용되던 모시를 식품이나 화장품 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해왔다. 한산 일대를 비롯해 모시풀이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모시잎을 넣어 송편 등을 만들었던 점에 착안해, 냉면이나 국수, 비타민, 약용주, 화장품 등을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쳤다.¹²⁴ 이외에도 2003년에 수립한 [서천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전통 모시생산의 한계를 넘어 모시산업을 첨단화하고 이 지역을 모시생산 인프라와 판매망, 전통문화 체험과 관광 등의 종합기능을 가진 모시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¹²⁵

(2) 한산모시관

서천군청에서는 한산모시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한편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한산모시를 계승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작업은 군청내 문화관광과 모시진흥담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모시진흥담당은 한산모시관을 관할하면서 전통모시의 우수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 자리 잡은 한산모시관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산모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자, 한산모

¹²⁴ 아직 식품 인가를 받지 않아 실용화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¹²⁵ 계획에는 모시가격 결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모시의 기계적 검사에 의한 표준화 작업, 모시산업 지원센터 등이 계획 중이며, 모시인력 양성을 위한 모시 스쿨 설립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리적 표시등록을 통해 한산모시를 브랜드화 하여 전통모시를 세계시장을 향한 고급 명품으로 키워내려는 포부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시설로서 모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모시 생산도구와 유물 전시, 모시 생산모습을 시연하는 일종의 박물관 기능을 지니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함).

이밖에 모시 생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길쌈놀이를 전승하기 위한 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한산모시관에 위치해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요 직조생산지역에서는 여성들 사이에 길쌈과 관련된 공동놀이 전통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1982년 전국 민속경연대회 출전을 위해 충남 지역 대학교수와 국악원장 등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가배길쌈경연대회를 모티브로 한 저산팔읍 길쌈놀이를 연출했다. 이후 각종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길쌈놀이는 지역의 독특한 공적 연행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1991년에는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구성된 서천팔읍 길쌈놀이 보존위원회는 120여명이 참가하는 길쌈놀이를 훈련하여 전국 민속경연대회와 매년 5월에 열리는 한산모시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3) 한산모시조합

현재 한산모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은 서천군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한산모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로는 한산모시조합을 들 수 있는데, 생산자와 상인들이 가입해 있는 조합이기면서도 시장 거래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시의 규격을 인증하는 정도로 모시 생산과 유통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다. 사업 및 활동 현황

현재 서천군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를 증진, 홍보하는데 관심을 두고 한산모시관에서 상설전시를 하는가 하면 매년 5월에는 한산모시축제를 개최하고 이외에 국제교류, 특히 일본생산자와의 교류활동도 펼치고 있다.

(1) 전시

한산모시관에서는 전수교육관과 전통공방, 토속관, 양반가 안채, 민가 등에서 모시와 전통복식에 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전수교육관

이 가운데, 모시관의 핵심은 지상 1층, 지하 1층의 전수교육관으로 지하 1층의 제1전시실에는 한국복식사와 모시의 역사, 한산모시의 쓰임새, 한산모시의 우수성, 현대의 모시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판넬이 설치되어 있어 주로 모시에 대한 역사기록을 소개하고 여름철 자연섬유, 건강섬유로서 모시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시 일반이나 한산모시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삼국사기, 택리지, 계림유사,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 등의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공간에는 모시로 만든 각종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벽면으로는 모시 한복을 입고 있는 모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밖에 전수관 지하에는 모시시연장이 마련되어 1-4명 가량의 여성노인들이 모시생산공정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모시짜기와 삼기작업이 이루어지며 그 옆으로는 개량베틀 3대를 놓고 때에 따라 모시짜기를 하기도 하여 공정별로 전문화된 현재의 생산구조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이외에 실제 공정에서는 날기와 매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수관 1층에는 관리 사무실과 제 2전시실, 전시 및 판매장이 위치해 있는데, 제2전시실에서는 2004년 5월 제 15회 한산모시문화제를 맞아 열렸던 모시패션 디자인 공모전에 응모했던 작품 포트폴리오와 시상작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 일 모시 교류’라는 명칭으로 일본 소화촌의 가라무시 생산자들이 모시관 방문을 기념해 기증한 모시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한쪽으로 개량베틀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전시실 중앙으로는 판매용 필모시와 모시웃, 모시 머리핀, 주머니, 핸드폰 거리 등의 기념품 등이 담긴 진열장이 놓여있다. 제2전시실 옆의 전시 및 판매장에는 모시로 만든 옷에서부터 보료, 쿠션, 수의

등이 가격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 전통공방과 토속관

양반가옥의 대청마루와 부엌을 본따 만든 전통공방은 원래 모시짜기 시연장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바닥이 차고 바람이 불어 작업이 어려운 까닭에 시연장이 전수교육관 지하로 이전한 후 대청마루에는 태모시를 걸어놓고 모시날기와 매기 도구가 진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에 진열된 것만으로는 모시 작업공정을 모르는 이들이 날기와 매기작업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 더욱이 대청마루 옆에 위치한 부엌에서는 원래 매기 작업이 시연되었지만, 지금은 모시생산과 관계없는 가마니 짜는 기계나 훔대, 망태기, 두레박, 되, 명석, 풍부, 키, 가래, 풍구, 가래 등 농가에서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이 무차별적으로 쌓여 있어 모시관의 본래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전용되었다.

부엌 옆으로 자리하고 있는 토속관에는 평지보다 낮게 판 곳에 베틀을 놓고 직조를 하는 여인상이 놓여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땅을 파고 그곳에서 작업을 했던 전통적인 모시길쌈 현장을 재현한 것이다. 예전에는 집 한편에 이러한 장소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마루 아래에 베틀이 들어갈 정도로 굴을 파기도 했는데, 일대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움집이라고 한다. 가습기의 보급으로 방문을 밀봉하고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 그만큼 현재의 토속관은 전통적인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어 방문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안채와 민가

토속관 위와 옆으로는 양반가옥의 안채와 민가 두 채가 위치해 있는데, 이 가운데 안채와 민가 한 채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공방이다. 안채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방연옥씨의 공방으로 한 칸의 방에서는

개량 베틀 2대가 놓고 보유자가 모시를 짜고 있다. 마루에는 보유자가 직접 짠 필모시와 이것으로 만든 의류 등이 판매용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마루 앞쪽으로는 모시로 만든 브로치나 머리핀 등의 기념품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 한쪽 민가에 자리잡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나상덕씨 역시 방에서 모시를 짜면서 필모시, 완성품 의류도 팔고 있으며 기념품도 갖추어 놓았다. 이외에 또 다른 민가는 모시 양장점으로 방문객들이 필모시를 가지고 와 옷을 맞춤 수도 있고 기성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한산모시관은 모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모시관의 전시는 일부 모시제조공정과 모시로 만든 의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모시생산기술은 시연과 문자를 동원한 설명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공방에서도 이러한 점이 재확인된다. 이에 비해 모시의 문화적 의미나 특히 여성생산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전수교육관에 걸려 있는 여러 개의 판넬의 내용 중에는 오직 “그 섬세함의 이면에는 한산부인들의 숨씨가 있었다”는 구절에서만 생산자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며, 한산모시의 의미에 대해서도 역사적 장구함과 여름 옷감으로서의 장점 등 기능적 측면만이 부각될 뿐 생산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모시생산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한산모시관을 통해서 문화유산, 특히 여성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유산으로서의 면모를 경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 한산모시축제

한산모시관과 함께 매년 5월 초 열리는 한산모시축제는 일반인들이 한산모시의 면모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1990년 ‘저산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서천군이 주관하는 군민 체육행사 수준에 불과했지만, 점차 한산모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으며 특히 1999년 전국 18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한산모시축제로 명

칭을 바꾸고 국제적인 관광행사를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도 대폭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육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저산문화제 원년부터 계속되어 온 모시아가씨선발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모시패션쇼와 모시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모시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한산모시축제는 모시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산모시와 관련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모시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한산모시와 관련되어 있다. 생산자들이 직접 모시길쌈을 시현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짜볼 수 있는 코너를 개설하는가 하면 한산모시로 만든 의상패션쇼와 한산모시 디자인공모전 결선도 열린다. 뿐만 아니라, 모시생산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왔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동놀이를 재연한 ‘저산팔읍 길쌈놀이’ 시연행사도 있으며 일본의 모시생산자들의 시연코너도 있다. 이외에 모시 축제의 개막을 기념하는 한산모시제도 열리고 있으며, 옷과 가방, 기념품 등의 모시제품 전시-판매코너도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 열린 제15회 축제에서는 모시어린이 선발대회와 우리가족 모시 옷 맵시자랑, 모시꽃 만들기, 모시풀벚기대회, 모시노끈꼬기대회, 기계화 모시 특별전시, 모시음식 판매등이 새롭게 포함되기도 했다.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특히 모시옷 패션쇼와 저산팔읍 길쌈놀이는 기간 중 매일 주요 시간대에 진행되며 길쌈 시연과 체험 코너는 행사장에서 상시로 열리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시옷 패션쇼

건양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유관순 교수가 디자인한 모시옷 패션쇼로 현대 대중적 감각에 맞는 모시옷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저산팔읍 길쌈놀이

1982년 고안된 길쌈놀이가 해마다 축제에서 시연되고 있다. 놀이는 서천군과 부여군 일대의 8개 지역 부녀자 120여명이 지역별로 팀을 이루어

길쌈공정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가장 정교하고 많은 모시를 짠 지역이 승리를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승자를 축하하며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길쌈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놀이를 전달하기 보다는 길쌈을 모티브로 한 연행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모시길쌈체험

행사장 곳곳에는 모시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모시로 태모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직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길쌈의 전체 공정을 시연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한 두명의 생산자들이 해당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산모시축제는 주요 문화관광축제이자 모시에 관한 국내 유일의 축제로서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시와 무관한 프로그램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군민축제로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모시에 관한 축제 프로그램 역시 내용적 면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 모시의 면모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일례로 모시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모시제는 일반적인 산신제일 뿐 모시신이나 모시생산자와의 관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축제의 핵심프로그램인 모시패션쇼나 공모전 등도 문화유산 내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모시생산의 의미 보다는 현대적 대중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시와 함께 해온 생산자들과는 무관하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한산모시관과 마찬가지로 축제에서도 모시생산은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으로서 보다는 공정별로 시연되는 단순한 생산기술로 표상될 뿐이다. 이외에 축제에서 행해지는 길쌈놀이 역시 생산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창조물로서 모시 생산공정을 다시 한번 보여줄 뿐, 모시의 문화적 의미나 모시생산자들의 애환을 내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모시축제라고는 하지만 모시생산과 관련해서는 생산공정을 반복해서 재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그 외에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모시풀 벗기기, 모시노끈 꼬기, 맵시자랑과 같이 모시와 오직 피상적 관련만을 지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에서는 여성생산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시를 생산해왔고 그 속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애환을 경험했는지, 그것은 역사를 거쳐 어떻게 전해내려 왔는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모시생산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3) 해외교류

전통모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생산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에까지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일본의 생산자들은 한산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일본 소화촌의 가라무시 생산자들은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한산모시 축제에 정기적으로 초대되기도 한다. 이외에 올해에는 미야자키현에 위치한 시민단체인 아시아 환경보존센터에서 저마기술자 보존협회 회원 20명과 함께 한산의 모시생산자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의 생산자가 방문하면 한산모시관을 중심으로 생산자들이 조직되어 교류활동을 펼치는데, 서로 공정별 작업을 펼쳐 보여 서로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가 된다. 또한 일본 소화촌의 가라무시 생산자들은 한산모시축제에서 한산지역과는 다른 그곳의 독특한 생산기술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외에, 한산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모시생산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주로 서천군청 담당자들이 일본에서는 앞선 기술과 생산-유통구조를 둘러보고 중국에서는 시장상황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우리 생산자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그곳 생산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한산모시의 해외교류는 주로 일본 특정지역과의 정기 교류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일본 NGO 등에서 생산자교류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류는 주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각각의 제조공정을 시연하여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 머물러 있는 반면 각국 생산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유산 내지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 진정한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천군에서는 전시관을 설립하고 축제를 개최하며, 해외 생산자와의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사업과 활동에서는 분업화된 생산구조에 따라 각 공정별 제조기술을 반복적으로 시연하는 수준으로 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가 지니는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모시의 문화적 의미는 우선적으로 모시와 함께 삶을 살아온 생산자들에게서 흘러나오지만, 현재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점에도 접근하기 힘들다.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문화유산이며, 따라서 여성문화적 차원에서 모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 피상적 차원에서 모시의 역사성과 우수함이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나 축제, 교류활동에서 정작 여성생산자들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모시관련 사업이나 행사와 무관하며 관심도 없으며, 단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모시관 내에 자체 작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모시 작업을 시연하는 정도이며 이외에 몇몇 생산자들이 전시나 축제, 교류활동 등에서 시연을 하면서 작은 기념품을 파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결국 모시와 관련된 사업과 행사에서 생산자들은 평생 동안 모시와 함께 해오면서 모시의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자로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가. 하치조지마(八丈島)의 혼바 키하치조(本場 黃八丈)

하치조지마(八丈島)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해상 약 290 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에도시대에 들어서는 “새도 지나지 않는” 외떨어진 섬으로 정치범 등이 유배되던 곳이었다.¹²⁶ 근대에 들어서 일본이 산업화의 정점에 이른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는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며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던 곳이다. 섬의 이름은 이 섬에서 생산되고 있는 견직물인 혼바 키하치조(本場 黃八丈: 이하 키하치조로 부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¹²⁷

견직물인 키하치조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공납품으로 바쳐졌다. 처음에는 흰색의 아무런 무늬가 없는 직물이었다가, 후에 에도막부에서 패턴 견본이 제시되어 그 패턴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¹²⁸ 역사적으로 키하치조를 둘러싼 권력싸움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고 있는데, 1440년 카나가와(神奈)의 영주가 하치조지마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던 미우라(三浦)·호조(北條)와의 싸움이다. 이 세 성의 싸움은 1515년 호조씨가 승리를 거두며 끝난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키하치조는 1977년 10월 14일 경제산업장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동경도 지정 문화재로서도 선정되어 동경 도청사 전통상품전시실 및 일본 각지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다.

키하치조는 하치조지마에 자생하는 식물만을 사용하여 황색, 갈색, 흑색으로 실을 염색한 다음 타카하타 직기(高機)에서 손으로 직접 짜는 직물이

¹²⁶ 1604년에서 메이지시대에 이르기까지 토쿠가와 막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때 265년간 1,900명의 정치범들이 유배된 곳이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¹²⁷ 혼바 노리나가(本居宣長)가 『하치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은 하치조 비단에서 생겨났다(八丈という島の名はかの八丈絹より出ずる)』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

¹²⁸ 『영감장(永鑑帳)』에 이 패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영감장(永鑑帳)』은 하치조지마 역사민속자료관(1972년 12월 개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다. 하치조의 섬사람들은 키하치조가 3대에 걸쳐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대개 공정은 3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탄산소다를 넣어 끓인 물에 생사를 넣어 3시간 정도 삶은 후 물로 행구는 정련(精練)의 과정(이 과정에서 생사의 질이 결정된다고 한다), 염색, 그리고 여러 패턴에 따라 짜는 단계¹²⁹로서 완성된다.

과거에는 양잠을 해서 실을 뽑고, 염색하고 직물을 짜는 모든 공정이 하치조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 장년층의 섬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집에서 양잠을 도왔던 일이나, 자신의 어머니나 이웃 아주머니들이 직기 앞에 앉아 키하치조를 짜던 기억을 쉽게 떠올리고 있다.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세자키(伊勢崎 明俊)씨는 1942년 생으로 27세 때부터 염색 일을 했는데,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늘 들리던 직기소리가 나지 않는 날은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다.¹³⁰

하지만, 근래에 실은 군마현(群馬縣)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 섬에 양잠하는 곳은 한군데도 남아있지 않다.¹³¹ 현재 이 섬에 실을 염색하는 곳이 3곳 정도가 있으며, 직물은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방에서 일부가 생산되고 대부분은 키하치조 직물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해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즉, 키하치조 생산의 여러 공정과정 중, 염색작업과 직물 공정이 이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직물 공정의 노동력은 오리코(織り子)라 불리는 여성들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치조지마의 공방 중 <메유공방>¹³²의 경

¹²⁹ 먼저 무늬를 정한 후 여러 방법에 의해 짠다. 짜는 방법에는 평직(씨실과 날실을 하나 씩 교차하여 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보다 복잡한 패턴을 보여주는 능직(綾織) 사문직(斜文織) 등이 있다.

¹³⁰ www.kougei.or.jp/crafts/0106/d0106-5.html.

¹³¹ 정보제공자인 하치조지마 관광산업과장에 따르면, 2차대전 전 이전까지도 양잠은 활발히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¹³² 1986년 동경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술보지자로 선정된 아마모토 야오코(山下八百子)의 어머니 메유에 의해 1918년 4월 20일에 문을 열었다. 이후 아마모토 야오코에 의해 공방이 운영되고 있다가, 야오코의 딸인 아마모토 후미코(山下美子, 58세)가 아마모토 호마레(山下響, 63세)와 결혼을 하며 사위인 호마레씨가 공방과 키하치조 기술의 후계자가 되었다. 후미코와 호마레씨는 아들을 세 명 두고 있는데 이중 둘째 아들인 아마모토 유우가 공방을 전수받을 예정으로

우를 보면, 6명의 오리코가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여성이다. 단 한 명만이 직물 짜기 경력이 5개월이고, 나머지는 각각 6년, 9년, 12년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직기를 구입하여 집에서 짤 여건이 되지 않거나, 또는 개인적 이유로 이들은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공방의 고용인으로서 직물을 짜고 있는데, 시작한 계기는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단지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해서”(9년 경력 여성), 또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추천받아서”(6년 경력 여성)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어쨌든 “197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잘 팔렸고, 약 10년 전부터 (1994년 경) 판매가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생산과 유통이 괜찮은” (아마모토 호마레 인터뷰) 키하치조는 공방에 고용된 이들 오리코라 불리는 여성들의 손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키하치조 직물조합에는 공방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각자의 집에 직기를 사들여 놓고 키하치조를 짜고 있다. 키하치조 직물 협동조합 이사장인 사토 미즈리(佐藤光利)¹³³에 의하면, 조합원 여성들은 자기 돈으로 실을 사서 집에 가지고 가서 키하치조를 짜고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오면 조합은 일정한 길이에 따라 책정된 돈을 여성들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¹³⁴ “현재는 80명 조합원이 있는데, 늘 100명을 넘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현재 아버지로부터 키하치조 기술과 공방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¹³³ 조합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관광산업 붐의 결과 당시 호텔 등 기념품 상점에 납품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조합 이사장은 교대로 뽑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토씨는 현재 30년째 이사장 일을 하고 있다.

¹³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키하치조를 짜고 있는 아사누마 키미코(淺沼君子, 74세, 경력 50년 째)에 따르면 한 단(13m)에 12만 엔을 받는다고 한다.

<표 IV-2> 키하치조 식물조합의 추이

연도	조합원수	매상액 (천엔)	1인당 평균액 (천엔)
1983	107	126,692	1184
1984	101	108,262	1072
1985	103	127,808	1241
1986	99	126,816	1281
1987	90	115,081	1279
1988	81	92,785	1145
1989	79	126,348	1599
1990	78	128,806	1651
1991	78	121,627	1559
1992	79	105,614	1337
1993	78	103,620	1328
1994	71	77,149	1087
1995	67	76,644	1144
1996	65	85,274	1312
1997	63	97,351	1545
1998	62	101,951	1644
1999	61	101,010	1656
2000	61	101,198	1659
2001	63	92,997	1476
2002	66	93,545	1417

하나의 직물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짜는 공정은 막부에 고용된 일부 직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들이었다. 이 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옛날에 이 섬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좋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직기에 앉아 직물을 짜는 노동은 다른 공정의 일과는 달리, 고도의 집중력과 지구력이 필요한 작업이고, 또한 눈과 발과 손만이 움직일 뿐 몸의 다른 부분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고행에 가까운 노동이다. 즉, 염색에 쓸 풀을 돌보거나, 염색을 하는 작업은 몸의 전체를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정신과 힘을 쓰는 일이

지만, 직물을 짜는 일은 사람이 거의 기계의 일부가 되어 장시간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힘든 노동이다.

하치조지마 산업관광과 주간인 미시마 켄지(三島憲治)씨 역시, “직물을 짜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라 힘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혼을 쏟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므로 특히 지구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메유공방의 키하치조 기술 보유자인 야마모토 야오코(山下八百子)씨는 “남자들은 놀고만 있었지... 게으름장이들이야... 들로 산으로 풀을 벤다고 나가고 뭐한다고 돌아다니고만 있었어. 나는 종일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와 같이 진술하며, 하나의 직물이 생산되기 까지 남성도 함께 풀을 돌보거나 염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남자는 논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미시마 켄지씨의 처형인 타시로 타카코씨(59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 오쿠야마 타츠코씨(88세)가 키하치조를 짜던 기억을 떠올리며 “키하치조는 아름답지만 난 그때부터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진 IV-1> 하치조지마의 전통장인 오쿠야마 타츠코씨가 짠 키하치조 키모노들



<메유공방>의 야오코씨는 키하치조 짜는 일은 힘든 일이고, 더구나 ‘게으른 남성’인 사위에게 공방을 계승하고는 키하치조 앞날에 대한 걱정을 그치지 않았다. “(사위는) 오리코들만 더 고용해서 일만 크게 벌이려고 하

는데, 내가 반대해요.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부끄러운 것을 만들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현재 키하치조는 공방에 고용된 소수의 여성들과,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는 섬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의해 여전히 전국적 수요에 맞추어 무리 없이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 대부분의 조합원 여성이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더 이상 힘든 오리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 속에 키하치조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절망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치조지마 고등학교에서는 향토문화 산업에 관한 수업으로 3학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키하치조 짜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동경도에서 젊은 후계자 양성을 위해 전통공예산업단체 청년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조합원 중 5명이 이 단체에 소속되어 키하치조의 기술 계승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단지 전통 계승을 위해 힘든 키하치조 짜기라는 노동을 견디고 있는 수동적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키하치조 짜기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외지인 군마현 출신의 여성은(30대 중반) 하치조지마에 이주해와서 약 25만 엔의 중고직기를 구입하여 키하치조 짜는 기술을 배우고 조합원이 되어 직물 짜는 일을 생업으로 하여 살고 있다. 그녀는 “열심히 하면 한 달에 두 단 정도 짜고, 보통 한 단 정도만 짜도, 집 렌트비, 식비 등 풍족하지 않지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자신의 독립적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16회 동경도 전통공예 후계자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사진 IV-2> 군마현에서 이주해와 키하치조를 짜고 있는 여성



이렇듯, 하치조지마의 오리코들은 과거에는 “섬의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의 중심”(www.kougei.or.jp/crafts/0106/d0106-5.html)이었다가, 이제는 자신의 독립적 삶을 위한 선택으로서 키하치조 직물 짜기를 선택하며 하치조지마의 전통직물인 키하치조의 전승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산업화된 세계에서 여성의 위상: 토오카마치(十日町)의 키모노산업

토오카마치시는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니이카타현(新潟縣) 소재 시이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카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雪國』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며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현재 이 지역은 눈 축제, 스키 및 온천 등으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¹³⁵ 과거 토오카마치시와 그 주변의 오지야시(小川谷市), 룩카마치시(六日町市), 시오자와시(塩澤市) 일대는 마직물인 에치고조후(越後上布)·오지야치지미(小川谷縮)의 생산지로 유명하였는데, 이 두 직물은 현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역시 오랜 역사를 갖는 마직물인 토오카마치의 아카시치지미(明石縮), 토오카마치 카스리(十日町紺) 등도 전통 공예품으로 국가의 지정을 받고 있다.

토오카마치시는 전통적으로는 치지미(마직물) 생산지였고, 하치조지마의 경우처럼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여성은 치지미 짜기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토오카마치시 박물관 문화재과 촉탁 문화재 조사연구원인 아베 료헤이((阿部恭平, 50대 후반)씨는, “토오카마치는 연중 치지미를 짜던 마을이었다. 농업지역이지만 농사는 거의 남자가 하고 여자는 전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치지미만 짰다. 실을 고르기 위해 손톱을 기르고 있었고,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얼굴이 하얗고 병자 같아 마치 귀신같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¹³⁵ 토오카마치 시역소(市役所) 관광교류과 관광계장인 무라이마 히데오(村山秀雄)에 따르면, 매해 2월 세 번째 주 금·토·일에 열리는 눈 축제에는 약 35만 명의 관광객이 이 마을을 찾아온다고 한다.

이 지역의 환경적 조건은 치지미 짜기에 아주 적합한 곳인데, 그것은 베는 속성장 건조하면 실이 끊어지기 쉬우므로 많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지역은 연간 4~5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11월에 첫눈이 내리면 이듬해 3월까지 눈이 녹지 않아 연평균 습도가 98%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도 치지미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나, 규모와 생산량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된 상태이고, 아카시 치지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견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견직물은 교토(京都)의 유명한 니시진(西陣)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우수한 질을 자랑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지역의 전통 직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유젠(友禪: 견직물 바탕에 여러 가지 도안을 그려 염색한 직물)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이제 60대 전후인 이 지역 출신의 아베 교헤이씨나, 무라야마 히데오(村山秀雄: 토오카마치 시 관광공류과 관광계장)씨는 모두 어린 시절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여성 오리코들이 숙식을 하며 유젠 일을 하고 있던 모습”이나, “양잠 일을 돕기 위해 뽕잎을 주던 일” 등을 기억하고 있다.

토오카마치시는 이 지역의 특산 직물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어서 곳곳에 <키모노 역사관>, <키모노 박물관>, <키모노노 에마키관> 등을 설립해 토오카마치 직물의 역사와 전개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토오카마치 직물을 보존하는 지역진흥회”등에서도 지역의 직물 홍보 및 유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역소(市役所)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의 관광협회회장인 타무라 교코(田村恭子)¹³⁶씨는 여름 기모노인 스이샤(粹紗) 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늘 공식적 장소나 모임에서 토오카마치의 키모노 입기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타무라 교코씨는 또한 토오카마치의 복식 학교 교장을 겸임하며 현재 10년째 중국 회사하고 계약해서 토오카마치 전통기모노 짜는 방식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토오카마치시에서의 지역 전통 키모노 보존과 보급에 대한 열정은 이곳 직물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런 만큼 수작업을 하는 곳은 아주 소수이고 많은 부분이 분업화·기업화되어 있다. 토오카마치시의 키모노는 “○

¹³⁶ 관광산업협회 토오카마치 복식전문학교 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다.

○주식회사” 또는 “○○공방”이라 이름 붙은 소규모 기업에서 기계화 된 직기로 짠 직물을 공급받아 다양한 디자인, 색, 패턴으로 현대의 요구에 맞는 키모노로 재탄생되고 있었다. 하치조지마의 키하치조와 같이 에도시대 전통 그대로의 패턴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기초한 새로운 토오카마치의 키모노를 생산하며 과거 직물 생산지로서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수작업으로 직물을 짜는 여성은 없었으며, 실과 천을 생산하는 곳, 키모노를 디자인하여 생산하는 곳 등 모두가 분업화되었고, 각 분업화된 공정 가운데 여성 고용인도 남성 고용인도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누가 직물을 짜느냐는 질문에 모두 “기계가 짠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단 <키모노노 에카키관>을 운영하고 있는 요시자와 직물 주식회사(吉澤織物株式會社)의 경우 60대 할머니 세 명이 집에서 반자동식 직기로 아시카가(明石)치지마의 원단을 짜서 공급해주고 있다.¹³⁷

이곳에서 직물에 관련된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은 키모노 박물관이나 전시실의 직원 또는 키모노 가게의 점원 등으로 생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산업화 속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단순 고용직 여성으로서의 모습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화된 키모노 시장 안에서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토오카마치의 키모노뿐 아니라 일본 전 지역의 키모노를 취급하는 <키모노부레인>의 오카모토 마유미(岡元眞弓) 부사장은 일본의 전통문화 유산인 키모노의 현대적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과 매출 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기업¹³⁸의 창립자는 오카모토 마유미씨의 남편인

¹³⁷ 요시자와 직물 주식회사 총지배인인 요시자와 마사토시(吉澤政敏)씨에 의하면 반자동기로 한 단을 짜는 데는 반나절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이는 하치조지마의 키하치조의 경우 한 단을 짜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과 대비된다.

¹³⁸ <키모노 브레인>은 1976년(昭和 51년) 10월에 창설되어, 연간 23.2억 엔의 매출 올리고 있다. 1983년에 현재 이 기업의 주요 사업이 된 키모노 에프터 케어 사업부를 창설하였는데, 키모노 에프터 케어란 키모노의 오염방지를 위해 특수 가공 처리를 하거나, 키모노 수선, 그리고 키모노 리사이클 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현재 종업원 수는 255명이며, 이 중 신체장애자가 23명 고용되

오카모토 마츠오(岡元松男)씨이다. 오카모토 마츠오씨는 1976년 창업하여 처음에는 키모노 생산만을 주력하며 초기에는 약 600억 엔의 매출을 올리며 급신장으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키모노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판매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오일쇼크(1974년) 이후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사장인 남편이 병이 났을 때, 키모노 에프터 케어 사업 구상을 하여 쓰러져 가던 회사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오카모토 마유미씨였다.

오카모토 마유미씨 이외에도 이 회사의 사원 중에는 여성이 60%로 단순 작업 부분만이 아니라 전문성 높은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 부장직에서 1명, 차장직에 3명, 과장직에 3명의 여성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오카모토 마유미씨는 아직 육아와 가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일본의 여성들이 “회사에서 책임 있는 직에 오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능력 있는 여성이 책임직에서 일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 기업에는 능력있는 여성들의 취업이 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04) 대학 졸업생 여학생도 11명 취업하였다.

물론 그녀가 여성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 “너무나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10년 전에 회사에서 부사장이란 타이틀로 회사를 위해 사장인 남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사원들이 사모님(おくさん)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사원들이 자신을 “사모님처럼 사적으로 대할 때는 아주 분했다”고 지난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현재 <키모노 브레인>의 사장인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서 대외협력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공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모든 실제적인 일은 오카모토 마유미씨가 담당하고 있다. 분업화되고 기계화된 산업 구조 속에 직물 생산자로서의 여성 노동은 드러나고 있지

어 디자인 수정, 기계 가공, 봉제, 출하 보조 등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키모노 브레인>은 1995년 장애자 고용 최장기간 고용으로 인정받아 노동부 장관상 수상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키모노브레인>은 전국적으로 키모노 소매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키모노 관련 산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않지만, 경영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여성 노동이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계승 사업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변자로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다. 여성전통공예사의 탄생: 도쿄도(東京都) 여성장인들의 전시회

일본의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문화를 발굴해내고 박물관, 홍보관, 전승관 등을 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축제나 전시를 기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후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가운데, 특히 전통 공예품의 전시라고 하는 것은 전통 문화의 전승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전통 공예라고 하는 주제에서 무거움을 털어내고 친근감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도 전통공예의 전시는 있어왔지만, 최근 특징적인 것은 전시에 있어서 ‘젊은 직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⁹ 그리고 더욱 특징적인 것은 그 “젊은 직인” 가운데 전통적으로 남성을 상징하던 ‘장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여성 장인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공예나 미술관련 과목을 전공하거나, 또는 아버지나 남편의 일을 돕다가 전통 공예의 세계와 인연을 맺고, 이후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을 스스로 연마하여 전통적 기법이 토대가 된 가운데 자신이 창조해 낸 도안과 스타일에 따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여성 장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이고 있다. 일본 현지 조사 시 도쿄에서 두 개의 여성장인 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삶을 채색하는 여성 장인전(暮らしを彩る匠の女たち): 여성 전통공예사 10인의 ‘기술전승’>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전 미

¹³⁹ 필자가 현지조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제7회 “젊은 직인들의 공예전(若手工藝職人展)”이 2004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동경 케이오백화점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래의 여성공예사전(めざせ 未来の女性工藝士展)이었다.

이 두 전시가 일본여성 장인들의 첫 전시는 아니고, 이미 후쿠오카시(福岡市)에서 <제1회 여성전통 공예사전>¹⁴⁰이 있었고, 이 전시 이전인 2000년 5월에 이미 <일본 전통 공예사회> 안에 ‘여성부회’가 탄생하며, 전통공예 세계에서 여성 장인 역할의 비중에 대한 인식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전통 공예사회>는 원래 ‘도자기부회’, ‘염직부회’, ‘불단불구부회’ 등 세 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성들만의 세계로 인식되어 온 전통공예사회에서 여성부회 탄생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¹⁴¹

<제1회 여성전통 공예사전>에 출품하고 있는 여성 장인과 그녀들의 작품에 대해 자신의 책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사토우 테츠로(佐藤徹郎, 2001)씨는 “전통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을 여행하던 중, 여행 중에 만난 여성 공예인들이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사토우 테츠로씨 인터뷰)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의 책에서 전통 공예사 세계의 현실과 <제1회 여성전통 공예사전>의 의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공예는 판매부진, 후계자 부재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 1974년 전통적 공예품 산업진흥법(전산법)이 성립된 이래 행정도 나름대로의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통산성(현 경제산업성) 안에 전통적 공예품 산업실(전산실)이 탄생하였다. 전산실이나 전산협회는 어지간히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개최식에서 후쿠오카 여성 부지사(稗田慶子)와 후쿠오카시 여성인사들이 출석하여 열렬한 응원 연설을 하였다. 출품한 18명의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감격적이었다. 많은 보도진이 그녀들을 둘러싸고 “왜 여성만으로 이런 전시를 기획했는가” 등 질문공세를 폈

¹⁴⁰ 2000년 9월 26일부터 후쿠오카시 <어크로스 후쿠오카 교류 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열렸다. 18명의 여성 공예인들 출품했으며 슬로건은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 간다(今日から明日へ繋ぐ)”였다.

¹⁴¹ 佐藤徹郎 (2001), p. 19.

다. 수세기 동안 전승을 담당한 사람은 남성이었다. 여성은 그 그늘에 가려 좀처럼 표면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주최자 대표 중 한 여성 전통공예사(伴和子)는 “직물 짜기와 염색 분야에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와 칠기 세계에서도 여성 공예사는 전통 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있지요. … 의식주를 둘러싼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이 좀 이상하지요. 물건을 만드는 우리들 여성도 이젠 자기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었다.¹⁴²

전통 공예의 전승과 보호에 있어 여성 장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던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전시도 열린 것이다. 먼저 <삶을 채색하는 여성 장인전(暮らしを彩る匠の女たち): 여성 전통공예사 10인의 기술전승>(이하 <삶을 채색하는>으로 칭함) 전시를 보면, 이 전시는 전통공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산노카이(讃の會)>의 주최로 도쿄 소재 ‘여성과 일의 미래관’에서 2004년 7월 27일에서 8월 1일까지 열렸다. 특별행사로써 7월 28일 공예사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으며, 전시 기간 중 일반인들이 여성 전통 공예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유젠(友禪)과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었다. 직물, 염색, 자수, 도자기, 칠기 등에 거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이 전시의 특징 중 하나가 ‘여성 장인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전통’(전시회 팸플릿)이었다.

‘여성과 일의 미래관’의 회장이자 ‘산노카이’ 회원인 여성변호사(渥美雅子)는 “여성과 일의 미래관에서 일하면서 여성의 힘의 대단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었다. 쉽지만은 않은 전통공예 세계에 활기찬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또한 여성의 힘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전통공예사들의 ‘장인의 정신’에 박수를 보낼과

¹⁴² 위의 책, pp. 17-18.

함께 다른 분야의 장인들의 기술 연대를 피하여 새로운 공예세계를 개척하길 바란다”(전시회 팸플렛)고 격려의 인사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일본전통 공예사 회장이자 산노카이의 고문(梅村晴峰) 역시, “염직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통공예는 여성 장인들의 활약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노력이 없이 전통공예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전시회 팸플렛)라고 하며 전통공예 세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과거에도 중요했으며,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산노카이 회장인 코구레 카츠요(小暮克代)는 “전통 공예사 수 (통산 장관 인정 국가자격)는 전국적으로 4,636이 있고, 그 중 513명이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다”(코구레 카츠요씨 인터뷰)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토우 테츠로(2001)의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전통 공예사 수 4,531명과 그 중 여성 472명이란 수치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전통 공예사 수의 전반적인 증가와 그 가운데 여성 공예사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음은, 일본 정부의 전통 공예사의 발굴과 후계자 양성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그 가운데 여성 장인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시에 출품한 전통 공예품과 여성 장인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표 IV-3> <삶을 채색하는 여성 장인전(暮らしを彩る匠の女たち): 여성 전통공예사 10인의 ‘기술전승’> 참가자

이름	출생년	출생지	전통 공예 품목
青木妙子	1950년생	佐賀縣	伊万里・有田焼(도자기)
上田環江	1946년생	東京	東京手描友禪(염색)
大河内美登里	1941년생	大阪	東京手描友禪(염색)
大下香苑	1947년생	北海道	山中漆器(칠기)
川本和代	1941년생	京都	京鹿の子絞り(염색)
下司喜三子	1937년생	京都	京繻(자수)
小玉紫泉	1952년생	大阪	西陳織(직물)
田中イサ子	1937년생	大島	本場大島紬(직물)
伴和子	1928년생	千葉縣	博多織(직물)
吉川千代子	1945년생	長崎縣	波佐見焼(도자기)

이상 10명의 출품자 중 직조나 염색, 자수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장인들은 모두 7명으로 전통 직물과 여성 장인 역할의 긴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도쿄테가키유젠(東京手描友禪)에 출품한 우에다(上田環江)씨는 1998년 남편과 함께 전통 공예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도쿄테가키 유젠 부분에서 최초로 부부 공동 전통 공예사 탄생을 기록하였다. 이후 그녀는 프랑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하며 일본 기모노의 세계를 전 세계로 넓히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우에다씨와 같은 품목에 출품하고 있는 오키와우치(大河内美登里)씨는 서양화가 지망생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있다가, 스승으로부터 권유받아 유젠의 세계와 인연을 맺고 직물 도안에 있어서 그림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교토 자수 장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수를 배운 게시 키미코(下司喜三子)씨, 23세 때 직물업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 오시마츠무기(本場大島紬)에 매료되어 직물을 짜기 시작한 타나가 이사코(田中イサ子)씨는 모두 각각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 전통 직물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반세기 가까이 한 가지 전통 공예의 세계에 종사하며 전통을 자신들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는데 성공함으로 현대의 여성 장인이라 불리는데 손색이 없었다. 특히 타나카씨의 경우는 “1999년 오시마츠무기 도안부문에 유일하게 전통공예사로 인정받아 전통의 기하학적 문양의 신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하카다오리(博多織)의 토모 카즈코(伴和子: 1928년생)씨나 가장 나이가 적은 니시진오리(西陳織)의 코다마 시센(小玉紫泉: 1952년생)씨는 모두 국내외에서 여성 장인으로서 활발한 활동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모 카즈코씨의 경우는 <일본전통 공예사회> 여성부회가 발족하고 초대 부회장으로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오다마씨의 경우는 1998년 니시진 대표로 프랑스 리옹에 가서 연수시찰을 하였는데, 그때 ‘리옹 풍’을 성공적으로 묘사하여 니시진오리 대회 특별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시회에서의 그녀의 작품은 실로 일본의 전통에 이국적 풍경이 녹아 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밖에 교시카노 코시보리(京鹿の子絞り) 부문의 카와모토 카즈요(川本和代)씨는 초등학교 때

부터 시보리 염색 기술을 익혀왔는데 직접 시연을 보여준 시보리 염색이란 천을 수 백 또는 수천 번 작게 잡아서 일일이 그 부분을 실로 감아 염료에 담근 후 그 실을 풀어 도안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노력이 드는 작업이었는데, 그녀는 이러한 작업을 50년 이상 해 오고 있는 명실공히 장인으로 자리매김 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삶을 채색하는> 전시가 50대 이상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장인들의 전시였다면 <도전 미래의 여성공예사전(めざせ 未来の女性工芸士展)>(이하 <도전 미래전>)으로 약칭함) 전시는 출품자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여성 장인의 세계에서 있어서 그 전통과 기술이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의 가장 특기할 사항은 젊은 여성 장인들의 전시란 사실 이전에 이 전시를 가능하게 했던 한 여기자 세키네 유코(關根由子)씨의 활약이었다.

<도전 미래전>을 개최한 ‘와쿠라시 쿠라브(和くらし・クラブ)’의 대표를 맡고 있는 코구레 카츠요(小暮克代)¹⁴³씨에 따르면, 가정 통신사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세키네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각지에 있는 여성 장인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취재 하였다. 그 결과는 『두 아이(ドウアイ)』라고 하는 잡지에 『여성 직인들(女の職人)』이라고 하는 특별 연재 컬럼을 마련하여 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글과 사진을 실었다. 전통과 여성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세키네씨는 전국 각지를 돌며 여성 장인들을 취재하는 한편, 2002년 4월부터는 전산협회 센타 연수실에서 ‘전통적 공예품 강좌’를 월 2회 개최하였다. 이 강좌는 2년 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강좌를 위해 모두 약 100명의 강사가 강의하였고, 강사는 공예사는 물론 잡지사 기자, 작가 등 전통적 공예품에 관심과 뜻을 두고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¹⁴⁴

¹⁴³ 코구레 카츠요씨는 앞서 소개된 <산노카이> 대표도 맡고 있다.

¹⁴⁴ 예를 들면, 2004년 제1기 강좌(5월 개최)는 “미래를 개척 한다”를 테마로 열렸으며, 공방과 산지견학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좌내용은 “빛나는 전통의 기예 젊은 여성 직인 5인 작품에 관한 이야기”로 도쿄의 은그릇(東京銀器)의 上田礼子(31세, 경력 10년: 단기대학 시절부터 아버지 밑에서 수업, 전일본금은창작전 전국전산금공품전협회 회장 상 수상), 도쿄 테가키유젠(東京手描友禪)의 榎原

2년에 걸친 강좌가 끝나고, 세키네씨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활기찬 강의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보였고, 강좌생 중에서 5명이 뜻을 모아 ‘와쿠라시 쿠라브’를 만들게 되었다. 전 전통적 공예품 산업진흥협회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와쿠라시 쿠라브’의 현재 회원은 모두 27명인데, 앞으로 교실 안에서 전통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와 공예사들의 작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전 미래전>은 그 첫걸음으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코구레 카츠요씨 인터뷰). <도전 미래전>은 2004년 8월 5일에서 8월 17일까지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에 있는 ‘전산협회’가 소재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건물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 개막 전날인 8월 4일에는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전야제가 열렸다. 전야제에는 이번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 30명의 여성 전통 공예 장인들을 비롯하여, 경제 산업성 전통적 공예품 산업실장, ‘전산협회’ 전무이사, 잡지사 기자, 그리고 이 전시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정 통신사 기자 세키네 유코, ‘와쿠라시 쿠라부’의 코구레 카츠요씨 등이 참석하고 있었다.

전야제에서 전산협 전무이사의 “자립한 여성은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축사와 함께 세키네 유코씨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여성 직인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전통계승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들 간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의사를 타진하여 30명의 여성 직인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와쿠라시 쿠라부 회원들과 힘을 합하여 독자적으로 전시회를 열려고 했으나,

朝子(33세, 경력13년), 츠루이 칠기(津輕塗)의 牧野浩子(31세, 경력 7년: 할머니가 애용하고 있던 츠루이칠기 그릇에 매료되어 혼자 히로시마로 가서 직인으로 일함, 작년 말 처음 개인전 열고, 29회 츠루이 칠기전 우수상 수상 경력), 카카자수(加篤繻)의 宮越仁美(39세, 경력 11년, 대학에서 일본자수를 배우고 이후 고향인 카루이자와에서 카가자수업에 종사, 다양한 공모전 입상), 나미자미 도자기(波佐見焼)의 小島啓子(35세, 경력 10년) 역사 깊은 나미자미도에 후계자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세라믹 수업 받음 등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제2기 강좌(6월 개최)는 “和의 미래, 장식과 식문화”, 제3기 강좌(7월 개최)는 “칠기의 미래, 기법의 다양성”으로 강의되었다. 참고로 강좌의 수강료는 1회당 회원은 2000엔, 비회원은 2500엔이었다.

전산협과의 접촉 후 그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후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전시의 경위와 감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0명의 여성 공예사 장인들은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출품 경위와 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칠기 공예사 여성 장인인 오시타 유키코(大下亞紀子, 26세)씨는 “자비로 출품하고, 교통비 체재비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내 작품을 홍보할 수 있고 또 현지까지 일부러 올 수 없는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출품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나머지 여성 공예사 장인들의 출품 이유 역시 오시타 유키코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전 미래전>은 직물(村山大島紬, 本塩澤, 越後上布, 十日町紘, 博多織, 名古屋 友禪, 京鹿의 子紋, 京友禪, 加賀繻, 江戸刺繻), 도자기, 종이공예, 칠기, 조각, 은그릇, 돌세공, 인형 등 <삶을 채색하는> 전시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공예품 등이 출품되고 있었고,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의 여성 장인전이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출품자 명단과 출품 공예품 명단은 <표 IV-4>와 같다.

이들은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서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전통공예의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전통의 기법에 자신의 감성과 스타일을 불어넣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있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전통 공예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다양하였으나, 모두가 처음부터 일본 전통 공예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수정 세공(甲州水晶貴石細工)을 하는 여성 장인(土屋 典子)의 경우는, “처음에는 일본의 모든 것을 싫어했는데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 일본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던 게 계기”가 되어 그때부터 일본에 돌아와 일본의 미술사를 공부하고, 세공을 배운 경우이다. 또한 나고야 유젠의 사쿠라이 메구미(櫻井 惠)는 자라날 때 아버지가 포목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아버지 밑에서 유젠을 어떻게 하는지 보긴 하였지만 전혀 배우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자 빨리 집을 떠나고 싶어 도쿄로 왔다. 하지만 이후 다시

<표 IV-4> 《도전 미래의 여성공예사전》 참가자

이름	정통 공예 품목	활동지역
原田 裕己(1957)	村山大島紬(직물)	토쿄도
中島 律子 ※(1963)	本塩澤/越後上布(직물)	니이카타현
金 由起	十日町紜(직물)	니이가타현
小串 華奈 ※	博多織(직물)	후쿠오카현
岩下 江美佳(1973)	東京染小紋(염색)	토쿄도
西條 しのぶ(1973)	東京染小紋(염색)	토쿄도
榛原 朝子 ※(1971)	手描友禪(염색)	토쿄도
櫻井 恵(1974)	名古屋 友禪(염색)	아이치현
山田 るり子 ※(1958)	名古屋 友禪(염색)	아이치현
木村 英子(1970)	京鹿의 子紋(염색)	쿄토부
神奈 摩紀(1968)	京友禪(염색)	쿄토부
山林 しづ	京友禪(염색)	쿄토부
宮越 仁美 ※	加賀繡(자수)	이시카와현
栗原 光世 ※(1969)	江戸刺繡(자수)	사이타마현
山中 弘美 ※(1964)	紙布(종이 직물)	효고현
加藤 音 ※(1962)	美濃焼(도자기)	키후현
福本 恵(1962)	三川内焼(도자기)	나가사키현
小島 啓子 ※	波佐見焼(도자기)	나가사키현
武腰 美恵子 ※(1956)	色繪磁器(도자기)	이시카와현
牧野 浩子 ※(1975)	津輕塗(칠기)	토쿄도
木内 史子 ※	鎌倉彫(조각)	카나카와현
木下 亞紀子 ※(1976)	山中漆器(칠기)	이시카와현
鈴木 高子	岩谷堂 簞笥	이와테현
鎌手 直子 ※(1971)	一位一刀彫(조각)	키후현
上田 禮子 ※(1972)	東京銀器(은제품)	토쿄도
田村 智美 ※(1968)	土佐和紙(일본 종이)	코치현
土屋 典子	甲州水晶貴石細工(수정세공)	아마나시현
關原 紫光 ※	京人形(인형)	쿄토부
野原 明美 ※(1971)	崎阜提燈(등)	키후현
今井 厚子	伊勢型紙(종이)	키후현

※ <와쿠라시 쿠라부>의 추천에 의해 출품을 하게 된 여성 전통공예사전
- 생년 미기재는 본인이 정확히 밝히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심심하던 차에 유젠을 한 번 해 보았는데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어, 자신감을 얻고 이 일을 시작한 경우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쿠라이 메구미 인터뷰).

반면 더 많은 여성 전통 공예사들이 전통 공예사 집안에 태어나거나, 전통 공예사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전통공예와 접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전통공예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전통공예에 대한 매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기술을 연마하고 작업에 몰두한 결과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가령,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인형(京人形)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세키하라(關原 紫光)씨는 직인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하여 이제는 “인형 만들기를 진심으로 즐기고 삶의 보람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 염색업에 종사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염색(京鹿の子絞)을 시작한 키무라(木村 英子)씨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만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싶었고, 이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의 스타일과 색을 내려고 힘쓰고 있기에 더욱 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수동적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전통공예의 세계를 선택하였으며, 그 선택 안에서 전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자신에 의해 전통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나고야 유젠의 아마다 루리코(山田るり子)씨의 경험과 증언은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남성 공예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 여성 직인들의 위치가 이제는 장인으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적극적 의미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고야 유젠(名古屋 友禪)을 시작한지 28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염색 기술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전 제일 재미있었죠. 그리고 졸업 후에 유젠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제가 직접 스승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옷을 만들고 그들에게 맞는 색을 고민하고, 또 어떤 모양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은 까다롭지만 가장 즐거운 점입니다. 다행히도 유젠하는 남편을 만나 지속적으로 유젠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전통공예 작품 전에는 계속 남편의 이름으로 작품을 출품하여 왔습니다. 제 이름을 올리지 못 해 내심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제 이름에 전통 공예사관 타이틀을 달고 출품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딸은 현재 오사카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젠기술을 배울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래는 알 수 없죠(아마다 루리코 인터뷰).

전통 공예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실 돈벌이가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시타 유키코 인터뷰).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성 장인들은 “실과 같은 마음이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여 입을 사람의 마음에서 옷감을 짜고 있으며”(하라다 유키 原田 裕己의 전시회 자기 소개 글), 젊은 나이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에치고 조후(越後上布) 후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관련 수업과정을 선택하여 수료하고 현재 9년째 에치고 조후의 기술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나카시마 타츠코 中島 律子 인터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남이하기를 원하는 일 이 세 박자가 다 갖추어진 일을 할 수 있는 행운에 감사하며, 옛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무한의 색과 유한의 소재를 조합하여 작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아마나카 히로미 山中 弘美의 전시회 자기 소개글)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 직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즉 조합이나 기업을 통해 생산 유통되고, 전통의 의미는 각종 행사나 전시를 통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성들의 역할과 노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통 산업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3. 중국: 소주자수와 남통남인화포

자수는 바탕천에 여러 가지 색실로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는 공예미술이다. 형겅이나 가죽 등의 표면에 실·끈·리본 등을 바늘 혹은 바늘 모양의 도구를 꽂아서 수놓은 그림이나 도안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바늘이 등장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자수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늘을 이용하여 한 번 뜬 길이인 바늘땀은 결국 자수의 기법과 같기 때문이다. 곧 바느질 그 자체가 가장 단순한 자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수는 존재한다. 서양에서는 서기 전 30세기 경 고대 이집트 왕조의 유물에서 자수 제품이 발굴되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서기전 10세기 전의 춘추전국시대 유물 중에서 자수 제품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바느질은 고대로부터 여성이 맡아서 하는 일이었다. 당연히 바늘땀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자수는 여성이 처음부터 맡아서 해온 여성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산물이라 하겠다. 특히 중국에서는 주나라 시대에 계층별로 복식을 규정하는 장복제도(章服制度)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수 공예를 통한 장식은 사회적 위계를 표시하는 상징물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자수 기술은 서양에 비해 발달했으며, 각종 바느질 기술과 함께 수십 종의 색깔로 각종 문양을 도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자수 공예는 지역별로 네 곳의 유명한 산지를 가지고 있다. 호남성 장사의 상수(湘繡), 소주의 소수(蘇繡), 사천성 성도의 촉수(蜀繡), 광둥성 광주의 월수(粵繡)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소주의 자수 공예는 근대화 과정에서 자수예술대사인(刺繡藝術大師)인 심수(沈壽, 1874-1921)가 근대적 기법을 전수하여 전근대의 수공업적 자수 공예 기술을 발전시킨 곳이다. 소주에서는 자수를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여성 공예인을 수낭(繡娘) 혹은 여홍(女紅)이라 부를 정도로 여성 문화유산으로서 자수 공예가 이름을 날린다. 이에 중국의 여성 문화유산 중에서 직조유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소주의 자수공예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자수가 고급 직조유산이라고 한다면 면포에 각종 문양을 도안하는 남인화포(藍印花布)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직조유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해 북쪽에 위치한 남통의 남인화포는 명나라 중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400여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의 직조유산이다. 남통의 남인화포를 제작할 때 면포에 사용하는 염료는 주로 여뀌를 발효시켜 만든 요람(蓼藍)을 쓴다. 당연히 도안은 파랑색 바탕에서 흰 색 문양을 찍는다.

원래 가정에서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의 공정을 여성들이 도맡아 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남인화포를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생기면서 남성과 여성이 분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남인화포는 자수와 달리 면포의 염색과 도안 본 만들기 등과 같은 일은 남성의 근력이 요구된다.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해 오던 문양 각인 작업은 여성들의 섬세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남인화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과 남성의 분업은 전근대의 자가 소비를 위한 직조생산이 근대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수의 여성 전업과 남인화포 남녀 분업을 비교 관찰하여 근대화과 공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문화유산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직조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7일-8월 16일(10일 간) 중국의 소주와 남통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여성문화유산이 어떻게 전승,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연구자가 선정한 현지조사 지역은 강소성 남통시와 소주시였다. 남통시에는 남인화포가 유명하고, 소주시에는 비단을 비롯하여 소주자수가 유명하다. 특히 이들 여성문화유산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고, 관광 상품으로 변형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한다.¹⁴⁵

¹⁴⁵ 그러나 중국은 한국·일본과 달리 전승되는 문화유산의 기술에 대해 국가에서 별도로 문화재 지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 기관과 인터뷰 대상자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과거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전문적으로 특정 생산품을 제작 공급하는 기관을 연구소 혹은 박물관으로 정해 두었지만, 사회주

가. 소주자수

(1) 생산연혁

(가) 소주자수의 생산연혁

소주자수는 이미 서한 시대에 ‘설원(說苑)’이라 하여 각종 복식에 자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6년에 소주의 호구탑(虎丘塔)에서는 송나라 시기의 자수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⁴⁶ 그것은 자수 장식을 한 4건의 경첩이었는데, 여러 가지 바늘을 사용하여 각종 자수기술로 꽃과 새를 도안한 것이었다. 이것은 송나라 시기에 소주의 자수공예가 가장 꽃을 피웠음을 확인시켜 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송나라 시기 소주에는 자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마을인 ‘수선항(繡線巷)’이 존재했다. 이곳에서는 80-90 종의 색깔을 염색한 실로 자수를 놓았다고 한다. 여기서 생산된 자수 작품의 종류만 해도 거의 700여 종에 달했다.¹⁴⁷ 이러한 소주 자수 공예의 발전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도 변함이 없었다.

청나라 중엽에 이르러 당시 소주는 ‘수시(繡市)’라고 불릴 정도로 자수 공예가 가장 번창하였다.¹⁴⁸ 당시 소수의 생산 부분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관영인 관화국(官貨局)에서 직접 궁정에서 필요한 자수 작

의 시장경제체제로 들어간 오늘날 이들 기관 역시 기업화 혹은 사영화하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공산화 이후 모든 생산조직을 국영화하고 분업화했기 때문에 여성이 주된 생산을 담당했던 직조문화유산 역시 전체 생산과정을 일부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연구자는 강소성 남통시에서 남통남인화포예술관, 남통방직박물관, 심수예술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아울러 소주 시에서는 소주자수연구소, 소주시오현자수연구소, 그리고 1980년대 초반까지 소주자수연구소에서 활동한 자수대사 이아영(李娥瑛, 1937년생) 여사를 방문하여 자수와 관련된 여성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¹⁴⁶ 孫佩蘭, 『蘇繡』(北京:輕工業出版社, 1982) pp. 4-5.

¹⁴⁷ 朱鳳, 『蘇繡』(北京:教育科學出版社, 1993), p. 5.

¹⁴⁸ 吳縣經濟委員會, 『吳縣工業志』(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3), p. 120. 이하의 내용은 이 책을 근간으로 하여 연구자의 현장조사에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여 서술한 것이다.

품을 생산하는 곳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에서 생산하는 곳이다. 관영으로 생산하던 제품은 관화국 내에 공장을 두고서 자수 전문가들을 직공으로 채용하여 생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수 작품은 민간의 자수 공방에서 완성하여 관화국에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자수 생산 공장을 ‘수장(繡庄)’이라 불렀다. 그러나 수장에서 직접 생산하기 보다는 민간의 수낭(繡娘)들에게 재료를 공급하여 생산하도록 한 후 이것을 유통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소주에서 자수 공예가 가장 번창하던 시기에 민간의 수낭은 150여 곳에 달했다. 그래서 소주 중심부에는 수장의 집들이 골목을 마주보고 들어서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 때에는 소주에 ‘수신묘(繡神廟)’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수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상인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이후 소주의 수장들은 금문공소(錦文公所)와 ‘화운수업공소(雲花繡業公所)’가 성립되었다. 결국 1867년에는 이러한 상인회가 65 곳에 이르렀으며, 이 상인회에 소속되어 자수 생산에 종사한 사람들이 4만여 명에 달했다. 그 중 대부분은 여성인 여흥이었음은 당연하다.

당시 소주의 여흥들은 7-8세 때부터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주로 할머니·어머니·언니로부터 배우는데, 여성으로서 자수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¹⁴⁹ 가령 혼인을 한 후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쓸 모자와 신발을 면포로 만든 후 그 위에 호랑이 문양을 자수한다. 자녀의 혼인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신랑과 신부의 신발·모자·옷 등에 자수로 수를 놓았다. 따라서 소주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일상 의례복식에 자수를 직접 했고, 기술이 뛰어난 경우에는 수장과 연결되어 집에서 전문적으로 자수를 생산했다. 즉 청나라 말기에 이미 소주의 농촌 가정의 부녀자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나머지 시간에 부업으로 자수 공예를 했다.

보통 자수를 놓은 비단과 실 재료는 수장에서 그들에게 공급했다. 이것을 가지고 집에서 자수를 놓은 후 완성품을 수장에 가져가서 돈을 받았다.

¹⁴⁹ 孫佩蘭, 『吳地刺繡文化』(南京:南京大學出版社, 1997), p. 31.

보통 임금은 자수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졌다. 자수 작품의 품질은 주로 수를 놓은 그림이 얼마나 얇고 평평한가, 문양이 깔끔하게 나왔는가, 자수를 놓은 실의 선이 정밀한가, 비단의 품질이 좋은가, 자수를 놓은 부분이 가벼운가, 배색이 잘 되었는가, 광채가 선명한가, 도안이 생동감 있게 수를 놓았는가 등으로 결정된다. 19세기 말에 유명했던 자수 명인으로는 정패·오채하·허여대·장허씨·허매보·서모두·서매매 등이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주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자수 명인으로는 심수(1874-1921)를 꼽을 수 있다. 심수는 30세가 되던 1904년 서태후의 70세 탄신 때 자신의 친정집에 소장되어 있던 <팔선상수도(八仙上壽圖)>를 자수로 놓아서 궁정에 바친 것이 계기가 되어 ‘수(壽)자를 이름으로 받았다.¹⁵⁰ 원래 이 작품은 심수가 동생 심학일과 그의 학생 김정분·서혜지·미심백·채군수·심영 등과 함께 작업을 한 것으로 심수의 남편 여각이 친구를 통해서 궁정에 바친 것이다. 1908년 청나라의 농공상부에서는 북경에 여자수공과를 설치하면서 심수에게 총교습을 맡겼다. 그해 그는 남편과 함께 2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공예미술교육과 미술자수·소묘 등에 대해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이때 그는 ‘자수로서 자립하여 세상에 뜻을 펼친다(以繡自立于世)’라는 뜻을 세웠고, 서양의 소묘·유화·사진 기법을 자수에 운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1910년에는 국수총심관(國繡總審官)이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여자수공과가 폐지되자, 천진으로 거처를 옮겨서 여홍전습소(女紅傳習所)를 설립하여 자수공예 교육에 전념했다. 1914년 남통의 면직업 실업가 장건이 그를 초청하여 남통여공전습소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중국 최초의 근대국가인 중화민국에 들어와서 소주의 자수공예와 그 생산은 이전에 비해 쇠락하였다. 청나라 말기에 150여 곳에 이르던 소주의 수장은 64곳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공인 역시 4만여 명에 이르던 것이 1만6천3백여 명으로 줄어들었다.¹⁵¹ 이것은 근대화의 붐으로 인해 비단에

¹⁵⁰ 陳佐, “人間奇迹侔天工,” 『中國刺繡』(南通:南通沈壽藝術觀, 2002), p. 130.

¹⁵¹ 吳縣經濟委員會, 『吳縣工業志』(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3), p. 122.

자수를 놓은 직조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양에서 들어온 인조견사의 유행으로 인해 전통적인 비단에 자수를 놓은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 그러나 1929년에 들어오면 자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조견사에도 자수를 하여 판매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에서 중국 자수 그 중에서도 소주의 자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흥의 숫자는 2만 4천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정세는 안정된 자수 생산을 유지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의 시기에 소주의 자수 공예 산업에는 두 가지의 양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심수를 비롯한 소수의 예술가들이 이른바 예술품으로서의 '진수(眞繡)'를 창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소수의 예술성을 한층 높였고, 특히 이로부터 소수는 중국의 전통적인 자수에서 근대적인 예술품으로 완성되었다. 반면에 상품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여 많은 자수 공인들이 자수 작품을 조잡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소수의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소수가 양극단의 가치를 보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나) 소주 오중구(蘇州 吳中區)의 생산연혁

오중구는 원래 1912년에 만들어진 오현(吳縣)의 현재 지역명이다. 다음에서는 이전의 오현과 지금의 오중구에 위치한 자수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가에서 자수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는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왕의 사영 수장을 국영화하는 길을 걸었다. 결국 1956년 중국 전국에서 펼쳐진 합작사 운동으로 인해 사영 수장을 해체시키고, 대부분의 점주와 화공 등을 합작사 사원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현에도 미쳐서 당시 합작사가 6개, 사원이 14,310명, 자수 생산량은 431,634건에 이르렀다. 생산 건수 중에서 30,037건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국가에 수출되었다. 소주 시내에 위치했던 오현 자

수공예공사는 회화사·양품공장·수품공장 등을 부분으로 두고, 수시로 농촌에 기술자를 보내 기술을 전수시켰다. 1958년에 농촌의 가정에서 자수를 생산하는 여흥은 19,550 명에 달했다. 1959년 오현 자수생산합작사는 ‘지방국영오현공예미술품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현대적인 기계를 설치하여 생산량을 늘려갔다. 그래서 1959년에 오현에서 자수 생산에 종사한 사람이 40,566 명, 생산량은 1200만 위엔(元)에 이르렀다. 이러한 양상은 당분히 지속되었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생산이 멈추었다.

그러나 1971년 오현자수창이 설립되고, 기계 자수를 도입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1972년부터 일본으로 자수 제품이 수출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자수 작품의 도안에 대해 봉건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엄금한다는 규정을 내놓는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적 이미지인 불교·도교 관련 종교인물과 역사상의 제왕장상, 그리고 전통적인 도안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출에 지장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자수 도안을 디자인하는 현지의 화공들은 쇠퇴하고, 북경의 중앙미술대학 교수들이나 작가들이 디자인을 맡는 경향도 나타났다. 결국 비정치적인 도안인 꽃, 새, 물고기, 곤충과 자연풍광 위주로 자수 작품이 바뀌고, 현대적인 유희 작품의 그림이 도안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1979년 기존의 오현자수창은 오현자수총창으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의 13개의 자수공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현 자수창에 소속된 직공은 모두 1000여 명에 달했으며, 농촌에서 이 공장에 자수 작품을 제공하는 여흥은 8만여 명에 이르렀다. 즉 이 당시의 자수 생산 방식은 여전히 청나라 시기의 수장과 농촌 여흥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였다. 오현자수총창에서는 자수를 놓은 바탕이 되는 비단, 자수를 놓는 데 필요한 실, 그리고 도안을 농촌의 여흥에게 제공하면, 농촌의 女紅은 자수 작품을 완성하여 다시 오현자수총창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에는 전통적인 기술을 계승하면서 공예 이론과 바느질 방법을 혁신하기 위하여 오현자수총창 내에 오현자수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도안의 디자인, 밑그림 그리기, 바탕천에 심 넣기, 수놓는 뒷

면에 풀칠하기 등의 작업을 개선하였다. 특히 밑그림 그리기 작업은 기계를 개발하여 손으로 하는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여 생산량 증가를 꾀했다. 아울러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이전의 공산주의 국가와 함께 자본주의 국가의 수요가 창출되어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손으로 수를 놓던 것을 기계로 대체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어 시장의 수요에 맞추었다. 동시에 모직에 자수를 놓는 기법과 외울실을 뽑아내면서 수평·수직·경사 방향에 동일간격의 땀새로 메워가는 기법이 개발되었다. 당연히 이 기법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많이 생산했으며, 이를 통해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오현자수의 생산품은 그 종류가 그 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즉 일용품 자수, 자수복장, 예술정품 등 3대 유형의 백여 가지 제품이 등장했다. 1985년 오현의 여흥은 10여 만 명에 달했다. 1986년 9월에는 오현자수총창에서는 북경에서 국제클럽이 주관하여 재중 외국 대사관의 사절, 경제인, 무역상인, 그리고 문화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소수상품소개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소수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

소주시 오현자수연구소 郁善德 공예사의 말에 의하면 최근 오현자수총창의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오현 내에는 자수 기업은 총 90여 곳이 있다. 이 중에서 오현자수총창과 거기에 소속된 13개 향진 자수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영 자수공장이다. 각각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공의 숫자는 총 4600여 명으로 여기에는 농촌의 가정에서 자수 작업을 하는 여흥(다른 말로 수부(繡婦)) 12만여 명을 제외한 것이다. 오현 전체에서 2000년에 생산한 자수 제품의 생산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9천만 위안(한화 435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소수 생산품 중에서 일용품으로는 이불·침대보·베개·커튼 등과 각종 복장이 있으며, 예술정품으로는 단면수·쌍면수·쌍면이색수·쌍면이색이양수 등의 기법으로 만든 병풍·서화·장식품 등이 있다. 주요 도안으로는 산수, 화훼, 인물, 새 등이 있는데, 쌍면수의 ‘고양이 자수’와 ‘금붕어 자수’가 가장 대표적이다. 현재 세계 90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2) 관련 단체 및 기관 현황

(가) 소주자수박물관과 소주자수연구소

1954년 3월 8일 소주시 문련(文聯)에서는 소주자수소조를 조직했다. 처음 조직할 때 10여 명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공인이 8명이었다. 같은 해 8월쯤에 80명 정도로 확대되었다. 1955년 12월 소주시에서 소주자수소조를 확대하여 소주공예미술자수생산합작사를 설립했다. 당시 인원은 약 150명 정도였다. 1957년 하반기 명칭을 소주공예미술연구실로 바꾸고 20여 명의 중학교 졸업생들을 모집하여 자수전수반을 설립했다. 그 후에 10여 명을 추가 모집하였다. 과목은 자수·국화·도안·소묘·노작 등을 포함하고 학제는 3년을 공부하고 1년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졸업생들은 모두 자수 공장에 직장을 분배받아 일하였다.

주지하듯이 자수는 중국의 전통적인 여성문화유산으로 본 연구소의 공예사와 직공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관리책임자도 여성이 대부분 맡아왔다. 연구소의 설립 초기에는 주로 민간에서 자수 실력이 뛰어난 여성들을 모아서 시험을 통해서 5명의 공예사를 뽑았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도안설계, 단면자수, 양면자수 등의 기술을 교육하고 직접 작품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했다.

1960년 전후에 이 연구실의 명칭이 소주자수연구소로 바뀐다. 당시 인원은 200여 명으로 연구소 아래에는 연구실과 실험 공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체 공예사가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중앙정부의 각종 기념품과 외빈 선물용 고급 자수 작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에 소주자수박물관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85년에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간의 자수 작품은 1000건에 이른다. 매년 평균 약 2,3만 명의 관광객이 관람했다. 소주자수박물관은 고대자수품실, 명칭자수품실, 근대자수품실에 4백여 점의 진품 자수 작품을 전시했다. 그러나 2003년 소주자수박물관의 운영 주체인 소주자수연구소가 국영에서 사영의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문을 닫았다.

현재는 연구소를 기업형으로 전환하여 소장 대신에 사장을 두고 있으며, 공예사의 숫자도 현격히 줄어들어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소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면 자수제작실과 양면 자수제작실의 작업 과정을 직접 관람하도록 한 후 판매장에서 고가의 자수 작품을 사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소의 자수 작품은 대부분 인민폐 500위안(한화 7만5천원 상당) 이상의 고급품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더욱이 자수공예가 다른 작업에 비해 집중력과 오랜 수련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근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줄어들어 문화유산의 상품화 경향과 함께 기술의 전승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 연구소는 업무부와 사무부로 나누어져 있고, 직공은 20명 정도다.

(나) 소주시 오중자수연구소

구 오현자수연구소이다. 전설에 의하면 소주시 오현의 자수 생산 전통은 주나라 시기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발전을 거쳐서 송나라 때의 오현의 자수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자수품을 공급한 기지였다. 이때부터 전문적으로 자수를 생산하는 여러 개의 수공업 조직이 오현에 생기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오현의 자수는 잠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당연히 전문적인 수공업 조직도 사라졌다. 그 대신에 일반 가정에서 자수를 생산하여 생계를 잇는 경우가 증가했다. 결국 1930년대 이후 전문적인 판매상이 민간을 돌면서 자수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유통조직이 형성되었다. 이 기간에 오현에서 활동한 자수 명인들은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심수의 영향을 받아서 고급 자수 작품을 생산하는 공예대사와 다른 하나는 비록 조잡하지만 상품유통에 알맞은 저급의 자수품을 생산하는 일반인이 그것이다. 공산화 이후 일반 가정의 자수 생산을 금지하고, 자수생산합작사를 국영으로 설치하여 자수생산을 통합했다. 그 이후 몇 차례 명칭을 바꾼 후 1979년에 오현지수총창으로 바꾸었다. 본 연구소는 이 공장에서 1980년에 설립한 도안 전문 연구소이다. 현재 오현지수총창에서 생산하는 자수품의 도안설계를 맡고 있는 본

연구소는 총 18명의 공예사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오현자 수총창에는 600여 명의 직공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에 수출하는 자수품과 자수를 놓은 옷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되는 자수품이 대부분 저가의 것이라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관광상품으로 저급화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아울러 전문적으로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없어 기술의 단절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다) 남통심수예술관

중국 근대 저명한 자수예술대사인 심수(1874-1921)를 기념하기 위해 원래 1914년의 남통현립연공전습소 자리였던 곳을 복원하여 1992년에 설립하였다. 전시실에는 심수와 그의 제자들이 제작한 각종 자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는 자수기술의 전승을 위한 학교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기념품과 관련 책자를 판매하는 기념품 판매점만 있을 뿐이다. 다만 근대화 과정에서 장건과 심수가 협력하여 중국 전통의 여성문화유산을 어떻게 근대화 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본 예술관은 의미가 있다.

(3) 주요 소주 여홍(女紅)의 활동 현황

자수대사 이아영(李娥瑛)

1926년생으로 오현에서 어머니로부터 자수기술을 배웠다. 1952년 3월 8일에 소주시 문련이 설립한 자수소조에 가입하였다. 1955년에 합작사운동 중에 자수소조가 문련에서 소주시 공업국에 소속되어 소주공예미술자수합작사로 개칭되면서 소속을 바꾸었다. 이 때 근대 자수 명가인 심수의 제자 금정분은 소주공예미술자수합작사의 주임을 담당했고, 리아영은 정품조 소조장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작품은 주로 중국의 국가 선물이나 전시품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처음에 화고(畫稿)는 북경의 중앙미술학원에서 제공해 주고, 소주자수연구소에서는 그것을 밑그림으로 하여 수를 놓았다. 그러나 자수를 이해하지 못한 밑그림은 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

아, 결국 연구소에서 직접 화고를 그려서 디자인을 하였다.

그는 중국 최초로 양면 자수법을 개발하여 이름을 날렸다. 특히 1962년에는 『자수기법(蘇繡技法)』이란 책을 발간하여 자수대사의 길을 걸었다. 1965년 이후에는 소주 제1회 자수직업학교의 책임자 겸 교사가 되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1979년에는 일본, 1982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1979년에 국가 공상국으로부터 공예미술가의 칭호를 받았다. 지금은 퇴직하여 소주자수연구소 근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최근 소주자수연구소가 사영화되어 기술의 개발과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는 가정에서 자수 기술을 배운 이후 공산화 과정에서 모든 생산조직을 국가에서 재편하는 단계에서 공식적인 조직으로 진입하여 기술을 개발했으며, 소주자수연구소의 부소장까지 맡는 등 중국 여성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산물인 소주 자수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소주자수연구소의 책임자는 계속 성이 맡았고, 문화대혁명 후기에만 남자 책임자 한명이 있었다.

이아영은 1979년에 중국공예미술가로 선정되었고 1983년·1988년·1990년 매년 중국공예미술대사로 선정되었다. 중국소수예술박물관부관장, 중국공예미술학회회원, 중국소주자수연구소부총공예사를 역임했다. 이아영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26년 : 소주시 오현 목독진에서 출생
- 1936년 쯤 : 어머니로부터 자수를 배움.
- 1952년 : 소주시 문련 자수소조에 들어감.
- 1954년 : 자수 작품으로 강소성 1등상 획득.
- 1955년 : 쌍면수 자수 방법을 연구하여 성공함. 당시 쌍면수로 만든 작품(‘牧丹屏’)은 소주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1963년 : 명대 한희맹의 <세마도(洗馬圖)>를 밑그림으로 한 자수작품 완성, 북경고궁박물관에 소장.
- 1965년 : ‘분봉합수(分繡合繡)’의 기법을 총정리하여 『자수기법(蘇繡

技法)』 편찬하고, 그 기술을 소주 전역에 소개함.

- 1966년 : ‘투명초저수(透明綃底繡)’ 방법 발명.
- 1978년 : 부총공예사(副總工藝師)가 됨.
- 1979년 : 중국공예미술가 칭호를 획득함. 일본에 가서 자수 기술을 공연.
- 1981년 : ‘착사침법(戳紗針法)’을 연구하여 창작한 작품을 발표, 소주 자수연구소 소장. 당시 직접 디자인하고 지도한 작품은 전국적인 상을 획득.
- 1982년 : 호주에 가서 자수 기술 공연.
- 1983년 : 직접 지도해서 자수한 작품이 세계박람회에서 금상 획득.
- 1986년 : 청 건륭황제 용포를 복제, 절강사주박물관에 소장. 청 옹정황 후 용포 및 명대 13릉에서 출토된 가정황후의 백자의를 복제, 소주자수연구소에 소장.
- 1989년 : 직접 제작한 자수 작품이 국가의 진품 인정받아 중국공예미술관에 소장.
- 1999년 : 퇴직.

장설영(蔣雪英)

1930년 오현 출생. 어려서 자수를 배운 후 1954년 소주시 자수단훈련반에 들어간 후, 1956년 소주시공예미술합작사에서 기술을 배웠다. 1964년 소주시자수전수반에서 교사로 일했다. 1972년 오현자수창에서 예술정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 1977년부터 1986년에 걸쳐 다섯 차례 일본에 가서 자수전람회에 참여하여 본인의 기술을 표현했다. 일본에서 큰 명성을 날린 장설영은 주로 복장에 자수를 놓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전국공예미술학회 회원, 강소성자수분회 이사 등 역임.

고설옥(顧雪玉)

1931년 오현 출생. 오현자수총창 공예사. 8세 때 어머니로부터 자수를 배웠다. 1954년 소주시 자수훈련반에 들어갔고, 그 후 ‘보주석시사(毛主席詩

詞), ‘목단화평합(牧丹和平鶴)’, ‘방고화남(倣古花藍)’ 등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1984년과 1986년에 일본에 가서 자수 기술을 공연했다.

고문하(顧文霞)

1931년 오현 출생. 1954년 소주시 문련 자수소조에 들어가서 자수기술을 배움. 자수생산합작사 이사, 소주자수연구소 침법실 주임, 소주자수연구소 부소장, 소장 등 역임. 1956년 영국 런던의 국제전시회에서 ‘묘접도(貓蝶圖)’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각종 고대 출토 자수 유물을 복원하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주로 정치적인 노선을 많이 걸었다. 가령 1957년에는 모택동의 초청을 받아 공인 대표로서 사진촬영을 함께 했으며, 그 이후에는 전국정협(全國政協)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금진(顧金珍)

1938년 오현 출생. 구 오현자수총창 공예사. 9세부터 자수를 배우기 시작하여, 1954년 소주자수배훈반에서 자수를 배웠다. 1959년에 오현자수배훈반의 교사가 되었다. 그는 독창적으로 복장의 요대에 자수를 놓는 ‘삼각침(三角針)’과 수목화 등을 자수로 놓는 방법인 ‘희침법(希針法)’을 개발했다. 그의 작품은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 1987년 일본에 가서 자수 기술을 표현했다. 주로 수목화를 비롯한 명화를 자수로 놓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 남통남인화포

(1) 생산현황

남통은 강소성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자강이 바다와 만나는 북안에 있는 해안도시이다. 기후는 아열대기후로 삼면이 바다와 강에 접해 있고, 한 면만이 육지로 이어진다. 주변에 상해와 소주와 같은 도시가 인접해 있다. 행정적으로 시 중심지역과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8001평방미터이며, 전체 인구는 789만여 명이다. 역사적으로 남통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어항도시였다. 특히 1911년 신해혁명 후에 행정개편으로 남통현이 되었다. 사실 이때부터 남통이란 지명이 행정명으로 쓰이게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금과 같이 남통시가 되었다. 1983년 개발구를 흡수하여 오늘날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남통은 단지 천년여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지만, 염업이 기반이 되어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그래서 명대에는 이미 중요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청대에 들어와서 기후와 토양 조건이 좋아 면화를 심고 생산하는 면업이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수공으로 생산하는 토포업이 중국 전체에서 가장 집중된 지역이었다. 당연히 면화로 제작한 토포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특히 1885년 청말 과거급제자이면서 실업가였던 장건이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대생방직창과 대생기업은 남통으로 하여금 중국 근대 방직공업의 발상지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했다.

남통의 남인화포는 토포에 남색의 염색을 한 공예품이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 ‘약반포(藥斑布)’라고 불렸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는 ‘요화포(澆花布)’라고 하였다. 남통의 민간 남인화포는 명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해져온다. 특히 일반 가정의 부인들이 그 기술을 전승해 왔으며, 각종 문양의 남인화포는 생활 실용품으로써 옷·이불·겉개·신발·가방·보자기 등에 활용되었다. 사실 간단하고 단조로운 남색과 백색의 조화는 또 다른 미학적 아름다움을 제공해 준다.

남통의 남인화포는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광주의 면화상인이 여뀌인 요람(蓼藍)의 씨앗을 남통에 가져와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민간에서는 요람을 대량으로 재배하여 남인화포를 생산하는 염료로 이용하였다. 남통의 남인화포는 우선 토포를 제작하고, 여기에 남색으로 염색을 하면서 문양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먼저 베텔을 이용하여 토포를 짠다. 완성된 토포에 문양을 넣기 위해서 도안을 만든다.

보통 도안을 만드는 화판이 필요한데, 주로 종이에 동유(桐油)로 여러 차례 칠한 것을 사용한다. 도안은 각종 길상문양으로 용도에 맞도록 마련

한다. 도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칼로 오려낸다. 이때 화판이 딱딱하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이 도안을 새긴다. 화판이 완성되면, 흰색의 토포에 화판을 올린다. 그 다음에 석회와 콩가루를 한데 섞어 물을 부어 풀 상태로 된 것을 화판의 구멍난 부분을 통해서 포에 날염을 한다. 그러면 토포에 흰색의 석회가 새겨진다. 석회가 마른 다음에 토포를 항아리에 넣고 남색으로 염색을 한다. 염색한 포는 짙은 남색이 된다. 염색된 포에 남아 있는 석회를 칼로 조심해서 제거하면, 흰색의 도안이 드러난다.

종래 남인화포는 일상생활용품으로 가정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6년 남통공예미술합작사가 생기면서 민간에서 생산되던 남인화포는 사라지고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했다. 1967년에는 남통공예미술연구소가 성립되면서 남인화포는 일종의 공예품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이 연구소에서는 생산소조가 있었다. 그런데 도안과 염색으로 나누어진 이 생산부분에는 주된 공정을 맡은 사람들이 남성이었고, 보조적 역할을 여성이 하였다.

현재 남통의 남인화포는 수공과 방직을 통한 기계제작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대생방직창에서는 주로 대포를 생산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10억 미터, 인염포(印染布) 9억 미터를 생산하였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수공의 남인화포는 주로 남통남인화포예술관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2003년에 판매한 금액은 90만위엔(한화 1억 3천 5백만원 상당)이다.

(2) 관련 단체 및 기관 현황

(가) 남통 남인화포예술관

1997년 남인화포의 도안제작 장인인 오원신(吳元新-1960년생, 남성)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남통 남인화포예술관에는 명대 이후의 남인화포를 비롯하여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된 다수의 남인화포가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남통 방직기계 및 남인화포 전통공예 도구 및 재료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남통 남인화포예술관은 개관이래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남인화포를 수집하고 있다.

별도로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상품생산과 판매를 겸하고 있다. 현재 남통 남인화포예술관은 전시부·생산부·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22명이다. 생산부에는 도안 조각과 염색을 맡은 남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여자 직공이다. 여자직공 10명은 도안에 석회를 바르는 공정, 염색 천에서 석회를 제거하는 공정, 완성된 남인화포를 가지고 옷·겉개·모자·이불감·배두렁이·보자기 등을 생산한다.

남인화포가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쓰이고 전하게 된 것은 주로 민간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있었고 문양도 대부분이 길상한 무늬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남통 남인화포예술관에서 보관된 명·청 및 중화민국 시기의 남인화포 무늬에는 獅子滾綉球, 龍鳳呈祥, 狀元及第, 連年有餘 등이 있다. 남인화포 만들 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각판과 염색을 담당하고 여자들은 직포와 각판에 석회를 바른 일을 담당한다.

남통 남인화포예술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오원신은 17살(1977년) 때 남통시 계동진의 국영 남인화포 공장에서 학도로서 남인화포의 각판, 염색 등 제작 방법을 습득하였다. 1980년대 오원신은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남통시 경공국에 소속한 남통시 여유공예품연구소(旅游工藝品研究所)에 취직되었다. 1997년 오원신은 여유공예품연구소의 몇 명 동료들과 함께 독립하여 남통시 남풍공원에 100㎡의 땅을 임대하여 남통 남인화포 예술관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여공 12, 남공 4명이 있었는데, 남공들은 주로 각판, 염색 및 기술 개발을 하고 여자들은 주로 刻版에 석회 바르기, 석회 제거, 문양 설계 등의 일을 했다.

2002년 남통시 정부가 호하(濠河) 옆에서 현재의 남통 남인화포예술관을 지어 주었다. 지금의 예술관은 전통식 건축이고 면적이 500㎡ 정도다. 예술관에는 다섯 개 전시장 있고, 그 외에 제품 진열실 하나, 상담실 하나, 사무실 두 칸이 있다. 전시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전시실 : 남인화포의 기원과 발전, 제 2전시실 : 남통 남인화포 유물전시, 제 3전시실 : 남통 남인화포 공예 과정, 제 4전시실 : 남통 남인화포의 개척, 제 5전시실 : 남통 남인화포의 창조와 발전.

2004년 8월 현재 직원은 35명이 있다. 남인화포예술관에는 15명이 있고, 이들은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 복장 작업반에 8~10명이 있고, 염색 작업에 8~10명이 일을 한다. 2002년에 상해에 판매점을 건립했는데, 그곳에도 4명이 근무한다. 직공들에게 주는 임금은 염색하는 사람이 1500위엔 전후이며, 복장 작업반의 사람은 700~1500위엔 전후이다.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주로 복장·가방·공예품 등이다. 관장인 오원신은 본인이 직접 서술한 책 『중국남인화포도안대전(中國藍印花布圖案大典)』이 곧 출판될 예정이다. 이 책에는 고대와 현대의 남인화포 도안이 천여 개 수록되어 있다.

(나) 남통방직박물관

남통시는 중국의 근대 저명한 실업가인 장건(1855-1926)의 고향이다. 그는 1895년 남통시에 근대적인 방직공장인 대생사창을 건립하여, 남통시가 중국 근대 방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더욱이 장건은 1914년 남통현립여성공전습소를 설립하여 자수 기술의 전문적인 학교로 발전을 시켰다. 이를 기념하여 1985년 남통방직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총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본 박물관은 방직의 역사, 남인화포의 제작과정, 근대방직업, 그리고 각종 생산물을 전시하고 있다. 방직업사를 연구하는 류위동(劉偉東) 연구원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면서 본 박물관에 대한 남통시의 지원이 줄어들어 박물관 운영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여성 위주의 전통적인 방직업이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을 공인으로 전락시켰고, 이로 인해 방직업을 여성문화유산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관련 활동 현황

여기에서는 주로 남통 남인화포예술관의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남통남인화포예술관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남인화포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다. 이곳은 전통적인 남인화포를 수집·전시·연구·생산·경영을 하나로 하는

박물관 겸 판매장이다. 예술관의 설립이후 일본·스웨덴에 직접 가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일본·미국·독일·싱가포르·대만·홍콩·한국 등지에서 찾아온 전문가와 관광객, 그리고 국내의 유명인사와 일반인을 합치면 총 50여만 명이 예술관을 관람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언론매체에 이 예술관에 대한 소개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

남인화포를 비롯한 직조는 여성중심적 생산체계에 기초해 유지되어왔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대량생산 체제가 도입되면서 남성 위주의 도안 중심으로 변형되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여성문화유산이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면서 여성이 남성의 하위 공인으로 전락하는 일반적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계 속에서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비교해 아직 중국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여성중심적 생산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수의 경우에는 몇몇 장인들이 현저한 활동을 벌이며 국내외적으로 중국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어 직조의 경우와는 대조를 보인다.

4. 소결

동북아 각국의 직조공예는 여성들의 손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 그에 따라 여성들은 농가경제의 기둥으로서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직조를 통해 여성들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특유의 문화도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은 동북아 차원의 문물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각국의 역사와 경제발달과정에 따라 현재 직조의 생산체제와 그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매우 상이하며,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도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직조의 산업화와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여성중심적 직조 생산체제가 붕괴하고 여성들은 공장의 단순노동력이나 하청업자로 전락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온 여성들의 직조활동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문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직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자수공예의 경우에는 주요 장인들이 교육과 국내외 문화교류 및 홍보분야에서 현저한 활동을 벌이면서 문화유산 생산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전시관 등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계승해온 직조생산 전통자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전통 직조를 중심으로 여성생산자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 문화재로서도 그 가치를 공인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전통직조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개발되면서 관광상품으로서도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직조유산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여전히 물질적 문화유산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며 생산자 자신들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적극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단순한 기술자로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상황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전통직조를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었으며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여성들은 공방을 운영하거나 직물조합을 결성하여 경제주체로서 가내 남성에 비해 월등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물론 대량생산체계가 정착되면서 여성이 단순노동력으로 전락했던 것은 일본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개중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경영자로서 여성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장인의 세계가 남성에 의해 대표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장인 내지 여성전통공예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전통공예사회 내에 여성부회가 결성된 것을 비롯해 여성공예사들의 네트워크

가 구성되고 이들의 경험과 작품세계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 등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여성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유적지나 유물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현재에도 숨쉬고 있으며 계속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만큼 동북아 각국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직조생산체계가 상이하게 전개되고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체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들이 살아온 삶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젠더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각국의 여성사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역사인물 유적지나 유물, 여성교육 및 여성운동 관련 유산 등과 함께 직조 교류를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조와 관련된 사업을 보면 한·중·일 각국에서 직조를 중심으로 한 전시관이나 박물관, 예술관이 설립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 등의 사업을 벌이는 등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각국의 전시관, 박물관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거나 동북아의 직조전통 속에서 여성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공동의 축제 ‘직녀제(가칭)’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특히, 전통직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조생산지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광시존에 맞춰 교류전시나 축제를 개최한다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개방된 70년대 말부터 이미 중국의 여성장인들을 초청해 시연회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주요 직조생산지를 방문하는 등 동북아 차원의 교류활동을 한발 앞서 전개하고 있

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는 물론 여성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동북아 공동체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 갈 것이며 특히 여성문화유산 교류는 역사를 통해 동북아의 오늘을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가는 핵심 줄기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여성문화유산 교류의 의미

가. 동북아 여성교류현황

1975년 UN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국제 여성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유럽과 미대륙, 아프리카, 아·태지역 등 권역별로 여성발전의제를 형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태지역 차원의 여성교류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여성들도 그 성원으로서 국제여성교류에 참여하기 시작해 한-일 양자 간의 여성교류가 간간히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냉전체제 속에서 폐쇄정책으로 일관해온 중국 여성들은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차원의 교류는 가시화되지 못했다.

중국 여성들이 국제교류의 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에 머물렀던 동북아 여성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 한-중, 중-일간의 양자 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 동북아 3개국의 여성교류에 있어 199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양자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는 한편, 양자 간 교류의 틀을 넘어 동북아 지역 자체가 국제 여성교류의 장에서 의미 있는 단위로 등장하였다. 특히, 20C 말 당시 각국의 시장 개방과 함께 인적, 물질, 정보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면서 동북아 여성교류는 다시 한 번 전기를 맞이했다.

북경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는 여성정책국가기구와 여성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의 교류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1990년대 말부터는 지역적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몽골과 베트남, 나아가 동남아까지 아우르는 동아시아 차원의 교류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북한여성들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명실공히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여성교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각국의 정부기구와 여성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차원의 여성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단체와 학계가 교류의 중심

으로 활동해왔다. 그간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술교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차원의 여성교류는 주요 여자대학과 부설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일본의 주요 여자대학이나 중국의 주요 대학 여성연구소와 함께 학술교류행사를 진행하면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한·중·일 여성들의 삶과 지역의 공통적인 유교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비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 점차 각국의 여성운동의 전개와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그에 따른 새로운 젠더문화의 형성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학술교류를 바탕으로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여성연구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지역 여성연구의 공동의 관심사를 교류하고 여성연구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부록 2>참조).

■ NGO 교류

동북아 여성교류는 각국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온 각국의 주요 여성단체들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일본의 식민주의 침략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가 발달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결성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의 주요 여성단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¹⁵² 북한,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일본뿐 아니라 중국, 대만, 나아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참가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¹⁵² 구체적 내용은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pp. 181-238 참조.

연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상황을 밝히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인권운동 및 여성운동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였다. 또한 UN인권위원회에서는 1994년 여성폭력특별보고관¹⁵³을 임명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활동을 통해 보고서¹⁵⁴를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여성단체들은 한국여성NGO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동아시아 여성포럼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참가해왔다. 한·중·일·대만·몽골·홍콩 등의 주요 여성단체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북경세계여성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어 지역 여성들이 직면해있는 문제를 세계 여성발전의제에 통합하는 역할을 했으며 회의 이후에도 북경행 동강령의 지역 내 실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변화에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부록 2> 참조).

■ GO, IO 중심의 교류

학계와 NGO를 중심으로 동북아 여성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데 비해 정부 차원에서의 동북아 여성교류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간 정부의 국제 여성교류는 주로 UN 여성지위위원회나 세계여성회의 등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ESCAP 등을 통한 아·태지역 차원의 교류가 중심이 되었다. 물론 동북아 차원의 여성교류가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았던 1990년대 초 당시에 한국여성개발원이 한·중세미나 개최하는 등 여성교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동북아 차원에서 정부기구의 역할을 현저하지 않았다.

¹⁵³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씨이다.

¹⁵⁴ E/CN.4/1996/53/Add.1.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0년 이후 부터로 정부기구에서도 동북아 여성교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동북아 여성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새로운 동북아 관계의 모델을 찾기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01년에는 한·중·일 정부기구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가하는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개최해 동북아 여성정책의 방향과 동북아 평화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UNDP의 동북아 지역협력 사업인 ‘동북아 지역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성 평등(Gender Equality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GEST)’ 프로그램의 정보기술사업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여성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중국전국부녀연합회(All China Women’s Federation)와 몽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젠더 센터(Gender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성 평등한 동북아지역의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한 여성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부록 2>참조).

나. 여성문화유산 교류의 의미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여성단체와 정책기구,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여성들이 공통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그 하나의 요인으로는 기존의 동북아 정책이 지나치게 경제교류에 치중했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고 공동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대한 관심이 제한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통합이나 정치적 갈등의 완화 등 현안 해결의 관점에서 동북아 공동체에 접근하는 데 집중한 반면, 동북아 지역의 사회집단, 특히 여성을 포함해 기존의 지배체계에서 소외된 집단들을 통합하여 미래지향적인 공동체 상을 형성하는 데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만큼 여성교류의 가치와 성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향도 있다.

다른 한편, 그간 동북아 차원의 여성교류 역시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기초로 역내의 문화적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에는 비중을 두지 못했다는 점도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여성부문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결과를 낳은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존의 여성교류는 주로 UN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폭력철폐 및 인권보장, 환경과 개발, 경제활동참여, 성매매 등 세계여성발전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에 비해 동북아의 역사와 그 속에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상호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에는 오직 부차적인 관심만 두어져 왔다.

동북아 여성들은 유교문화권의 특수한 성별(gender) 구조 속에서 생활해 왔으며 역사적 공통점도 지니고 있는 만큼, 많은 점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동북아 여성들이 적극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대처를 이끌어 낸 데에서도 이러한 점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 속에서 여성은 폭압의 피해자였던 것만은 아니며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적극적인 주체이기도 했다. 그런데, 기존의 여성교류에서는 이러한 면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젠더관계의 역사적 뿌리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북아 역사를 통해 여성들은 적극적인 역사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펴왔으며, 이러한 점은 각국의 풍부한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동북아인들에게 표출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젠더 문화의 뿌리가 자라나 양성 평등한 동북아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각국에서 새로운 젠더 문화의 뿌리로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는 1970~80년대부터 각국의 여성역사인물과 여성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물질적 문화유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들의 삶을 표상하는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여성정책분야에서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홍보를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여성부와 여성사 전시관(여성부 산하)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화정책분야에서도 2004년 수립한 ‘참여정부의 문화비전’ 중 여성의 삶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발굴 및 지정확대를 정책과제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몇몇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⁵⁵ 그리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여성역사인물과 지역 여성들의 독특한 생활상을 발굴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부분적이거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사) 또 하나의 문화』나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등의 주요 여성단체에서도 허난설헌이나 시인 고경희와 같은 인물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직물공예 등의 문화유산을 생산하고 계승해온

¹⁵⁵ 2004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화 사업에는 ‘3) 근대 기생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화’, ‘14) 조선의 궁중 여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같이 특별히 여성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9) 한국 무속 곳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20) 한국의 전통 장신구와 같이 여성과 관계가 있는 사업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부에서는 여성국극이나 ‘바리공주’나 ‘영원한 사랑 춘향이’와 같은 여성인물을 조명하는 전통연희극 공연을 지원하거나, 이달의 문화인물로 신사임당, 나혜석, 허난설헌, 정부인 안동장씨 등 여성인물을 고려하는 등 여성문화유산에 직접적이거나 관심을 보여왔다. 관련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여성문화교실을 개최(2002년)하면서 ‘우리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지혜’, ‘우리 옛 그림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 등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강좌를 포함한 바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여성문화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역사 속의 여성 예술가의 삶과 예술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관련 문화유적지를 적극 발굴·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심을 발전시켜 여성문화 체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고 학교 수학여행 코스와도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양애경·김이선·김양희,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2004 발간예정).

주체로서 여성을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여성화가와 공예장인 등을 문화유산의 생산자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주로 국내에 머물러 있다. 물론 한·일 여성작품 교류전이나 주요 직조생산지간의 생산자 교류, 중국 월극의 한국 상연,¹⁵⁶ 일본 타카라즈카의 중국 상연 등과 같이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교류활동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상적 차원의 교류에 한정되었을 뿐 여성문화유산의 풍부한 의미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동북아차원으로 확산시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한다면 역사주체이자 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활동해온 여성의 역량을 통해 동북아가 성차별적인 전통을 지닌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이며 평등한 문화공동체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 활성화 방안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 여성들은 내외법과 남존여비사상에 입각한 유교문화의 경직된 성별구조 속에서 소외집단으로서 유사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각국의 여성문화유산, 즉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들의 삶을 표상하는 유적지나 유물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지역 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짚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동북아 여성발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여성문화유산의 재발견은 갈등과 지배-피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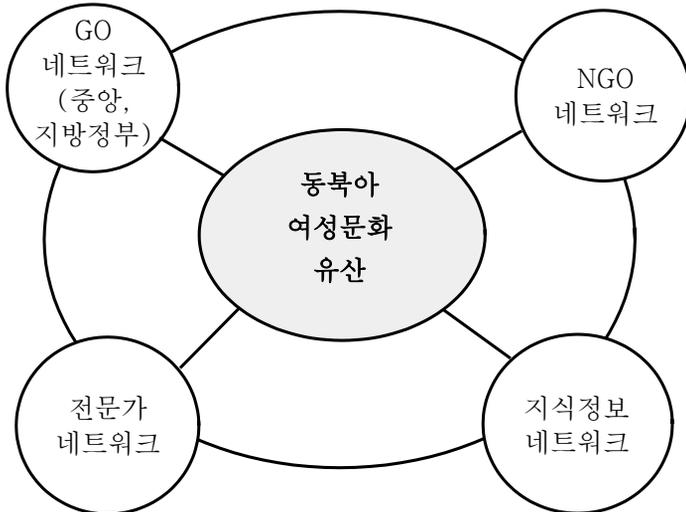
¹⁵⁶ 2000년 제7회 베세토연극제에서 여성배우로만 구성된 월극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

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동북아지역을 평등하고 역동적이며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내의 각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여성문화유산 교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가칭) 구축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교류하는 위해서는 특정 국가, 특정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역내 국가를 아울러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역내 여성문화유산 교류 중심으로 각국의 관련 정부기구와 비정부단체,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각 분야별로 특화된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림 V-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구성



■ GO 네트워크 :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기구와 문화정책 및 문화유산기구, 산하 박물관, 전시관, 국제교류기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GO 네트워크에서는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을 발굴, 홍보하기 위한 정책을 교류하고 문화유산정책과 해외문화교류사업 전반에 성인 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하며 동북아 여성문화 공동 비전을 수립한다. 그리고 여성문화유산 교류를 포함한 동북아 여성문화 교류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NGO 네트워크 : 각국의 주요 여성단체, 특히 여성문화와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로 구성된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포럼을 비롯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역내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각국에 소개하고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지역 젠더문화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 네트워크 : 각국의 여성사와 여성문화연구, 동북아 여성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동북아 여성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제시한다.

■ 지식정보 네트워크 :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정보를 수집, 정리, 확산하는 on-line focal point로서 각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여성 지식정보 시스템 내에 여성문화유산 코너를 개설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한국여성사 지식정보 시스템’에서는 주요 여성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측의 focal point로서 뿐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정보네트워크 중심으로서도 기능해야 할 것이다.

나.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 기회 확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 여성들의 삶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반시민들이 유·무형의 여성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역내를 돌면서 각국의 주요 여성문화유산을 유형별(여성인물관련 유물, 여성공예유산, 여성의 의례와 연행 등), 시대별로 비교해볼 수 있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전시회(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각국의 여성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초청해 그들의 기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동북아의 살아있는 여성문화유산(Living Women’s Cultural Heritage in Northeast Asia)(가칭)’ 전시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상설전시관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서 여성문화유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여성문화유산관(가칭)’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전체 시설에 일부로 반드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단위의 주요 여성행사가 개최될 때 또는 동북아지역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맞춰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전시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05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제9회 세계여성학대회기간 중에 관련 정부기관과 비정부단체가 공동으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전시회를 주최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미도 살리고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형식적, 피상적 교류를 넘어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각국 여성들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와 삶의 양상을 접근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조 유산 교류 행사처럼 직조기술 등 가시적 부분의 단순 비교 차원에 머물러서는 직조에

것들이 있는 여성들의 풍부한 전통과 생생한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Ⅲ. 동북아 직조공예의 역사적 전개와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성들의 직조 생산 역사와 직조의 문화적, 역사적 의미, 직조생산을 통해본 여성들의 삶과 위상 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문화교류에 있어서 해당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를 모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 대중적 프로그램 개발

여성문화유산은 단지 학자들의 연구주제나 정부 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동북아 각국에서 여성사와 여성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지고¹⁵⁷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에 맞춰 일반인들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동북아 여성사나 여성문화 나아가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도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관광프로그램은 충분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 각국을 돌며 정치나 예술 방면에서 현저한 활동을 펴온 여성인물과 관련된 유적을 돌아보거나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연행을 관람하거나 일반 여성들이 계승해온 생산전통을 체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역내의 주요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여성문화유산 관광프로그램

¹⁵⁷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속의 여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TV드라마 『대장금』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여성인물을 새 화폐도안에 넣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을 개발, 추진하면서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향한 중요한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의 주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거나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해설사를 양성한다면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이 한층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 향후과제

최근 들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학계에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여성정책과 문화유산정책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지극히 주변적 차원에서 다룰 뿐이며 여성단체에서도 여성문화유산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직조와 같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풍부한 가치를 지닌 요소를 중심으로 산업진흥이나 문화유산보전 및 홍보,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질적 문화유산으로 접근되거나 제조기술 등의 가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풍부한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에 있어 우리 정부와 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여성문화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간 동북아 여성교류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해온 역할마저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여성단체, 학계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국내 기반, 즉 인적, 물적 자원과 지적 정보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학계에서는 여성사와 여성의 전통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류학적, 민속학적 연구를 통해 사장되어가는 여성문화유산, 잊혀져가는 여성문

화유산을 발굴하고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에서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간 주요 여성단체들은 일본과 중국 등지의 주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여성교류를 주도해오면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네트워크 역량을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관심과 결합시킨다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문화에 전문성이 있는 여성단체가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할 역량을 갖춘다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학계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성정책과 문화유산정책분야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주요한 의제로 삼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부와 여성사 전시관, 한국여성개발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이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문화유산협의회를 결성하여 여성문화유산 실태를 조사하여 발굴·보존·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여성문화유산을 여성정책과 문화정책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전문위원회 산하에 동북아 여성교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나 각종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과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와 민간의 여성문화유산 프로그램에 배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여성문화기금을 형성하여 여성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동북아 여성교류의 패러다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 여성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여성교류가 진행

되어 오면서 우리 여성계에서 동북아는 의미 있는 단위로 받아들여고 있다. 그러나, 교류의 내용을 보면 주로 UN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세계여성발전의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동북아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과정 속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여성의제를 발굴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내 여성단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모습은 동북아 차원의 특수한 의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여성의 존재를 되새긴다면 동북아 여성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평등한 동북아의 역사적 뿌리를 찾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점호 구술(유시주 편).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90.
- 문옥표 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 한·중·문화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모색』.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서울: 신서원, 1996.
- 서울시·서울여성. 『2003 서울시 여성자원봉사학교: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 2003.
- 양애경·김이선·김양희.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2004 발간예정.
- 이능화. 『조선여속고』. 서울: 동문선, 1990. 원전 1927.
- 이화여대. 『한국여성사 I』. 1972.
- 중국전국부녀연합회 편. 『중국여성운동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1.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1999.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서울: 풀빛, 1992.
- Andersen, Benedict. 윤희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 1991.
- Bell, Linda S. *One Industry, Two Chinas: Silk Filatures and Peasant-Family Production in Wuxi County, 1865-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Bernhardt, Kathryn. *Women and property in China, 960-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姬岡とし子. 『ジェンダー化する社會』. 岩波書店, 2004.

- 鹿野正直. 『現代日本 女性史: フェミニズムを軸として』. 有斐閣, 2004.
- 長野 ひろ子. 『日本 近世 ジェンダー論』. 吉川弘文館, 2003.
- 三好信浩. 『日本の女性と産業教育: 近代産業社会における女性の役割』.
東信堂, 2000.
- 福原美江. 『調べて学ぶ日本の衣食住: 日本人は何を着てきたか』. 大日本
本図書株式會社, 1997.
- 総合女性史研究會. 『日本女性の歴史: 文化と思想』. 角川書店, 1993.
- 金谷千慧子. 『日本民衆と女性の歴史: 近・現代編』. 明石書店, 1991.
- 東條由紀彦. 『製絲同盟と女工登録制度』. 東京大學校出版會, 1990.
- 文化廳. 『傳統工藝のわざ 解説書: 公式記録重要無形文化』. 映像文化製
作者連盟, 1985.
- 川島春雄. 『織物: 西陣織』. リブリオ出版, 1997.
- 杉山明子. 『日本の女性の生き方』. 出光書店, 1983.
- 水江漣子. 『近世史のなかの女たち』. 日本放送出版協會, 1983.
- 近世女性史研究會. 『(論集)近世女性史』. 吉川弘文館, 1986.
- 井上清. 『(新版)日本女性史』. 三一書房, 1986.
- 外崎光廣. 『日本婦人論史』上. 下. ドメス出版, 1986.
- 山下悦子. 『日本 女性解放 思想の 起源: ポスト・フェミニズム試論』.
海鳴社, 1988.
- 阿部恒久. 佐藤能丸. 『日本近現代女性史: 通史と史料』. 芙蓉書房出版,
2000.
- 折井美耶子. 『地域女性史入門』. ドメス出版, 2001.
- 女性史事典編集委員會. 『日本女性史事典』. 新人物往來社, 2002.
- アリス ベーコン. 『明治日本の女たち』. みすず書房, 2003.
- 小島恒久. 『動く女性 百年のあゆみ』. 河出書房新社, 1983.
- 玉川寛治. 『製絲工女と富國強兵の時代: 生絲がささえた日本資本主義』.
新日本出版社, 2002.
- 北村哲朗. 『日本服飾史』. 이자연 역. 경춘사, 1999.

- 井筒雅風. 『女性服飾史』. 이자연 역. 경춘사, 2004.
- 後藤敏夫. 『日本女性勞動史のための序章』. 城西大學女子短期大學部, 1987.
- 岩本由輝. 『東北地域産業史: 傳統文化を背景に』. 刀水書房, 2002.
- 菊池比佐乃. 『女職人カタログ』. 株式會社 PARCO出版, 1995.
- 梁啓超. 『新史學』. 臺北: 中華書局, 1960.
- 喬繼堂. 『中國歲時禮俗』.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1.
- 吳淑生·田自秉. 『中國染織史』. 上海人民出版社, 1986.
- 華梅. 『服飾與中國文化』. 人民出版社, 2001.
- 喬繼堂. 『中國歲時禮俗』.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1.

2. 논문

- 강숙자. 「한국 전통사회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상수. 「개화기 한국 공업입지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신용. 「조선시대 수공업 연구: 경공장-외공장의 분해와 기업적 수공업의 대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5.
- 박미라. 「노동요에 나타나는 여성의 체험과 자기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영애.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위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서성호.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손지주. 「조선시대 여성교훈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 임영진. 「삼베길쌈기술과 노동교환조직에 관한 연구: 안동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강영경.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여성의 역할과 지위.” <<http://www>>.

- kok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 연대미상.
-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김점호 구술(유시주 편).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90.
- 김성희.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01.
-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19세기의 한국사회』. 대동문화연구원, 1972.
- 김인숙. “中國女性史研究100年-「新史學」에서 「新史學」까지.” 『中國史研究』. 제7권, 1999.
- 박동헌. “中國 古代 家內 紡織經營의 성장과 그 의의-漢代의 小農家庭을 중심으로.”
<<http://web.kyunghee.ac.kr/~lejpdh/pds/introduction/gnbjsil.hwp>>, 연대미상.
- 이배용. “한국사 속에서 여성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여성학논집』. 14/15 통권, 1998.
- 정세화 · 최숙경 · 이배용 · 장필화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 연구-고대에서 대한제국시대까지-.” 『여성학논집』. 5, 1988.
- Creighton, Miller R. “Japanese Craft Tourism: Liberating the Crane Wif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2), 1995.
- Richards, Greg. 조명환 역. “문화관광의 정책적 배경.” Richards, Greg.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1999.
- 梶村秀樹. “이조말기(개항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사계절, 1983.
- 服藤早苗. “平安後期の家の成立と結婚・性愛.” 總合女性史研究會. 『日本女性の歴史: 性・愛・家族』. 角川書店, 1992.
- 西村汎子. “中世の「遊女」.” 總合女性史研究會. 『日本女性の歴史: 性・愛・家族』. 角川書店, 1992.

- 永原和子. “民俗の轉換と女性の役割.” 女性史総合研究會. 『日本女性生活史』. 東京大學出版會, 1990.
- 義江明子. “古代の村の生活と女性.” 女性史総合研究會. 『日本女性生活史』. 東京大學出版會, 1990.
- 原ひろ子. “文化人類學における女性研究の展望.” 女性學研究會. 『女の目で見る』. 『講座女性學』 4. 勁草書房, 1987.
- 裴貞烈. “平安時代における女性の地位.” 『日本研究』 1. 韓南大學校日本研究所, 1995.
- 産下英愛. “전후 일본의 여성운동.” 『여성과 사회』 6. 창작과 비평사, 1995.
- 芳賀徹. “わたちの近代日本.” 『日語日文學研究』 30. 韓國日語日文學會, 1997.

3. 기타자료

<신문>

- 김윤덕. “2006년 새 화폐에 여성 위인을 넣는다.” 『조선일보』, 2004년 1월 13일.
- 신선중. “‘여성문화유적’ 관광코스.” 『문화일보』, 2004년 4월 27일, 29일.
- 조혜정. “내마음속의 문화유산 8: 달동네와 골목길-허난설현 무덤-여성극극.” 『중앙일보』, 1997년 3월 30일.
- 하성봉. “다시보는 한-중 문화교류 2: 허난설현.”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1일.

<영상자료>

- 宮古上布 [VHS] 文化廳= ブンカチョウ, 映像文化製作者連盟 (1993).
- 越後上布 [VHS] 文化廳= ブンカチョウ, 映像文化製作者連盟 (1980).
- 有職織物: 喜多川平朗のわざ [VHS] 文化廳= ブンカチョウ, 映像文化

製作者連盟 (19??).

型染め: 江戸小紋と長板中形 [VHS] 文化廳= ブンカチョウ, 映像文化

製作者連盟 (1984).

<부록 1> 동북아 각국의 주요 여성문화유산

1. 우리나라

오죽헌(국보 제 165호)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오죽헌은 조선시대 양반층의 전형적인 주택으로 꼽힌다. 이곳은 신사임당(1504~1551)이 태어나고 생활한 곳이다. 신사임당은 본관은 평산(平山), 호는 사임당(師任堂)이며, 강릉 출생으로 율곡이이(李珣)의 어머니이다. 어려서부터 경문(經文)을 익히고 문장·침공(針工)·자수(刺繡)에 능했으며, 특히 시문(詩文)과 그림에 뛰어나 여러 편의 한시(漢詩) 작품이 전해진다. 안견(安堅)의 영향을 받은 화풍(畫風)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더하여 한국 제일의 여류화가라는 평을 듣는다. 자녀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현모양처(賢母良妻)의 귀감(龜鑑)이 되었다. 작품으로 시(詩)에 <유대관령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 <사친(思親)> 등이 있고, 그림에 <자리도(紫鯉圖)> <산수도(山水圖)>, <초충도(草蟲圖)>, <노안도(蘆雁圖)>, <연로도(蓮鷺圖)> 등이 있다.

허난설헌 생가(강원도 지정문화재 제 59호)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이광노 가옥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 허난설헌(1563~1989)이 태어난 집터로 알려져 있다. 허난설헌은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난설헌이며 강릉에서 출생, 허균의 누이이다. 이달에게 시를 배워 천재적인 시재(詩才)를 발휘했으며, 1577년(선조 10) 김성립과 결혼했으나 원만하지 못했다고 한다.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시작으로 달래어 섬세한 필치와 여인의 독특한 감상을 노래했으며, 애상적 시풍의 특유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중국에서 시집 『난설헌집』이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고 1711년 분다이야 지로에 의해 일본에서도 간행, 애송되었다. 작품으로는 시에 <유선시(遊仙詩)>, <빈녀음(貧女吟)>, <곡자(哭子)>, <망선

요(望仙謠)>, <동선요(洞仙謠)>, <견흥(遣興)> 등 총 142수가 있고, 가사(歌辭)에 <원부사(怨婦辭)>, <봉선화가> 등이 있다.

진덕여왕릉(사적 제 24호)

신라 제 28대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647년에 왕위에 올라 8년간 재위한 신라 두번째 여왕으로서 당나라와 적극적인 외교를 펴면서 안으로 김유신과 같은 명장으로 하여금 국력을 튼튼히 하도록 하여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룡의 외형은 흙으로 쌓은 봉토밑으로 판석으로 된 무덤의 보호석을 돌리고, 판석과 판석사이에는 방향에 따라 룡의 수호를 위해 십이지신상을 새겨 배치하였다.

선덕여왕릉(사적 제 182호)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사천왕사의 낭산에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632~647)은 외치에 있어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략을 받아 많은 국토를 잃었으나 내치에 있어서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켰다. 특히 당의 문화를 수입, 문화를 발전시켰고 황룡사구층탑, 침성대를 건립하였다. 룡의 특징은 원형봉토분 밑에 護石을 쌓고 호석은 雜石을 비스듬히 2단으로 쌓았고 밖으로는 호석높이와 비슷한 大石을 기대어 놓았다.

수로왕비릉(사적 제 74호)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龜山洞)에 있는 사적 74호 가야시대의 능묘는 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와비 무덤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왕비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 성은 허(許), 이름은 황옥(黃玉)으로 알려져 있다. 룡에는 대형의 원형 토분이나 특별한 시설은 없다. 능의 전면에는 장대석(長大石)으로 축대를 쌓고 주위에는 범위를 넓게 잡아 얇은 돌담을 돌렸다. 능 앞에는 1647년(인조 25) 수축 때 세운 ‘가락국수로왕비 진주 태후허씨지릉’이라고 2행으로 각자(刻字)한 능비가 있다.

유관순열사유적(사적 제 230호)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에는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고 자란 20평의 생가와 봉화지 1석이 위치해 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1일 3.1운동이 일어나자 이화학당 학생들과 서울에서 시위에 참가하였고 일본인들이 휴교령을 내리자 같은 해 3월 13일 고향 병천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의 3.1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꺾기할 것을 설득 했으며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의 횃불을 올렸던 곳으로 1972년 10월 14일 국가에서 사적지로 지정하였다.

종묘(사적 제 125호)

1995년 유네스코에 의해 팔만대장경,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 추존된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태조 3년(1394)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56,503평의 경내에는 종묘 정전을 비롯하여 별묘인 영녕전과 전사청, 재실, 향대청 및 공신당, 칠사당 등의 건물이 있다. 이 가운데 정전에는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의 신주가, 영녕전에는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등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 왕의 신주보다 왕후의 신주가 많이 모셔져 있다.

칠궁(사적 제 149호)

조선시대 7명의 왕 또는 추존왕의 모친을 모신 사당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에 있다. 원래 이 자리는 1724년(경종 4) 8월 영조가 왕위에 오른 뒤, 후궁 출신의 빈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봉사(奉祀)의 은전을 받지 못한 그의 모친 최숙빈을 추념하여 사당을 짓고 봉사한 육상궁(毓祥宮)이 있던 곳이었다. 그후 국운이 기울어진 1908년, 각 묘전의 제전을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왕 또는 추존왕의 사친(私親:모친)

을 모신 다섯 사당을 이곳에 옮겨 육궁(六宮)이라 하였고, 이후 고종의 후궁이며 영친왕 은(垠)의 생모인 순비 엄씨의 사당을 이곳에 옮겨 칠궁이라 하였다. 칠궁에 합설된 궁은 육상궁, 저경궁, 대반궁, 연우궁, 선희궁, 경우궁이다.

선잠단지(先蠶壇址)(사적 제 83호)

잠업은 중요한 분야로서 특히 조선시대에는 잠업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권장했다. 세종은 양잠을 크게 장려하여 각 도에 적지를 골라 뽕나무를 심도록 하는 한편, 한 곳 이상의 잠실을 지어 누에를 키우게 하였다. 또한 잠사가 생산되면 국가에서 엄밀히 심사하는 것을 제도로 삼았다. 그리고 중종조(1506년)에는 여러 도의 잠실을 서울 근교-현재의 송파구 잠실 일대에 집결하도록 했다.

그리고 왕비는 친잠례를 행했는데, 이를 위해 1471년(성종 2)에는 동소문 밖에 선잠단을 지었다. 단에는 대를 모으고 중국 황제(黃帝)의 왕비인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의 신위를 배향(配享)하였다. 1908년(융희 2)에 선잠단은 선농단(先農壇)의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 배향되면서 폐허화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민유화되었다. 현재는 성북국민학교 옆 길거리에 여러 집들에 둘러싸인 조그만 터전만 남아 있다.

행주산성(사적 제 56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3만 명의 왜군을 맞이하여 군·관·민 2천여 명의 힘을 합쳐 싸운 끝에 큰 승리를 거둔 곳으로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때 여성들은 치마폭에 돌을 날라 전투를 도와 ‘행주치마’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진주성(사적 제 118호)

경남 진주시 남성동(南城洞), 본성동(本城洞)에 있는 성으로 내성의 전체 넓이 200㎡, 둘레는 약 600m이고 외성의 둘레는 약 4km이다. 일명 축석성(矗石城)이라고도 한다. 본래 백제 때의 거열성지(居烈城址)였다고 하며, 고려 말 공민왕(恭愍王) 때 7차례 중수되고 왜구 방비의 기지로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김시민 장군이 왜군을 대파하여 임란3대첩 중의 하나가 벌어진 곳이며, 1593년 6월 왜군의 재침시에는 군관민 6만이 최후까지 항쟁, 장렬한 최후를 마쳤으며, 이 때 논개는 적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하였다.

아차산성(사적 제 234호)

서울과 구리에 걸쳐 있는 아차산은 해발 3백m 밖에 되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지만, 삼국시대의 전략요충지로 특히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전해져 온다. 학문적 고증과는 상관없이 이 지역 주민들은 온달장군이 아차산에서 전사했다고 믿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온달 장군이 한강 유역의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신라군과 싸우다 전사한 곳이 아차산이며, 그 자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시신은 평강공주가 와서야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와, 영토 수복을 하지 못한 한과 백년해로하지 못한 부부의 애절한 정이 어려 있는 곳이다.

성황당(城隍堂)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을 모신 神堂인 城隍堂의 명칭은 지방에 따라 선왕당, 천왕당, 국수당, 국시당 등으로 불리며 한글로 서낭당이라고도 한다. 서낭당은 보통 마을 어귀나 고개마루에 원뿔 모양으로 쌓은 돌무더기와 마을에서 신성시되는 나무 또는 장승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형식은 5색 형짚을 걸어놓은 서낭나무와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누석단이 결합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도 서낭나무와 당집이 함께 있거나, 立石의 형태인 것도 있다. 서낭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한국 전래의 천신과 산신이 복합된

것으로 여기에 중국에서 유입된 성황신앙(城隍信仰)이 융합되었다고 한다. 유교를 공식 지배이데올로기로 하던 조선사회에서는 성황당을 비롯한 민속 신앙은 여성들의 영역이었다.

해신당

강원도 삼척지방에 위치한 해신당은 남근숭배사상의 전형으로 이해되고 있고 현대에 와서 대대적인 남근조각공원조성 및 남근썩기 대회 등을 통해 해신당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해신당은 여성의 죽음과 바다의 여성성을 복합적으로 표현해 풍어를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신당과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의하면,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총각이 태워주는 배를 타고 해초를 뜯기 위해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내리고, 총각은 다시 태우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변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처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처녀가 죽은 후 이 마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민들 사이에는 애를 쓰다 죽은 처녀 때문이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처녀의 원혼을 달래고자 나무로 실물모양의 남근을 여러 개 만들어 제사를 지내자, 신기하게도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러한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지금도 정월대보름에 남근을 매어 달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한중록

혜경궁 홍씨가 네 번에 걸쳐 쓴 네 편의 글로 첫째 것이 비교적 한가로운 심정에서 붓을 든 것이고, 나머지 3편은 모두 아들인 정조가 승하한 직후부터 붓을 일으켜 어린 왕 순조에게 보이기 위하여 쓴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라 하겠다. 내용은 혜경궁 홍씨가 지난날 몸소 겪었던 것으로 부군(夫君) 사도세자가 부왕(父王)인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참변을 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연루(連累)와 국가 종사(宗

社)에 관한 당쟁의 복잡미묘한 문제 등 여러 무서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칼날을 밟으며 살아온 것 같은 일생사를 순 한글의 유려한 문장으로 묘사한 파란만장한 일대기(一代記)이다. 그 문체가 우아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선명하게 그려져, 강렬한 박진감으로 하여 한국 산문문학(散文文學)의 정수(精髓)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하여 조선 여성의 이면사(裏面史)를 엿볼 수 있다는 점과 당시의 정치풍토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史料的) 가치가 풍부한 작품으로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함께 궁중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

1670년경 석계부인(石溪夫人) 안동 장씨(安東張氏)가 한글로 요리명과 요리법을 쓴 조리서로 주식류, 부식류, 떡류, 과점류, 음청류, 술류, 초류 등과 이 외에 저장식품으로는 채소, 과일, 고기말리기, 생선말리기, 생선염장법 등에 대한 것도 실려 있다. 또 고려 말기에 등장한 발효떡인 '상화병(霜花餅)'의 제법도 실려 있다. 저자인 안동장씨는 1999년 1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나주셋골나이(중요무형문화재 제 28호)

셋골나이는 나주 다시 셋골의 무명 짜는 직녀 또는 무명 짜는 일에 대한 통칭인데, 일반적으로 다시면 셋골에서 생산되는 무명베의 대명사로 통한다. 이 일대는 농토가 기름져 질 좋은 목화가 생산되었고 여기서 나온 무명베는 섬세하고 곱기로 유명한 극상품 세포(細布)로 궁중 진상품이었고 일제시대에는 만주로까지 팔려나갔다. 특히 무명베에 쪽물을 들인 것이 비싸게 팔렸는데 무명베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고행이어서 여성의 뒤통처럼 안겨진 무명 짜는 일을 도맡은 여성들이 집안 살림살이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

곡성돌살나이(중요무형문화재 제 32호)

‘돌살’은 전남 곡성군 석곡면을 가리키며, ‘나이’는 삼베를 짜는 일(길쌈)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곡성의 돌살나이는 돌살에서 나오는 삼베 이름으로,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여 그냥 삼베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옛날 농촌에서는 삼베와 무명베가 우리 옷감의 전부였다. 곡성 돌살나이는 그 베가 가늘고 간격이 고른 세포여서 값이 나가며, 잘 짜는 사람은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중까지 하루 1필(20자)을 짤다고 한다. 현재는 가내수공업으로 전락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김점순이 기능보유자로 맥을 잇고 있다.

자수(중요무형문화재 제 80호)

자수는 염색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착색되지 않은 천, 또는 무늬를 넣어 제작할 줄 몰랐던 무늬 없는 천의 단조로움을 덜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발달되었다. 한국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와 마한 시대 때 이미 비단옷에 수를 놓아 입었다. 삼국시대의 수법은 고분벽화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고도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침선(중요무형문화재 제 89호)

침선은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복식전반을 만드는 일이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옷을 말라서 바느질하는 일이다.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기초가 되는 것은, 감침질·홈질·박음질·상침뜨기·휘갑치기·사뜨기·시침질·공그르기·솔기하는 법 등이다. 옷에 따라, 또는 옷의 분위기와 계절에 따라 알맞은 바느질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여인이면 누구나 바느질을 할 줄 알아야만 하였으므로, 시집가기 전에 규수는 바느질법을 배우고 익혀야만 하였다.

누비(중요무형문화재 제 107호)

누비란 옷감의 보강과 보온을 위해 사용된 재봉기법으로 거죽과 안을 맞

춘 옷감 사이에 솜을 넣고 함께 흠질하여 맞붙이는 바느질법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107호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는 김해자는 모친과 조모로부터 기초를 배웠으며 왕실의 침방 나인이었던 성할머님께 전수받기도 하고, 사찰에 기거하면서 승려들로부터 기술을 터득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누비분야를 박물관의 유물을 통해 조사·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전통 손누비는 세계 유일한 재봉법으로 그 정교함과 작품성이 자수를 능가하는 예술품으로 평가받는다.

망건, 탕건(중요무형문화재 제 66, 67호)

망건은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에 두른 그물처럼 생긴 물건으로 정식 관(冠)의 밑받침 구실도 하였다. 탕건은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망건의 뒷개로 갓 아래에 받쳐 쓴 관이다. 망건과 탕건의 재료는 주로 말총을 사용하였는데, 예로부터 평안도의 정주·안주, 호남의 완주, 제주에서 생산되었다. 특히, 오랫동안 목마지였던 제주에서는 말총으로써 총모자·망건·탕건 등을 만드는 마미(馬尾) 공예가 발달하였는데, 여성들이 그 일을 전담하였다. 1925년 한해 동안 제주도에서는 712호에서 망건을 59,000개나 생산했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생산규모가 상당했으며 제주 여성들의 소득원으로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궁중음식(중요무형문화재 제 38호)

1970년 12월 3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38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궁중음식은 태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함께 옮겨온 개성의 고려시대의 전통음식이다. 궁중음식의 기술은 궁중에서 나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 내려온 것으로, 1974년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황혜성(黃慧性: 1920년생)은 조선조 주방상궁 한희순에게서 전수 받았다.

향토술 담그기- 교동법주(중요무형문화재 제 86호)

경주시 교동에 있는 경주 최씨 종택에서 누대에 걸쳐 빛어오는 가양주(家釀酒)로 이 술은 종택의 그 많은 제사에 제주로 사용되고 찾아오는 손님들 접대에 사용되었다. 이 법주의 유래는 현 기능보유자인 배영신의 9대 조 최국선(崔國璿)이 조선조 숙종(肅宗) 시에 궁중 사옹원(司饗院) 참봉(參奉)으로 있을 때 궁중에서 즐겨마시는 술 양조법을 익혀 여기에 문헌을 참고하여 가양주를 빚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최씨집안의 부인들은 대대로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 현재 기능 보유자인 배영신 할머니 역시 현 종손인 최종(崔淙)에게 시집와서 시모에게서 이 법주 양조법을 전수받아 50여 년 간 빚어왔다.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 8호)

강강술래는 전남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널리 분포·전승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놀이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8월 한가위 세시풍속 놀이의 하나이다. 한가위 보름달 밝은 밤에 마을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새 옷으로 단장하고 손과 손을 맞잡고 원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번갈아 가면서 밤이 지새도록 즐긴다.

늦다리밟기(경상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 7호)

경북 안동·의성 등지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여성들이 하는 민속놀이로 기와밟기라고도 한다. 단장한 젊은 여자들이 공주를 뿔아 자신들의 허리를 굽혀 그 위로 걸어가게 하는 놀이로, 놀이 지역은 금남(禁男)의 지역으로 선포된다. 늦다리밟기는 고려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함께 청주를 거쳐 안동지방에 파천하였을 때, 마침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마을의 소녀들이 나와 등을 굽히고 그 위로 공주를 건너게 한 데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놀이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엄격한 사회제도에서도 이날만은 여성이 남성을 쫓아내고 놀이를 즐겼다.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

강릉단오제는 동해안에서 가장 큰 향토신제(郷土神祭)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축제로서 2000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선정 목록에 등록되었으며 현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음력으로 5월5일 단오일을 맞아 대관령 서낭당에서 서낭신을 모셔다가 강릉 시내에서 제사를 지낸다. 대관령 서낭신은 김유신 장군이었으나 근래에는 강릉 태생의 범일국사가 죽어 서낭신이 되었다고 전하며, 강릉 정씨집 딸이 서낭신의 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서낭이라 한다. 강릉단오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주신(主神)인 국사서낭과 국사여서낭의 합사(合舍)와 두 서낭을 함께 제례로 봉안한다는 데 있다. 전설에 의하면 대관령 서낭신이 경박택 정씨 처녀를 데리고 오려고 정씨의 꿈에 나타나 청혼을 했으나 사람이 아닌 신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호랑이를 시켜 야밤에 처녀를 대관령으로 데리고 가 영혼결혼식을 했다고 하다. 사람들이 처녀를 찾아 대관령으로 갔더니 처녀의 영혼은 간 데 없고 신체는 서낭과 함께 비석처럼 서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화공을 불러 화상을 그려 세우니, 소녀의 몸이 비로소 떨어졌다고 한다. 호랑이를 시켜 처녀를 데려다 혼배한 날이 음력 4월15일이어서 그 날에 대관령 국사서낭신을 모셔다 여서낭사에서 합사하게 되었다는 것. 무녀 빈순애씨가 강릉단오굿 부문 예능보유자로 전승하고 있다.

강릉단오는 이 지역의 민간신앙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어 구이 열릴 때면 이 지역 여성노인들이 굿당에 몰려 가족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단오의 각종 민속과 굿판이라는 놀이마당을 통해 여성들 카타르시스 문화를 읽을 수 있다.

굿

샤머니즘의 한 형태로 고대부터 계속되었으며, 유교가 모든 생활규범과 실천윤리를 지배한 조선시대에도 왕실과 지식 지배층의 내방에서 행해졌다. 굿의 목적은 병의 퇴치·초복·초혼·안택·기우·진령·제재·천신·축귀 등이다. 계절에 따라 춘제와 추제로 나누며, 그 밖에 임시제가 있

다. 추제 중 대표적인 것은 청수맞이굿이며, 그 밖에 용궁맞이굿·봄맞이
 굿·꽃맞이굿·잎맞이굿 등의 유희적인 굿도 있다. 임시굿이란 그때그때
 에 따라 임시로 하는 굿으로서, 크게 나누어 임신·출산·혼인·환갑 등
 길사에 행하는 것과 질병·사망·관재 등 흉사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굿은 사전에 길일을 택하여 元巫堂이 주재하며, 唱夫巫와 後錢巫는
 가무와 예만을 하고, 技巫는 장구를, 樂手는 조수로서 징을 치며, 典樂은
 통소와 해금을 맡아서 의식을 행한다. 제물은 주로 백병·과일·당과·유
 과·술·포 등이다

길쌈놀이

길쌈놀이의 역사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때 6부로 나누어
 행하였다고 한다. 그 목적은 공동작업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단조로운
 노동을 흥겹게 율동화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길쌈을 할
 때는 길쌈노래라 일컫는 여성들의 노래를 불렀다. 이는 외부세계와 절연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던 사회제도 하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희로애락
 을 가락에 담아 노래한 것으로 44조로 이루어진 긴 가사에는 고부간의 갈
 등, 고된 노동, 근면성, 남편에 대한 애정 등이 주로 담겨 있다.

경기민요(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민요의 장단은 주로 굿거리·
 자진타령·세마치장단 등이 쓰이며, 5음 음계의 평조선법(平調旋法)에
 장·단 3도 진행이 많다. 민요의 종류로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아리랑, 긴
 아리랑, 이별가, 청춘가,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사발가, 베틀가, 태평가, 오
 봉산타령, 오돌독, 양류가,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양산도,
 군밤타령, 풍년가, 한강수타령, 경북궁타령, 개성난봉가, 사설난봉가, 매화
 타령, 늘리리야, 는실타령, 건드렁타령, 도화타령, 사철가 등이 있다. 서도
 나 전라 민요에 비하여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노동요

노동요는 노동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 집단노동시에 행동통일을 위한 구령의 역할을 한다. 또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즐겁게 노동을 할 수 있고 또한 노래를 통하여 노동의 내용이나 노동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노동요가 불리었는데, 성별 분업체계 속에서 여성들은 주로 발매기, 길쌈, 방아찝기, 가내노동 등을 하면서 시집살이 경험과 남녀간의 사랑 등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

진주검무(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는 진주지방에 전승되는 여성검무로서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하며 대궐안 잔치 때 행하던 춤의 하나이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소년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었다는 설과 논개의 얼을 달래기 위해 진주기생들이 칼춤을 춘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진주검무는 도드리장단, 느린타령, 빠른타령에 맞추어 조선시대 무사복을 갖춘 8명의 무용수가 2줄로 마주보고 서서 양손에 색동천을 끼고 칼을 휘저으며 춘다. 춤사위의 종류로는 한삼을 끼고 무릎을 굽혀 도는 숙은사위, 앉아서 추는 앉은사위, 허리를 앞으로 엮었다가 뒤로 제치며 빙빙 도는 연풍대가락, 맨손으로 팔을 펴는 손사위 등으로 다양하며 독특하다. 반주 악기로는 피리, 저, 해금, 장구, 북 등이 쓰인다.

현재의 진주검무는 당시 진주감영(현재의 시청)에 속해 있던 교방청(敎坊廳:일종의 기생학교) 기녀들의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궁중 기녀들이 낙향하여 관청 기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검무는 연출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열던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태평무(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왕과 왕비, 그리고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하여 추는 춤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었고 기능보유자로는 강춘자가 지정되어 있다. 장단이 복잡하므로 가락을 알지 못하고는 춤을 만들 수도, 또 출 수도 없다.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다. 특히, 발디딤이 다양하고 발을 구르는 동작은 이 춤만이 지닌 멋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짓춤이라 할 수 있고, 방안춤으로서 일부 살풀이춤과 더불어 정중동(靜中動)의미를 지닌 춤이다.

여성국극

여성만으로 구성된 극으로 광복 직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로 성행하였다. 여성국악단, 햇님국극단, 여성국극협회, 삼성여성국극단, 여성국악동우회, 국극사 등 많은 여성국극단체가 조직되어 악극을 압도하며 여성국극의 붐을 일으켰다. 1960년대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가 1980년대 말부터 다시 김정수, 조금앵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국극의 부흥에 힘쓰고 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주제로 설화와 전설, 야사(野史) 등의 내용을 사랑과 이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공주궁의 비밀>, <낙화유정>, <무영탑>, <목동과 공주>, <선화공주> 등이 주요 인기 작품이었다.

2. 일본

히구치 이치요우(桶口一葉 1872. 3. 2~1896. 11. 23)

일본의 시인·소설가, 본명은 히구치 나쓰(히구치 나쓰코라고도 함). 하급관리의 딸로 태어나 안락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1889년 아버지가 죽고 24세 때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며 가난하게 살았다. 히구치는 하노야라는 학원에 다니며 고전문학을 공부했는데 이때 소설 출판업에 종사하는 한 급우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생계 수단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1891년 도쿄 아사히신문의 소설 기자였던 나카라이 도스이를 소개받아 그 제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구어체를 쓰라는 나카라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특한 고전적 산문 문체를 구사했다. 주로 옛 도쿄의 시타마치(下町 :도시 서민들이 모여 사는 상공업지대) 여성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산업화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당시의 전통사회 모습을 소설에 담았다. 대표작 『大つごもり(선달 그믐날)』(1894)에서는 가난하고 학대받는 여성의 분노와 가련함을 그렸으며, 『たけくらべ(키 재기)』에서는 요시와라 유곽을 무대로 사춘기 소년소녀의 미묘한 심리를 함축해서 그렸다. 또한 『にごりえ(흐린 강)』은 사창에서 일하는 오리키라는 여자가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죽게 된다는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히구치 이치요는 2004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화폐 개혁으로 5천엔권 지폐에 넣을 인물로 결정되었다. 이후 결핵과 가난과 싸우면서 일본 문학사에 수많은 명작을 남긴 이치요에 대한 일명 ‘이치요 붐’까지 일며, 명작 『키 재기』의 무대가 된 동경의 타이토구에 있는 이치요 기념관에는 화폐 주인공 발표 이후 (8월 3일)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치요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여, 4월부터 12월 20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11월 23일(토)은 ‘이치요 마츠리(一葉祭)’날로 제정되어 있다.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1878-1942)

오사카부(大阪府) 사카이시(堺市)에서 출생하여 ‘정열의 가인(歌人)’으로 불리며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오와(昭和) 시대를 살았다. 1901년에 출간된 『みだれ髪(흐트러진 머리)』는 남편 텃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낭만주의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小扇』, 『舞姫』, 『夢之華』 등의 시집을 이어 간행하며 여류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또한, 요사노 아키코는 『榮華物語(에이카이야기)』·『和泉式部歌集(이즈미시키후 일기)』, 『紫式部日記(무라사키시키후 일기)』 등 고전문학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전 생애를 통해서는 헤이안(平安)시대 여류문인 무라사키 시키후(紫式部)가 지은 『源氏物語(겐지이야기)』현대어 역에 정열

을 쏟는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그밖에 「男女平等の是認(남녀평등의 시인)」, 「女子に對する大學教育の開放(여자에 대한 대학교육 개방)」, 「職業婦人養成の普及(직업부인 육성 보급)」등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평론도 다수 저술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 및 여성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하였다. 여성의 자유와 자립을 위해 힘쓴 생애를 보냈다. 현재 요사노 아키코가 탄생한 사카이시에는 요사노 아키코 문예관이 있으며, 매해 5월 29일에는 카쿠오우지(覺応寺)에서 요사노 아키코를 기리는 행사로 헌가 및 단가를 낭송하고 있다.

토하쿠테이(冬柏亭)

요사노 아키코 탄생 50주년을 맞이하여 문인들이 헌정한 서제이다. 원래는 1930년 요사노 아키코가 만년을 보낸 동경도 스키나미구(杉並區)에 지어진 것인데 아키코 사망 후 카나가와(神奈川)현 한 문인의 집에 옮겨져 보존이 되었다가 1976년 현재 교토(京都)시 쿠라마테라(鞍馬寺)로 옮겨져 요사노 아키코 사적지로 보존되고 있다.

마츠이 스마코(松井須磨子 1886-1919)

나가노현(長野縣) 출신으로 일본 최초의 신여성 배우이자 타이쇼시대(大正時代)를 대표하는 여배우이다. 스마코의 아버지(前澤誠助)가 연극배우였고, 어릴 때부터 집에 드나들고 있던 연극지망생들을 보며 연극에 대한 관심을 키워 왔다. 스마코는 1909년 문예협회 부속 연극 연수소 제 1기 생으로 입학하여, 이 모임에서 시마무라 호우게츠(島村抱月)를 만나 연극 지도를 받는다. 마츠이 스마코란 이름은 1911년 제국극장(帝國劇場)에서 협회 제1회 공연인 ‘햄릿’의 오피리아를 연기할 때 사용한 예명이다. 같은 해 ‘부활’에서 카츄사로 열연하였고, 여기서 부른 ‘카츄사의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하며 스마코는 국민적 인기 배우가 되었다. 연극지도를 주고받으며 스마코는 시마무라 호우게츠와 사랑에 빠졌는데, 시마무라가 유부남이란 이유로 협회에서 제명이 된다. 이후 시마무라는 가정을 버리고 1913년 스

마코와 함께 예술좌(芸術座)를 설립한다. 예술좌에서 활동하며 스마코는 연극계에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며, ‘인형의 집’, ‘살로메’, ‘안나 카레리나’ 등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하였다. 1918년 스마코는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자신을 간병해주던 남편이 자신으로부터 병이 감염되어 죽자, 1919년 1월 ‘카르멘’ 공연 중에 자살한다. 후세의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가리켜 “자살로써 그녀는 사랑을 완성하고, 이로써 그녀의 생활은 예술이 되었다”고 찬미였다. 연극배우로서 스마코는 ‘유럽 근대극의 소개와 일본에 있어서의 신극운동 정착에 여배우로서 커다란 역할을 한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니혼바시(日本橋) 요시초(芳町) 일대

도쿄 긴자(銀座)에 인접한 니혼바시 일대는 에도문화 발상지였던 곳으로 아직도 에도 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점포가 많이 있는 곳이다. 에도 시대에는 어선들이 닻을 내리던 곳으로 당시에는 도쿄 제일의 상업 지구였다. 지금도 일본의 유명한 미츠코시 백화점과 일본 은행, 증권거래소 빌딩 등이 즐비한데, 과거 요시초 일대는 일본의 유명한 게이샤(藝者)들이 많이 모여 생활하던 곳으로 그들의 재능의 특출함으로 인하여 이곳의 게이샤들은 특별히 요시초 게이샤라 불렸다. 특히, 미모와 예술적 재능으로 서구 유럽에까지 이름을 높였던 카와카미 사다야츠코(川上貞奴)도 이곳 하마다야(浜田屋)의 양녀로 와서 게이샤로 키워졌다.

츠다우메코 영어학교(津田梅子英語塾)

현재 츠다주쿠(津田塾) 대학의 전신으로, 1900년 츠다우메코(8세 때 정부 시찰단에 뽑혀 미국 유학한 여성)에 의해 개교된 이래 여성들의 영어 교육만이 아니라 근대 교육 전반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한 학교이다.

우애회 부인부(友愛會 婦人部)

우애회는 노동자 상호부조와 노사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단

체인데, 1916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부인부를 설립하였다. 여성의 노동 권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 이후 이 단체는 사회주의 부인운동을 태동하게 된 배경이 된다.

오오사카 키시다와시(大阪 岸和田市) 공장

『女工哀史(여공애사)』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1954년 여자 직공들의 스트라이크가 촉발된 곳이다. 이 때 106일간의 투쟁에 들어간 후 여공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전후 여성들의 노동파업의 하나의 결정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蜻蛉日記(카게로일기)』, 『和泉式部日記(이즈미시키후일기)』, 『紫式部日記(무라사키시키후일기)』, 『更級日記(사라시나일기)』

모두 여류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일기이며, 이 중 『카게로 일기』는 최초의 여류일기로 기록된다.

『源氏物語(겐지이야기)』

일본 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편소설로써 후대의 문학사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약 11세기 경 쓰여졌는데, 작가는 무라사키시키후(紫式部)라고 하는 중류계급 출신인 궁녀이다. 무라사키는 어릴 때부터 학문 익히기와 문학적 재질을 보여 일찍이 불교서, 소설, 역사, 노래 등의 다방면에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 학문적 경지를 깊이 하였고 『겐지이야기』외에도 『무라사키시키후 일기』를 남기고 있다.

카지와라히사코(梶原緋佐子)의 『暮ゆく停留所(저물어가는 정류소)』

1918년 젊은 화가들 중심으로 <문전(일본의 국전)>에 반대하는 전시가 열렸는데 여기서 입선한 작품으로 역 대합실에 앉아 있는 생활에 지친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토쇼하(伊藤小派)의 작품들

타이쇼 시대(大正時代) 일본 여류작가로서 가장 서민적인 모습들을 화폭에 담은 작가이다.

카이아와세(貝合せ)

같은 종류의 조개를 서로 내놓으면서 그 모양의 우열을 가리는 놀이이다. 이에 반해 가이오이(貝覆い)는 헤이안(平安)시대 이후의 놀이이다. 대합의 껍질을 좌우로 나누어 먼저 오른편의 껍질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나머지 왼쪽편의 껍질을 하나씩 꺼내어 오른쪽과 딱 맞는 짝을 찾아서, 많이 찾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후세에는 한 쌍의 조개 안쪽에 같은 그림을 그려 넣었다.

스고로쿠(双六)

현재의 주사위 놀이와 비슷하다. 놀이판의 구획의 위에 흑백으로 각각 15개의 말을 두고, 두 사람이 교대로 주사위를 던져 그 눈의 수에 따라 말을 움직였다. 주사위 모양은 현재와 같이 각각의 면에 1개부터 6개의 점을 찍었다.

킷초(毬杖)

지팡이 형태의 막대기로, 나무 공을 쳐서 노는 정월놀이.

케마리(蹴鞠)

여러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사슴가죽으로 만든 공을 일정한 높이로 차 올려, 떨어뜨리지 않게 서로 차서 돌리는 놀이이다. 원래 중국에서 전래되어 귀족들 사이에서 애호되었다. 처음에는 사람 수나 장소, 동작 등에 자세한 규정은 없었지만, 12세기경부터 일정한 형식이 생겨 의식화되었다. 공을 차는 사람은 보통 8사람인데,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공을 차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 붙는다. 또 심판은 놀이를 하는 사람과 공의 상태를 감시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다.

온나사루가쿠(女猿樂), 유조노(遊女能). 노보쿄겐(女房狂言), 노쿠세마이(女曲舞)

1603년 전후 30년 간은 여러 방면의 여성예술이 발전했던 시대였는데, 이 때 그동안 남성만이 담당하고 있던 무대예술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연기를 시작하며, 온나사루가쿠(女猿樂), 유조노(遊女能). 노보쿄겐(女房狂言), 노쿠세마이(女曲舞) 등이 실연되었다.

온나카부키(女歌舞伎)

카부키는 일본의 대중적인 고전연극으로 사실주의와 형식주의, 음악과 춤과 무언극, 호화로운 무대와 의상이 혼연일체로 어우러져 있는 연극으로 글자 자체로는 ‘노래’(歌)와 ‘춤’(舞)과 ‘솜씨’(伎)를 뜻한다. 가부키의 기원은 16세기 후반 여성이었던 오쿠니(阿國)가 불교도들을 풍자해서 인기를 얻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남자로 분장하고 춤추는 여자배우와, 여자로 분장하고 춤추는 남자배우들을 자기 주변에 끌어 모았다. 오쿠니의 가부키는 평민의 기호에 맞추어 만든 일본 최초의 중요한 연극이었는데, 1629년 정부에 의해서 풍기문란의 이유로 공연이 금지되었다. 이후 소년 배우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연기하다가(若衆歌舞伎), 곧 금지되고 오늘 날 남자들만의 카부키로 이어지고 있다.

타카라즈카 가극(宝塚歌劇)

1913년 타이쇼(大正) 모더니즘이 태동하던 때 여성들만의 극단인 타카라즈카 가극단(宝塚歌劇團)이 탄생하였고, 1914년 제 1회 공연이 있은 후 2004년 4월 현재로 90회 공연을 가졌다. 타이쇼 시대는 타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자유주의를 표방한 문화가 꽃피우던 때였는데, 이 때 타카라즈카 신온천(宝塚新温泉)이라고 불리는 유원지에서 소녀들만이 출연한 <타카라즈카 합창단(宝塚唱歌隊)>이 조직되었고, 1914년 4월 1일 첫 공연이 있었다. 이후 1919년에는 <타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宝塚音樂歌劇學校)>의 설립과 함께 <타카라즈카 소녀 가극단(宝塚少女歌劇團)>이

탄생하였다. 1921년 대중의 호응을 받으면서 오늘 날의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가극단의 모습을 완성해간다.

3. 중국

이화원

청조 서태후의 여름궁전이다. 1153년 완안량(完顏亮)이 행궁(行宮)을 설치한 것이 시초이며, 원(元)나라 때 지금의 완서우산[萬壽山]과 쿤밍호[昆明湖]를, 명(明)나라 때 호산원(好山園)을 조성하였다. 청(淸)나라 때인 1764년에 개축, 청의원이라 불리다가 1888년 서태후(西太后)가 다시 개수하고 이화원(이허위안)이라 개칭하였다.

송경명

손문(孫文)의 부인으로 1920-30년대 중국혁명에 독자적 노선을 견지하고 크게 영향을 준 인물이다. 그녀는 여성혁명정치가로 또한 사회활동가였으며 인류의 평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국제적 명사이다. 더욱이 송경명은 손문의 아내로, 비서, 동지로서 반원(反袁)투쟁, 호법운동, 북벌, 국민당개조 등 혁명사업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손문 사후 송경명은 국민혁명의 과정에서 정치적, 사상적으로 독자적 위치를 확립하였다.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그녀는 또한 소문주의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내렸고, 국공 분열 이후에는 국민당의 지도권을 장악한 장개석 정권의 정치노선에 끝까지 저항한 국민당 좌파인물로도 유명하다.

송경명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아버지와 신식교육을 받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주 특이한 경우다. 중국여성으로서 초창기의 미국 유학생이어서 그녀의 생각은 진보적이었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송경명이 스무살인 1913년 미국 웨슬리안대학 학생이었을 때 “근대중국의 여성”¹⁵⁸ 이란 글을 학교잡지에 실었다. 그 내용은 “인류

의 다른 반쪽(여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또 다른 반쪽(남성)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며 여성은 하늘의 또 다른 반쪽이므로 하늘의 반쪽을 지탱하는 여성을 소외시킨 인류사회의 발전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성행방과 여성지위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같이 송경령은 젊어서부터 중국의 여성해방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후 이론적인 면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크게 공헌하였다. 예를 들어, 송경령은 1926년 1월 국민당 2순 대회에서 하향응, 등영초 등과 노력하여 ‘부녀운동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출됨과 동시에 부녀부장에 취임하였다. 그녀는 하향응 등과 함께 국민당 좌파지도자로 여공산당원과 합작하여 부녀부를 이끌며 여성운동에 헌신했으며, 부녀부의 주요 임무는 여성지도자 훈련 및 교육임을 강조하고 여성을 조직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광주에 1926년 9월 부녀운동강습소를 창설하였다.

여자공독호조단(女子工讀互助團)¹⁵⁹

1920년 “무릇 가정으로부터 학대받는 여자, 혼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여자, 또는 생활이 빈곤한 여자를 지원하고 구가정·구사회에 저항할 목적으로 조직된 여성공동체이다. 간장(簡章)에 나타난 단원의 자격은 △강한 의지와 함께 △단의宗旨(宗旨)을 이해해야 하며, △지식·기능에 어느 정도의 기초를 갖추어야 했다. 특히 여자공독호조단은 단원의 자질을 중시하여 진실한 인생관의 단원을 희망했다. 단원의 연령은 15세부터 35세까지였고, 생활은 ‘매일 매일 네 시간 독서와 네 시간 노동이 필수’였다. 또 작업하여 얻은 소득은 반드시 단원공유로 했고, 단원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는 모두 단체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그 외 필요한 교육비·의약비·서적비도 모두 단체 공급하도록 했다. 노동의 종류는 5종으로 ① 양말짜기 ② 봉재 ③ 자수 ④ 소공예(制墨水, 信箋, 信封, 帽子, 手巾 등) ⑤ 상품 및 서적 판매였다. 단원들은 이 소조직을 소중하게 여겨 유험혁명을 미리 막기 위한 ‘평

¹⁵⁸ 「宋慶齡選集」上, pp. 5-7.

¹⁵⁹ 金貞和, “五四運動時期女子工讀互助團的對於社會改革的理想和實踐”, 『中國史研究』제 20집, 2002. p. 265.

화적 경제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북경 여자공독호조단 성립 이후 각지에서 큰 반응이 있었고, 이어 상해·광둥 등지에서도 여자 공독호조단이 발족하였다. 여자공독호조단의 성립은 5·4운동 시기 선진적 여학생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하여 구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여성해방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음을 반영한다. 그녀들은 “경제독립은 여성해방의 선결조건이지만, 여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환경이 악열(惡劣)하므로 가정을 벗어나서 독립된 생활을 도모할 수 없다. 때문에 적당한 조직이 있어서 함께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런 조직으로는 공독호조단의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 한편으로는 일을 하여 독립생활의 능력을 훈련하고,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독서하여 지식과 학문을 증진시키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여자공독호조단을 여성해방의 수단이자 사회혁명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애국여학교(愛國女學校), 애국소학사(愛國小學社)

청대에 있던 여학교로 공식적으로는 모사(母師)의 본보기를 양성하여 국민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혁명파의 비밀기관을 역할을 하였던 학교이다. 애국소학사는 애국여학교의 영향을 받아 중국 교육회회원인 정초아(丁初我)가 절강 소흥에 설립한 학교로 ‘여권을 신장하여 국본을 심는다’를 목표로 하였다.

남통남인화포(南通藍印花布)

중국 전통 방직염색 공예품과 실용품이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는 ‘약반포(藥斑布)’라고 하였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요화포(澆花布)’라고 하였다. 남통의 민간 남인화포는 명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해온다. 그 기술은 주로 민간 예술인들이 이어왔으며, 특히 근대 민간공예가의 노력을 통하여 단일적인 토포 제작품에서 다양한 옷감으로 생활 실용성에서 실용 장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간단하고 단순한 남색·백색은 순박하면서 자연 그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품이다. 남통 민간 남인화포는

농후한 향토 색채를 지닌 직물로서 민간의 일상용 옷·두건·이불감·배두렁이·보자기·문발 등으로 사용되었다.

남통 남인화포는 수백 년의 발전과정에서 역대 민간 예술인의 지속전인 발굴 연구를 통하여 보다 수공이 정밀하고 설계가 특이한 제작품이 나왔다. 남통 남인화포 예술관에 보존된 민간 전통 우수 제작품과 사진자료는 수천 개가 넘는다.

칠석절 풍속

칠석절에 부인들이 직녀성을 향해서 바느질을 잘하게 해 달라고 드렸던 제사로서 한나라 때 이미 형성되어 유교를 중요한 윤리덕목으로 내세운 송나라의 태종(太宗) 때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夜行), 과교(過橋), 유백병(游百病), 등불놀이

명대 대보름에 부인과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들이 즐기던 놀이이다.

월극

20세기 초에 강남 일대에서 탄생한 극종으로 여배우만으로 구성되었다. 경극보다 곡조가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소리와 감정이 매우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록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여성교류 주요 현황

GO, IO 교류

	주최	일시/장소	참가범위	의제
한중 세미나	한국여성 개발원	1991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중국민주축진회	▶ 사회와 가정속의 한중여성
GEST	UNDP 한국여성 개발원	1998-2001 한-중-몽고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식품연구소 외 중국전국부녀연합회, 에너지·환경보호센터 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젠더센터(몽고) 외	▶ 동북아의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성 평등 증진 및 여성의 세력화 ○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 생화학기술협력사업 ○ 정보기술협력사업
동북아 여성 지도자 회의	여성부	2001 서울	여성부, 여성지도자, 주요단체, 중국전국부녀연합회 중국여성연구소 중국인민평화군축쟁취협회 아시아부인우호회 일본여학사회 일본사민당의원	○ 여성정책 주류화에 있어 여성지도자의 역할 ○ 동북아 평화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 동북아 여성협력의 과제와 전망

NGO교류

	주 최	일시/ 장소	참가범위	의 제
동아시아 여성포럼	동북아 주요 여성포럼 (한국여성N GO네트워 크 외)	1차 1994. 동경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홍콩의 주요 여성단체 및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경제성장 ▶ 여성개발, 여성과 정치, 여성과 인권, 여성과 문화, 전쟁·평화 ▶ 북경대회에 제출할 “21세기를 위한 동아시아 여성선언과 행동계획” 채택
		2차 1996.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대문제, 고용안정, 인권 ▶ 여성의 정치세력화, 종교와 문화, 환경과 개발, 경제 및 개발, 여성에 대한 폭력, 평화운동
		3차 1998 울란바 토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고용과 발전 ○ 세계화, 여성의 일과 삶 ○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 여성의 정치세력화
		4차 2000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고용, 여성과 인권, 여성과 정보화시대 : 여성과 개발, 여성과 인권, 여성과 가정폭력, 여성과 교육, 여성과 건강, 여성과 문화, 여성과 환경
		5차 2003 홍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와 빈곤의 여성화, 성주류화와 전담기구, 전통적 가치와 가족 : 경제활동참여, 성폭력, 가정폭력, 평화, 여성, ICT, 이주노동자, 교육과 건강, 도시화, 환경, 성매매, 성적권리, 등
일본군'위 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일본군 '위안부'문 제 아시아 연대 (정신대문 제대책위원 회 등)	1차 1992 서울	한국, 일본, 필리핀	희생자 증언 결의문 채택
		2차 1993		결의문
		3차1995		결의문
		4차 1996 마닐라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대 만	생존자 증언 결의문 채택
		5차 1998 서울	한국86명, 일본52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대만2명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현황,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관한 발제 결의문 채택
		6차 2003 서울	한국 70명 일본 30명	각국의 활동보고와 과제 국제기구 권고 실현과 국제법정 판결 실행을 위한 워크샵 행동강령 채택

	주 최	일시/ 장소	참가범위	의 제
한일여성 공동역사 교재 편찬 공개 심포지엄	(한)전쟁과 인권센터 (일)여성. 전쟁.인권 학회	2001 서울		천황제와 일본여성 페미니즘과 일본군'위안부' 한국근대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일제 시기 여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민족주의와 일본군'위안부'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민족 및 민족주의
		2002 일본 오테몬 가쿠인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즘과 콜로니얼리즘 - 일본군노동재생산기구로서의 일본군 성노예 - 한국근대여성사식민지적근대성 - 페미니즘과 식민주의
		2002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 초기 한일여성의 삶의 변화 - 진명부인회와 신소당 - 일본 폐창운동과 성교육-1905년 이후 일본 기독교 교풍회를 중심으로 - 개항기 한국기독교 여서의 주체형성 과정 - 민법에서의 일본여성의 근대화 과정
		2003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시점에서 식민지폭력의 역사를 돌이켜본다-3.1운동에서 관동대지 진 조선인학살
		2003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년~1945년 시기 여성의 일과 일제의 통제 -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 일제말기 조선여성에 대한 '부인계몽' 및 '황민화'와 조선주재일본여성 - 조선총독부의 농촌여성노동력 동원-'옥외노동'논리를 중심으로 - 식민지시대의 일본인 조선해 어업과 일본인 매춘업자의 실태

	주 최	일시/ 장소	참가범위	의 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 반대! 국제회의	정대협	1995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 반대! 국제회의 결의문 채택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국제실행위원회	2000 동경 <최종 판결> :2001 헤이그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일본의 민간단체	12.7 개막식 12.8~10 각국 기소, 전문가 증언등 법정 12.11 최근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 12.12 판사단의 판결 및 논평
국제심포지엄	한국여성단체연합	1996 서울	여연 외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외 베트남여성연맹 외	▶ 급속한 아시아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과제 ○ 경제개발과정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한국, 중국, 베트남 발표) ○ 아시아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 아시아 여성농민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자매회의 (ASIM) 3차 국제회의	한국여성민우회	2001 서울	여성민우회 일본 생활클럽생협 대만 주부연맹환경보호기금	▶ 세계화 시대와 사회주부의 역할-세계에서 지역으로 ○ 지역여성운동과 에코페미니즘 ○ GMO 반대운동과 식품안전성확보 활동
동북아 여성환경회의	리우+10을 위한 한국여성환경위원회	2001 서울 연세대	한국 중국 일본 환경관련 NGO	▶ 한중일 여성환경운동의 현황, 과제, 전망 ▶ 의제21의 성관점화와 북경여성대회 여성환경의제 이행 평가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풀뿌리 여성들의 시각
한중여성지도자세미나	세계평화여성연합	1차 1994	세계평화여성연합 중국 전국부녀연합회	21세기와 여성의 사명
		1995		참가정과 르네상스
		1995.8 북경		여성의 차별, 폭력, 청소년문제 등
제주4.3제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제주4.3연구소	1998 제주		▶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

학술교류

	주최	일시/ 장소	참가범위	의 제
동북아 여성학술대회	이화여대 한국여성 연구원 숙명여대 아세아여성 문제연구소	1차 1993 서울	이화여대 숙명여대 북경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여성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 여성과 가족에서의 지위 ○ 여성과 교육-문화적 지위 ○ 중국 동구 3성 조선족 여성의 지위
	북경대학	2차 1994 북경	이화여대 숙명여대 북경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여성의 과거와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권력, 성-조선시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 한국 가정주부들의 역할과 사회경제적 지위 ○ 한국 노동여성의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 1980년대 여성소설의 특징
아시아 여성 학술대회	한국여성 연구원	1995 서울	이화여대 북경대학 동경대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페미니즘
학술대회	아시아 여성학센터	1996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의식의 성장
이화-북경대 학 학술교류 협정 기념 학술대회	한국여성 연구원 북경대학	1996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 속의 결혼과 가족-한중 여성 비교연구
한중여성 학술대회	한국여성 연구원 북경대학	1997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 사회변화와 여성의 역할-한 중여성비교연구
아시아여성학 교과과정개발 을 위한 국제 워크샵	한국여성 연구원, 아시아여성 학센터	1998 서울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여성학 현황 및 미래
		1998 서울	"/	국가별 보고

	주최	일시/ 장소	참가범위	의 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한국 여성연구원	1999 서울	이화여대 북경대학 코난여자대학 릿츠메이칸 대학 교토 분쿄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여성 ○ 근대화와 사적 영역의 재구성 ○ 국가와 공적 영역 ○ 여성의 몸과 성 ○ 여성의 재현
		2000 서울	이화여대 외 중화부녀학원 북경대학 국제기독교대 학 미에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근대성/세계화와 여성 ○ 여성과 일/노동 ○ 여성 삶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 소비문화와 여성의 정체성
아시아여성학 III	아시아 여성학센터 한국 여성연구원	2000 서울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중의 실천-여성학, 여성운동, 여성정책 ○ 아시아여성학 사업의 성과와 과제 ○ 아시아여성학 홈페이지 시연
아시아여성학 2000	한국 여성연구원	2000 서울	한중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p>아시아여성학이란 무엇인가 아시아여성학 역사쓰기 아시아 여성학 -국가별 보고 여성학 교과과정개발 연구 주제별 워크샵 (문화,가족,노동과 성, 정책·국가·여성운동,계급· 인종·성,몸·폭력,여성학교육) 아시아 여성들의 같음과 다름 아시아 여성학의 미래</p>
아시아여성학 2002		2002 제주		삼중의 실천-여성학, 여성운동, 여성정책
중조한 청소년 교육과 양성 학술회의	한국 여성연구원 연변대학	2000 서울	남한 북한 연변 발표자 각 3명	
아시아의 젊은 여성학자 국제 학술대회	한국 여성연구원	2000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학적 실천으로서의 나의 연구 단맛과 쓴맛-젊은 여성주의자로 서 여성학을 한다는 것
Young Feminist Forum	한국 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 학센터	2002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Sexuality in Asia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철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흙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